

《尙書·禹貢》

일러두기

- 李民·王健 撰, 《尙書譯注》, 상해고적출판사, 2004.12 重印. 본문 구두점 역시 이에 따름.
- 각주 및 삽화는 모두 역자 삽입. 각주에서의 인용은 顧頡剛·劉起鈞, 《尙書校釋譯論》, 중화서국에서 재인용
- 중국 고고학 발굴관련 참고설명과 지도 그리고 표는 劉莉·陳星燦, 심재훈 옮김, 2003, 《중국고대 국가의 형성》, 학연출판사에서 발췌함.

목 차

1. 《우공(禹貢)》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2. 《尙書·禹貢》 [題注]
3. 《尙書·禹貢》 우리말 전문
4. 《尙書·禹貢》 우리말 주석
5. 참고
 - A. 중국의 소금염지
 - B. 지질학 분석을 통해 본 중국 동광의 분포
 - C. 엘리트우문화의 공납 정치경제체계
 - D. 고대 중국의 수로와 천연자원 분포
 - E. 중국 고고학 유적지(청동기시대)들의 연대와 발전 양상

《우공(禹貢)》의 성립시기에 관하여¹

1. 서주(西周)시기 성립 설: 왕국유(王國維)와 신수치(辛樹勳)

왕국유(王國維)는 《고사신증(古史新證)》을 통해 문헌자료와 발굴자료라는 두 측면에서의 증거를 이용하여, 문헌 상의 자료로서 《상서(尙書)》에 대해 “《우하서(禹夏書)》중 《요전(堯典)》·《고요모(皋陶謨)》·《우공(禹貢)》·《감서(甘誓)》와 《상서(商書)》중 《탕서(湯誓)》는 그 문자가 점점 평이해지고 간결해지는 것을 봐서 혹 후세에 증편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최소한 주나라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간명하게 의견을 제시한다.

신수치(辛樹勳)의 《우공신해(禹貢新解)》에 이르러 제차 이 서주 성립 설을 논증하고 있는데 “《우공》이 책으로 성립된 시대는 서주의 문왕·무왕·주공·성왕·강왕의 전성시대로 목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며, 당시의 사관이 기록한 내용이다.” 그의 주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는 “《우공》제작시대에 대한 추측”으로 《우공》을 17개의 작은 절(節)로 나눈다면, 강역(疆域), 주초의 분봉(分封)에 대한 역사적 사실, 정치(政治), 구주(九州)의 관계, 도구산·구천(導九山·九川), 오복(五服), 사지(四至), 임토(任土)·작공(作貢), 공도(貢道), 치수(治水), 구주의 이름, 구주의 토지 등급과 부세의 등급을 나누는 사실, 토양의 분류, 문장구성 그리고 ‘대일통사상(大一統思想)의 발생시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을 분석해보면 모두 서주 시대의 정황과 부합된다. 아울러 편명을 ‘우(禹)’로 시작한 까닭은 주초 주나라 사람들은 우를 종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제2부는 “《우공》제작시대에 관한 토론”으로 당대의 저명한 학자 17인이 《우공》시대에 대한 토론을 담은 서신이 담겨있고 서주시대에 성립되었다는 자신의 의견을 천명하고 있다. 제3부는 “禹貢新解”로 구주의 토양과 부세, 연주·서주·양주 이 세 개의 주의 초목과 토양, 칠저(漆沮)·옹저(雍沮)·타잠(沱潛) 등의 여러 하천, 문자의 함의, 하천과 토지를 정비한 일, 구주의 주요 산(맥)을 정비한 일, 흑수(黑水)·약수(弱水)와 사지(四至), 구강(九江)·삼강(三江)·구하(九河), 위예(渭汭)·낙예(洛汭), 석토성(錫土姓), 그리고 오복(五服) 등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그는 이 모두가 서주의 사물로 여겼다. 이외에 서옥생(徐旭生)의 《독산해경찰기(讀山海經札記)》는 “《우공》이 책으로 성립된 시기는 양주(梁州)의 공물인 철에서 드러난 허점을 제외하면 그 문자로 추측해볼 때, 춘추시대 즉 서주시대의 작품임도 불가능하지 않다.”

2. 춘추시기 성립 설: 강유위(康有爲), 왕성조(王成祖)

강유위(康有爲)는 그의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중의 《육경개공자개제소작고(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에서 《상서》의 《요전》과 《우공》, 《역(易)》의 《단전(象傳)》과 《문언(文言)傳》등의 문자가 “모두 정연하고 수려하며 우아하며”, “완전히 공자의 문장이다.” 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공》이

¹ 顧頡剛·劉起野, 《尙書校釋譯論》, pp. 832~843 발췌하여 옮김.

춘추 후기 공자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신수치의 《우공신해》에서는 서북대학교 교수 왕성조(王成祖)가 지리학적 시각에서 연구한 내용인 《중비교연구중신고정우공형성시대(從比較研究重新估定禹貢形成時代)》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공》을 춘추시대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주유열국하며 박학다식했던 공자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신수치는 또한 일본학자가 《산해경》을 연구한 후 제기한 《우공》이 춘추시대에 성립되었다는 견해가 이 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위의 서옥생의 《독산해경찰기》에서도 《우공》이 춘추시대의 작품임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도 같다.

3. 전국시기 성립 설: 고희강(顧頡剛) 외 그를 추종하는 다수

강협암(江峽庵)은 《선진경적고(先秦經籍考)》에서 일본학자 내등호차랑의 《우공제작시대고(禹貢制作時代考)》의 주장을 실었는데, 구주(九州)·사지(四至)·산맥(山脈)·수맥(水脈)·공부(貢賦) 등을 연구 진행한 결과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우공》은 전국시대로부터 한나라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루어진 지리학적 성과물에 관련된 전설들이 점차 발전하여 《우공》과 같은 종류의 기사로 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신수치의 《우공신해》는 《우공》은 서주 초기 전성시대의 저작이며 아울러 당시의 사관이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에 이어서 “결코 《우공》은 ‘진나라에도 가지 않았던’ 공자의 주유열국한 족적이 아니며 또한 전국시대의 ‘백가쟁명(百家爭鳴)’에 속한 학자들이 저술한 것도 아니다.”

전국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생각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고희강(顧頡剛)인데 그 역시 누가 《우공》의 작자인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고희강의 설은 그의 《논금문상서제작시대서(論今文尙書制作時代書)》와 중간 중간의 저작과 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술한 《중국고대지리명저선독(中國古代地理名著選讀)·禹貢》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공》이 전국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첫째 이유로 춘추시대 이전의 우에 대한 신화는 단지 ‘치수(治水)’에 관련된 것이었지 ‘분주(分州)’에 관련된 것은 없었다는 사실과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칠국이 각각 그 강역을 확대함에 이르러서야 천하가 이 정도의 강역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는 것으로 《맹자·양혜왕상》: “천하에 사방 천리의 영지를 가진 자가 아홉이다(海內之地, 方千里者九).” 즉 맹자 시대에 비로소 구주설이 출현했다고 본다. 더욱 논증을 진행시켜 “오복제도(五服制度)는 서주시대에 실행되었다가 전국시대에 와서는 점점 없어졌고; 구주제도(九州制度)는 전국시대의 잉태되어 한나라 말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한무제가 처음으로 《우공》과 《직방씨(職方氏)》의 설을 결합하여 당시 실제로 13개 주로 행정구역을 나누었고, 후한 말 조조(曹操)가 집정하여 비로소 《우공》의 구주가 실제로 반포되었다). (……) 《우공》편 속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선진시대의 이상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 이런 부분이 그 저작시대를 스스로 밝혀주고 있다.” 이어서 고희강은 전국시대 성립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 ‘도산장(導山章)’ 내의 ‘內方’ 과 ‘外方’ 이라는 산 이름. 이들 산 이름은 초나라가 영(郢; 현재의 강릉현 북쪽)에 도읍했을 때 비로소 유래한 이름으로 현재의 하남성 엽현(葉縣)에 있는 방성산(方城山)이 병풍처럼 둘러막고 있어 그 북쪽에 있는 송산(嵩山)을 외방산이라 고쳐 부르고, 현재의 호북성 종상현(鐘祥縣)의 장산(章山)을 내방산이라고 고쳐 부른 것이다. 서주 당시에는 초나라가 하남성 서남쪽에 있는 단수(丹水)와 석수(淅水) 이 두 하천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내방과 외방이라는 이름이 불가능하다. (2) 오나라 왕 부차(夫差)가 북상하며 패권을 다룰 때, 송나라와

노나라 사이의 운하를 뚫어 사수(泗水)와 제수(濟水)가 서로 통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택(荷澤)을 지나는 물길을 하수(河水)라고 부른 것이다. 서주의 공도(貢道)는 “회수와 사수에서 배에 실어 하(荷)에 도달하게” 되므로 《우공》의 저작시대는 부차가 운하를 개통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揚’과 ‘越’은 雙聲으로 의미 역시 같다. 곧 양주(揚州)는 월(越)의 지역이다. 그러나 기원전 512년 오나라가 서국(徐國)을 멸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국경이 회수(淮水)에 도달하게 되었고, 기원전 473년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한 이후에야 비로소 월의 국경이 회수에 도달하게 되었으므로 《우공》에서 “회수와 바다의 사이를 양주라 한다.” 라는 언급은 기원전 5세기초 이전에는 월나라가 회수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4) 춘추시대에는 오히려 촉(蜀)은 중원과 격리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기원전 316년 촉을 멸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공》은 이러한 촉을 양주로 삼고 있다. (5) 중국은 청동시대로부터 철기시대로 발전하게 되는데 (철기는) 춘추시대에 시작되어 전국시대에 성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량주의 공물에 철과 강철이 있다.

결론적으로 고힐강은 “《우공》이 우하 시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과 기원전 4세기 후기 진나라가 촉을 멸하기 이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고힐강의 설에 동의하는 후학자들이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사념해(史念海)의 《하산집이집(河山集二集)·논우공적저작년대(論禹貢的著作年代)》이 이 설을 지지하며 진몽가(陳夢家)의 《상서통론(尚書通論)》역시 《우공》은 전국시대의 저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전국시대 성립설은 일본의 내등호차랑의 주장은 당시 학계의 풍토 아래에서 현저하게 많았던 이 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4. 진의 통일 이후 성립설

고힐강이 그의 《우공》에서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는바 “어떤 사람은 《우공》속에는 ‘大一統思想’이 농후한데 아마 《우공》은 진시황의 통일 이후의 작품이며 복생(伏生)이 진의 박사가 되어 이를 후대에 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의 일본 내등호차랑이 말한 전국초에서 한나라 초 사이의 지리학 성과물과 관련된 저술이다라는 주장 속에는 이미 진통일 이후의 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고힐강은 진의 통일 이후 동남 지방에 민중군(閩中郡)을, 남쪽지방에 남해(南海)·계림(桂林)·상(象) 등의 삼군을, 북쪽 지방에 구원군(九原郡) 등을 설치한 예를 들어 이러한 행정 지역은 새로이 강역을 개척한 것으로 《우공》속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 이후 성립설을 부정했다.

5. 《우공》의 저본은 기원전 천년전(商代 武丁 시기)에 출현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우공》이 성립되었다는 설: 소망평(邵望平)

이 주장은 현대의 고고학자 소망평(邵望平)의 설로 그의 《구주학간(九州學刊)》(1987.9)의 《우공 구주적고고학연구(禹貢九州的考古學研究)》에서 “구주는 고대의 행정구역도 아니고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탁고(託古)의 가설도 아니다. 이것은 기원전 2000년을 전후한 황하와 장강 유역에 실제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문지리적 구역이다.” 그는 《우공구주풍토고고학총고(禹貢九州風土考古學叢考)》(1988)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구주는 실제로 황하와 장강 유역에 기원전 3000년 사이 용산문화(龍山文化) 시기에 이미 형성되어 그 후 하상주 삼대를 거치면서 변천하며 지속된 일종의 인문지리학적 구역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중국 선사시대의 유적지는 이미 7천여 곳이 넘고 거의 3천여 개의 고고학 문화를 확립했으며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에 의해 수백 개의 유물의 선사시대 년대를 추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주요하게 황하 장강 유역의 선사시대 문화발전의 시기와 역사적으로 비어있는 틀새부분(空框架)을 세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용산문화 시기는 중국고대문명의 기초를 닦은 시기로 용산문화권은 중국고대문명의 근거지이다. 이 근거지와 《우공》구주의 범위가 비록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상당한다.” 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우공》구주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어 이러한 인문지리적 구역이 용산문화권 범위 내의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기주는 도사유형의 용산문화 즉 화산(華山)을 대표로 하는 중원문화와 연산(燕山)을 대표로 하는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고도로 발전된 용산시기 문화 구역이다. 연주는 하북성 남부와 산동성 서부의 용산문화권이라는 것이다. (기타 주 중간생략) 그의 결론은 “기원전 2000년 전후로 황하와 장강 유역의 고대문화의 구역이 《우공》의 구주강역과 기본적으로 부합된다. (……) 《우공》의 성립요건에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의 출현이고 또 하나는 (강력한) 왕권의 존재여부이다. (그러므로) 《우공》은 삼대 시기의 저작이다.” 아울러 “《우공》작자의 지리지식은 기원전 1000년 전의 ‘중국’에 한정되어 있으나 고힐강이 주장한 기원전 280년 경의 전국 칠국의 강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면: 《우공》이 최종적으로 어느 왕조 어느 시대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주’ 부분은 삼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외에 《우공》에 기재된 공물, 예를 들면 양주의 요와 곤(둘 모두 옥의 일종), 회이의 빈주와 어류, 형주의 큰 거북 등의 부류로부터 연주의 ‘강구택토(降丘宅土)’, 양주의 ‘도이직패(島夷職貝)’ 등의 지방풍토 역시 고고학과 민족학으로 입증할 수 있어 《우공》이 삼대의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공》이 성립된 시대에 대한 문제는 《우공》의 작자가 기주(冀州)를 구주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데 (……) 이로 미루어 보아 구주의 개념이 하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다만 고고학적으로는 《우공》이 하대에 성립된 서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상 왕조의 세력범위가 《우공》에서 서술한 구주(전체)에 미치고 있어 구주 분야가 대체적으로 황하 장강 유역에서 유래한 이미 오래된 인문지리 구역과 서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우공》구주의 저본이 상왕조의 사관의 손으로 혹은 상왕조의 사관이 구전된 하나라 역사에 대해 기술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외에 주나라 초의 사관이 하와 상의 역사를 기술한 것일 수도 있다. 구주에 기록된 자연조건과 산물 등을 현재의 온난한 기후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필자(소망평)는 《우공》 속의 구주 부분에 대한 저본은 기원전 1000년 이전에 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여러 설 중 문헌(《우공》)을 깊이 연구한 설로는 신수치의 서주설과 고힐강의 전국설이 그 고증이 두루 상세하고 논증이 치밀하여 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고힐강의 주장은 그 명망과 함께 전국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의 증거가 함께 갖추어져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이를 따르는 학자들이 많고

최근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신수치의 주장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한편 고힐강이 전국설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5가지 증거 중 (3), (4), (5)는 아주 명확하나 (1)' 내방과 외방' 과 (2)' 오 부차 이후 운하 개통' 증거는 그 반대의 증거도 있다.

현재의 지식으로는 《우공》의 작자는 중국의 西北지역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東南지방에 대한 지리지식이 부정확한 것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하남성 동백산과 호북성의 대별(大別)산은 본래 서로 연속된 산맥인데 작자는 오히려 따로 나누어 둘로 구분하고 있고, 사천의 민산과 호남성의 형산은 서로 관련이 없는데도 오히려 하나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고힐강 역시 《우공》의 작자를 “진나라 사람일 것이다(可能秦國人).”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서주 지역은 정확히 그 뒤의 진국의 영역이었으며 정확히 중국의 서북쪽이다. 아마도 《우공》의 작자는 중국의 서북지방 지리에 통달한 서주시대의 사관이었을 것이다².

² 공저자 중 유우기(劉起鈞)의 주장.

[題注]

우(禹)는 곧 하우(夏禹)로 이름은 문명(文命)이다. 공(貢)³이란 《광아(廣雅)·석고(釋詁)》: “아래에서 바치는 것으로 세금이다(上也, 稅也).” 《석언(釋言)》: “헌납하다(獻也).” 라고 풀이한다. 《서서(書序)》를 보면, “우가 구주를 구획하고 산의 형세를 따라 길을 뚫고 하천을 깊이 파내어 (정비한 후 백성들에게) 농사를 맡겨 공물과 부세를 바치도록 했다(禹別九州, 隨山浚川, 任土作貢).” 주병균(周秉鈞)은 《상서역해(尙書易解)》에서 “하천과 토지가 정비된 후 만민이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니 제요의 덕과 우의 공을 깊이 마음에 품었다. 사관이 이를 기록하여 그 공을 밝혔으니 《우공》이라 이름하였다.” 요의 시대에 홍수가 범람하여 곤(鯀)에게 치수를 담당토록 하였으나 9년 동안 치수사업에서 공을 이루지 못했다. 《사기(史記)·하본기(夏本紀)》에는 “이에 순이 곤의 아들 우를 천거하여 아버지의 업을 잇도록 했다.”는 기사가 보이고, 우는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치수에서 공적을 이뤄냈다. 《우공》은 모두 1,153자로 되어있고, 《사기·하본기》는 《우공》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공》은 중국 최초의 지리 저작물이며 그 안에는 산천의 이름과 방향, 산 및 하천 줄기의 맥락, 각 지역의 산물의 분포 그리고 각 주의 토질과 경작지의 규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대의 농업생산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행정구획 측면에서 《우공》의 구주는 하 문화의 중심 구역으로 기주(冀州)를 삼았고, 그 다음으로 연주(兗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陽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량주(梁州), 웅주(雍州)로 구분했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서쪽으로는 감숙성 섬서성에, 남쪽으로는 호남성과 호북성에, 북쪽으로는 요동반도를 아우른다. 《우공》의 체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우가 정비한 구주의 치수 공적; 두번째는 우가 산과 하천을 정비한 내용을 기술한 것; 마지막으로 오복(五服)제도를 기술함으로써 우의 공적을 총괄한 것이다.

《우공》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그 논의가 끊이지 않는데, 하대설, 서주설, 춘추설, 전국설, 그리고 서한설 등이다. 우리는 《우공》을 춘추전국시대에 성립된 저작물로 보며 최소한 전국시대 말기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우공》의 내용 속에는 아주 귀한 하대(夏代)의 자료를 어느 정도 전해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³ 《설문(說文)》, “공이란 수확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貢, 獻功也).” 라 했고, 단옥제는 그 주에 《노어(魯語)》를 인용하여 “춘분에 제사를 드릴 적엔 농사 및 양잠의 부역을 하고; 동지에 제사를 드릴 적엔 수확물을 바친다(社而賦事; 烝而獻功).” 라 했으며 위소(韋昭)는 “사(社)란 춘분에 올리는 제사이고 사(事)는 농사와 누에 치는 등의 일이다. 겨울에 드리는 제사를 증이라 하는데 제사를 올리며 수확한 오곡과 포목 등을 바친다(社, 春分祭社也. 事, 農桑之屬也. 冬祭曰烝, 烝而獻五穀布帛之屬也).” 라고 주석하고 있다.

우가 구주의 강역을 구획하는데, 산의 형세에 순응하여 길을 열고 수목을 쪼개어 표지로 삼았으며 높은 산과 큰 하천으로 구주의 경계로 삼았다.

기주(冀州): 호구산의 치수사업을 마무리 지은 후에 바로 양산과 기산의 공정에 착수하였다. 태원 지역을 정비한 다음에는 태악산의 남쪽지역에 도달했다. 담회 지역의 수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후엔 즉시 횡류하고 있는 장하에 대한 치수를 시작하였다. 기주의 토양은 부드러운 백색 토양으로 이곳에서 납부하는 부세는 원칙은 1 등급이나 2 등급의 부세를 섞어 내기도 하며 토질은 5 등급에 해당한다. 항수와 위수의 물길은 이미 잘 소통되었고 대륙택 역시 치리가 완료되었다. 동쪽 연해에 거주하는 이인들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공물로 올릴 적엔 갈석 부근에서 바닷가를 따라오다가 황하를 거슬러 올라와서 공물을 바쳤다.

제수와 황하의 사이 지역을 연주(兗州)라 한다. 황하하류의 수 많은 물길은 이미 소통되었고 뇌하 호수가 형성되어 웅수와 저수가 이 뇌하 저수지로 흘러 들었다. 토지는 이미 충분히 뽕나무를 심어 집에서 누에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구릉에서 평지로 내려와 거주하였다. 연주의 토질은 비옥한 흑토이며 수풀과 수목이 무성하게 자랐다. 연주의 경작지는 6 등급이고 부세는 9 등급인데 경작을 시작한지 13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른 주의 부세와 동일하게 되었다. 연주의 공물로는 옷과 생사가 있고 등그런 대바구니에 담아 바치는 공물로는 물들인 각종 무늬가 있는 견직품이 있다. 공물로 올린 물품들은 제수와 탐수에서 배에 실어 황하로 나른다.

발해와 태산의 사이 지역을 청주(靑州)라 한다. 우이 지역의 정비를 잘 마무리 지은 후에 유수와 치수의 물길을 소통시켰다. 청주의 토질은 잿빛이고 바닷가의 광대한 지역이 소금기를 머금고 있다. 청주의 경작지는 3 등급이고 부세는 4 등급이다. 청주의 공물로는 소금, 가는 갈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이 있다. 태산의 계곡 지역엔 생사·대마·주석·소나무 그리고 기이한 돌들이 있다. 래이 지역은 가축을 방목하였다. 산뽕나무로 누에를 쳐 얻은 생사를 등근 대바구니에 담아 올렸고, 공물은 문수로부터 바로 제수로 옮겼다.

바다와 태산의 남쪽으로 회하에 이르는 지역을 서주(徐州)라 한다. 회화와 기수의 치수를 마무리 짓자 몽산과 우산 일대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대야택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물길이 모여 들게되니 동평지역의 수해가 제거되었다. 서주의 토질은 갈색의 점토이고 초목이 점차 자라나 무성하게 되었다. 서주의 경작지는 2 등급이고 부세는 5 등급이다. 서주의 공물로는 오색토와 우산 계곡 지역에서

⁴ 우리말 전문 역시 李民·王健 撰 《尚書譯注》의 현대 번역문을 옮김.

서식하는 긴꼬리 야생꿩, 역산의 남쪽에서 자라나는 특산물인 오동나무, 사수의 물가에서 구할 수 있는 경의 석재로 그리고 회이 지역에서 나는 진주조개와 물고기 등이 있다. 여기에 검은색 고운 비단과 백색 고운 비단을 둥근 대 바구니에 담아 올린다. 공물은 회수에서 싣고 사수를 경유하여 황하에 도달한다.

회화와 황해 일대를 양주(揚州)라 한다. 팽려택으로 이미 허다한 갈래의 물길이 모여 들었고, 겨울철엔 북쪽에서 철새들이 날아들어 서식했다. 장강 하류의 물길들은 바다로 흘러가고 진택의 수리공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처에서 크고 작은 대나무들이 자라나고 초목이 무성하게 되었으며 수목 또한 키가 높이 자랐다. 양주의 토질은 습기가 많은 진흙이고 경작지는 9 등급이며 부세는 7 등급에 속한다. 양주의 공물로는 황동·청동·홍동, 아름다운 옥·아름다운 돌·크고 작은 대나무·상아·짐승의 가죽 그리고 새의 깃털과 목재가 있다. 바닷가에 사는 이인들은 풀로 짠 옷과 모자 신발을 신었다. 둥근 대 바구니엔 면직품을 담아 바쳤으며 굴·유자 등은 따로이 명을 기다려 공물로 올렸다. 공물을 실은 배는 장강으로부터 황해 연안을 따라 회화와 사수로 옮겨졌다.

형산(荊山)에서 형산(衡山)의 남쪽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을 형주(荊州)라 한다. 장강과 한수가 마치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러 가는 모양처럼 바빠 바다로 향하고, 많은 장강의 지류들이 동정호로 모여 드는데 그 물의 기세가 성대하다. 장강의 지류인 타강과 한수의 지류인 잠강이 모두 이미 그 물길들이 소통되어 운몽택 지역의 수해가 모두 제거됨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형주의 토질은 습기가 많은 점토질로 경작지는 8 등급, 부세는 3 등급에 속한다. 형주의 공물로는 새깃털·소꼬리·상아·소가죽으로부터 황동·청동·홍동, 가야금을 만드는 나무·견고하여 차 수레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전나무·동백나무·거칠고 곱게 갈 수 있는 숫돌·화살촉을 만드는 석노·붉은 주사 그리고 죽순·화살대로 쓰이는 대나무인 로와 호가 있다. 형주 내의 여러 지역에서 그 곳의 특산물을 바쳤고 제사에 지내는 술을 거르는 데 사용하는 청모를 잘 포장하여 상자에 담았으며 둥근 대 바구니에는 검은색, 황홍색의 비단으로 만든 허리띠와 진주를 담아 올렸다. 구강의 일대에서는 따로이 명을 기다려 제사용 큰 거북을 잡아 바쳤다. 공물은 장강의 지류인 타강에서 배에 실어 한수의 지류인 잠강에 도달한 후 바로 한수로 옮겨지고 그후 육로로 낙수로 이동하여 황하로 옮겨갔다.

형산(荊山)과 북으로 황하에 이르는 지역을 예주(豫州)라 한다. 이수·낙수·전수·간수의 물길이 소통된 후에는 황하로 흘러 들어가고, 형택으로 물길이 모여들었으며, 하택이 소통되어 물이 많을 때에는 넘쳐 흘러 맹저택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예주의 토질은 석회성분이 있는 층적황토로 낮은 층은 흑색의 단단한 토양이다. 경작지는 4 등급, 부세는 2 등급이나 1 등급을 섞어 냈다. 예주의 공물에는 옷·대마·가는 갈포·모시가 있고, 둥근 대 바구니에는 고운 면을 담아 올렸다. 석경과 옥을 다듬는 돌은 명을 기다려 바치곤 했다. 공물은 낙수에 실어 황하에 도달하였다.

화산의 남쪽과 서쪽으로 흑수의 사이 지역을 양주(梁州)라 한다. 민산과 파총산 일대를 정비한 후에는 충분히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되었고, 타강과 잠강의 물길이 소통되어 채산과 몽산 일대의 물길 역시

치수완료되어 화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공정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양주의 토질은 흑색의 비옥한 토지로 경작지는 7 등급이고 부세는 8 등급에 속하나 7 등급에서 9 등급까지 섞여서 났다. 양주의 공물로는 금·은·강철·돌화살촉·경석으로부터 곱·큰곱·여우·이리 등의 4 종류 짐승의 가죽이 있다. 서경산 일대의 공물은 환수의 물길을 따라 오는데 공물의 이동경로는 잠수를 경유하여 먼수로 온 후, 배를 놓고 육로를 선택하여 물으로 위수로 옮겨진 후 가로질러 바로 황하에 도달한다.

서쪽의 흑수로부터 산서성과 섬서성의 경계인 서하(황하)의 사이 지역을 용주(雍州)라 한다. 약수의 물길이 소통된 후로는 서쪽방향으로 흘러 가고, 경수는 위수로 흘러 들어가고, 칠수와 저수의 물길이 소통되어 합류한 후에 위수로 유입되며 풍수 역시 북쪽으로 흘러가다 위수로 유입된다. 형산과 기산의 일대가 정비가 완료되고 중남산과 돈물산으로부터 조서산에 이르는 길까지 모두 정비가 마쳐졌다. 고지대의 평원과 저지대의 습지에 대한 정비 공정 역시 성공적으로 마쳐진 후 바로 저야택도 치리되었다. 삼위산이 정비된 후엔 사람이 거주할 만하게 되니 삼묘족이 안정된 후로는 아주 잘 따르게 되었다. 용주의 토질은 황색의 진흙으로 경작지는 1 등급이고 부세는 6 등급에 속한다. 용주의 공물로는 왕의 홀을 만드는 아름다운 옥과 아름다운 돌 그리고 진주가 있다. 공물은 적석산 부근의 황하로부터 용문 근처의 황하로 실어오고 혹은 위수로부터 황하로 실어 오는 배가 있었다. 곤륜·석지·거수에서는 짐승의 털로 짠 직물을 바쳤다. 서방의 용족이 모두 안정되어 순종하였다.

견산과 기산의 길을 정비하여 소통시킨 후 북조형산에 도달하고 (가로막고 있는) 황하를 건너갔다. 또한 호구산에서 뇌수산에 이르는 도로를 열어 태악산까지 도달하였고, 지주산과 석성산으로부터 왕옥산에 이르기까지 길을 통하게 했다. 태행산과 향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갈석산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모두 뚫고 여기에서 발해로 들어가도록 했다. 서경산·주어산·조서산으로부터 바로 화산으로 통하게 하고; 또 응이산·외방산·동백산으로부터 배미산에 이르는 길까지 모두 개통하였다. 파충산으로부터 도로를 뚫어 형산에 이르는 길을 모두 개통하였고; 내방산에서 대별산에 이르는 길을 개통하였다. 민산의 남쪽부터 장강 북안의 형산에 이르는 길을 모두 통하게 하고 장강 북안의 물길을 건너 역시 장강 북안의 부천원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모든 길이 이미 개통되었다.

약수의 물길을 소통시켜 합려산에 이르도록 하고 그 하류는 사막으로 인도하였다.

흑수의 물길을 소통시켜 삼위산에 이르도록 하여 남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황하의 물길을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적석산으로부터 용문산까지 통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쪽으로 화산의 북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다시 동쪽으로 향해 지주산까지 통하게 하고; 다시 동쪽으로 맹진에 도달하게 하고, 동쪽으로 낙수가 황하로 들어가는 지역을 경유하여 대비산에 이르도록 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하를 지나 대륙택에 도달하게 하였으며; 다시 동북 방향으로 여러 지류로 나뉘어지는데 이 여러 물길들은 함께 황하의 물길을 이어서 순조롭게 발해로 들어갔다.

양수의 물길을 소통시켰는데, 파충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게되면 (양수의 이름이) 한수가 되었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면 (그 이름이) 창량지수가 되었으며; 삼서수를 경유하여 대별산까지

통하게 하였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강으로 유입되었다. 동쪽으로 향하여 물길이 휘돌아 모여 팽려택이 형성되었는데 팽려택의 동쪽에 있는 장강을 북강이라 칭하였는데 바로 바다로 들어간다.

장강의 물길을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민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을 향해 갈라져 나온 지류를 통칭하여 타강이라 했으며; 다시 동쪽으로 운수의 지류인 풍수까지 통하여 이르도록 했으며, 다시 동쪽으로 장강 북안의 많은 지류들을 경유하여 동릉까지 이르도록하고, 다시 동북쪽으로 비스듬이 흘러 가서 장강 북안의 팽려택으로 물길이 모이도록 했는데;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 장강을 중강이라 칭하고 바로 바다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운수의 물길을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면 그 이름이 제수가 되어 황하로 유입되는데 제수는 황하의 남쪽 건너편으로 분출되어 나와서 형택을 형성하고 동쪽으로 도구의 북쪽지역을 경유하여 다시 동쪽으로 하택으로 흘러 모인다; 다시 동북쪽으로 흘러 가서 문수와 합해진 후 북쪽으로 흘러가다가 동쪽으로 물길이 꺾여 바다로 통하게 되었다.

회하를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동백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며 사수·기수와 합류한 후 다시 동쪽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위수를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조서산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향하다가 풍수와 합류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다 경수와 합류하며; 다시 동쪽으로 칠수와 저수를 경유하여 황하로 통한다.

낙수를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웅이산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향하다가 간수·전수와 합류한 후; 다시 동북쪽으로 흘러 이수과 합류하고선 동북쪽으로 향해 가며 황하로 바로 통한다.

구주 전역의 산과 하천을 소통시키는 공정이 완료되니 수해가 모두 제거되었고 사방이 모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으로 바뀌었다. 구주의 큰 산의 도로가 개통되고, 구주의 큰 하천 역시 모두 그 발원지와 물길까지 소통되었으며 구주의 호수와 저수지에 모두 제방을 쌓으니 해내의 공물을 옮기는 길이 모두 뚫려 막힘이 없게 되었다.

부세징수를 담당하는 육부의 사무가 잘 운용되고, 구주의 토지가 모두 질과 량에 따라 감정되어 신중하게 공물과 부세의 많고 적음을 규정하였고 구주 지역의 부세 역시 토양의 상중하 세 종류에 근거하여 표준을 확정지었다. 그런 후에 제후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성을 하사하여 제후국을 세웠는데 제후들은 마땅히 짐이 주창한 덕교를 솔선하여 높여 경외하고 짐이 제창한 덕행을 위배해서는 안될 것이다.

천자의 도성으로부터 5 백리까지를 전복(甸服)이라 한다. 그 중 도성과의 거리가 1 백리 이내인 곳은 농작물을 베어 거두어 (뿌리까지) 온전하게(總) 보냄으로써 부세를 납부하고; 2 백리 이내는 이삭(鎗)을 부세로 내며; 3 백리 이내는 걸겹질이 붙어있는 채로 곡물(秸服)을 부세로 납부하였고; 4 백리 이내는 겨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粟)을 부세로 내었으며; 5 백리 이내는 겨를 제거한 정제된 쌀(米)을 부세로 납부하게 했다.

전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후복(侯服)이라 한다. 후복의 1 백리 이내는 대부의 채읍이고, 사람들은 천자를 위해 각종 부역에 복무하였다; 2 백리 이내는 남방(男邦)의 소국으로 사람들은 천자를 위해 일정한 부역을 부담했다; 3 백리 밖의 제후국 백성들은 천자를 위해 보초를 서서 경계했다.

후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수복(綏服)이라 한다. 수복의 3 백리 이내는 문교를 관장하는 관원을 두어 문교를 행하도록 하고, 그 바깥 2 백리 지역의 백성들은 무장을 시켜 천자를 보위토록 하였다.

수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요복(要服)이라 한다. 요복의 3 백리 이내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그 풍속을 변화시켜려하고, 그 바깥의 사람들은 부세를 감면해 주었다.

요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황복(荒服)이라 한다. 황복에서 3 백리 이내의 사람들은 현지의 풍속에 따라 다스리고 예절을 간소화시키며 그 바깥의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맡기고 그들에게는 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도달하고 서쪽으로는 사막에 도달했으며 북방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천자의 덕교를 퍼뜨렸다. 이에 제 순은 우에게 검은 색의 상서로운 옥을 내려 천하에 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했으며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禹敷土，隨山刊木，奠高山大川。

우가 구주의 강역을 구획하는데 산의 형세에 순응하여 길을 열고 수목을 쪼개어 표지로 삼았으며 높은 산과 큰 하천으로 구주의 경계를 삼았다.

[주석]

- 1) 부(敷). 마옴은 나누다(分)라고 했고, 정현은 배치 혹은 안배하다(布)라고 주석했다. ‘禹敷土’를 채침(蔡沈)은 《서집전(書集傳)》에서 “강토를 구주로 나누다.” 라고하여 우가 구주를 구획한 것을 보았다.
- 2) 수(隨)는 순(循) 혹은 순(順)으로 ~을 따라. 간(刊)은 베어내다의 뜻⁵. 정현(鄭玄), “각 주에 있는 산을 올라 나무를 베어 길을 냈으므로 꼭 정비해야 할 곳을 살핀 후, 그 형세를 살펴보고 그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 3) 전(奠)은 확정하다(定)의 의미다. 《尙書·여형(呂刑)》: “우가 물과 땅을 정비하며 큰 산과 하천을 명명하는 일에 주력했다(禹平水土, 主名山川).” 즉, 우가 산천의 이름을 확정지었다는 것. 채침 《서집전》: “높은 산(맥)과 큰 하천을 확정지어 각 주의 경계로 삼았다.” 정초(鄭樵), 《통지(通志)》: “주와 현의 설치하는 때에 따라 변하지만 산천의 모습은 천고에 불변한다. 이것이 《우공》에서 주를 구획할 때 반드시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삼은 까닭이다.” 산천이 표지가 되고, 산천으로 각 주의 경계를 확정짓는다. 고희강(顧詰剛), “연주는 제수와 황하로 경계를 삼고, 청주는 바다와 태산으로 경계를 삼으며 웅주는 흑수와 서하로 경계를 삼고 형주는 형산과 형산으로, 서주는 바다와 태산 그리고 회수로 경계를 삼았으며 예주는 형산과 황하로 경계를 삼았고 양주는 화산과 흑수로 경계를 삼았다.”

⁵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는 산림 중의 나무의 껍질을 벗겨 내어 길의 표식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史記·하본기》와 안사고(顔師古)의 《한서》 그리고 손성연(孫星衍)의 《상서금고문주소(尙書古文注疏)》가 이를 따르고 있다. 손성연이 인용한 위소(韋昭)의 주를 보면, “옛날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나무의 흰 살을 드러내어) 길을 표시하였다.” 둘째는 산맥의 형세를 따라 나무를 베어내 길을 만들어서 치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孔疏》에서 인용한 정현의 주석이 대표적이다.

冀州：既載壺口，治梁及岐。既修太原，至于岳陽。覃懷底績，至于衡漳。厥土惟白壤，厥賦惟上上，錯。厥田惟中中。恒·衛既從，大陸既作⁶。島夷皮服，夾右碣石入于河。

기주(冀州): 호구산의 치수사업을 마무리 지은 후에 바로 양산과 기산의 공정에 착수하였다. 태원 지역을 정비한 다음에는 태악산의 남쪽지역에 도달했다. 담회 지역의 수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후엔 즉시 횡류하고 있는 장하에 대한 치수를 시작하였다. 기주의 토양은 부드러운 백색 토양으로 이곳에서 납부하는 부세는 원칙은 1 등급이나 2 등급의 부세를 섞어 내기도 하며 토질은 5 등급에 해당한다. 항수와 위수의 물길은 이미 잘 소통되었고 대륙택 역시 치리가 완료되었다. 동쪽 연해에 거주하는 이인들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공물로 올릴 적엔 갈석 부근에서 바닷가를 따라오다가 황하를 거슬러 올라와서 공물을 바쳤다.

[주석]

- 1) 기주(冀州), 우가 구획한 구주(九州)의 하나. 사마천, 《史記·하본기(夏本紀)》: “우의 행적은 기주로부터 시작했다.” 기주의 명칭은 춘추시대의 기국(冀國)으로부터 유래했는데 (기국은) 현 산서성 하진현(河津縣) 기향(冀享)에 해당한다. 후에 쑤나라에 멸망 당했기 때문에 기를 진(晉)이라 부르게 되었다. 《여씨춘추·유시람(有始覽)》: “양하(兩河)의 사이를 기주로 삼았는데 진나라 땅이다.” 그 주석에 “동쪽으로 청하(淸河)에 서쪽으론 서하(西河)에 이른다.” 대체로 오늘날 산서성 전체와 하북성의 서북부, 하남성의 북부 그리고 요녕성의 서부를 포함한다. 기주는 전설 상의 요순과 우 그리고 하가 도읍한 곳으로서 요순 부락연맹의 활동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서·우공》의 치수와 구주를 구획하는 사업은 기주로부터 시작한다.
- 2) 기(既)는 이미. 재(載)는 일(事)로서 곧 호구 일대의 수리 사업이 종료됨을 가리킴. 호구(壺口). 《한서·지리지》: “하동군 북굴현(北屈縣)으로 《우공》에서 언급한 호구산은 동남쪽에 있다.” 그 위치는 현재의 산서성 길현(吉縣)의 서북쪽에 있으며 섬서성 의천(宜川)에서 멀리 바라다 보인다. 용문에서 약 70킬로미터. 황하가 여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물길의 너비가 200여 미터에서 20여 미터로 축소되고 목구멍처럼 좁아져 겨울철에는 수심의 편차가 15~20미터에 이르게 되고 이에 형성된 벼랑 끝 폭포가 기이한 장관을 이루게 된다. 호구의 폭포는 그 기체가 거침없이 석조 홈통(石槽)으로 흘러 들어가 휘돌아 나가니 마치 호리병 모양의 깔때기와 같은 까닭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 3) 양산(梁山). 현 섬서성 한성현(漢城縣)의 서북쪽으로 호구산의 남쪽. 기산(岐山). 기산의 위치에 대해서 기존의 많은 이들이 현 섬서성 기산현(岐山縣) 경내의 기산(즉, 위수(渭水)의 북쪽)이라고 여겼다. 위수 북쪽에 있다는 기산은 호구산에서 비교적 멀어 신뢰할 수 없다. 채침의 《서집전》은 “양산과 기산은 모두 기주에 있다. 양산은 곧 여량산(呂梁山)으로 지금의 석주(石州) 이석현(離石縣) 동북쪽이다. 기산은 지금의 분주(汾州) 개휴현(介休縣) 호기(狐岐)에 있는 산으로 승수(勝水)의 발원지이며 동북쪽으로 흘러가다 분수(汾水)로 유입된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술(崔述)은 두 설을 절충

⁶ 착간(錯簡). “恒·衛既從，大陸既作”은 ‘至于衡漳’와 ‘厥土’의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顧頡剛·劉起鈞, 《尚書校釋譯論》, p. 546.

하여 양산과 기산 이 두 산은 모두 당연히 황하에 걸쳐 있고 웅주와 기주의 경계 상에 있어야만 황하의 흐름을 치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최동벽유서(崔東壁遺書)》). 고흥강은 “호구, 양산, 기산은 모두 황하를 치수하는 공정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황하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 (채침이 주장한) 여량산(呂梁山), 호기(狐岐)는 모두 황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웅주(雍州)의 량산(梁山)은 옛 춘추시대의 진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위수(渭水)유역에 있는 기산(기산현 경내 기산)은 황하를 치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최술의 말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 4) 수(修)는 정비하다(治)⁷. 태원(太原), 공안국(孔安國), “고지대 평야(高平)를 태원이라 부른다. 현재는 군의 명칭으로 삼았다. 악(岳), 태악(太岳)산이다.” 호위(胡渭)는 이 설을 좇아서 《우공》치수에서 언급된 호구이하는 현재의 태원(시)는 그 곳으로부터 먼 동북쪽에 있으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요순 시대의 중심지는 현재의 진남(晉南)으로 왕국유(王國維)의 고증을 보면, “태원은 바로 한나라 때의 하동군 땅으로 《우공》에서 언급한 태원은 호구, 양산, 그리고 악양의 사이에 있었다라는 지리적 위치에 부합한다.” 고흥강 역시 이 설을 이어서 “옛 태원 땅은 하동군에 위치하고 분수(汾水) 조수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택(大澤)을 아우르고 있다. 현재의 산서성 문희현(聞喜縣) 일대이다.” 라고 주장한다. 요 시대의 (평양)平陽은 곧 현재의 (임분)臨汾시.
- 5) 악양(岳陽). 악은 태악산(太岳山)으로 현재의 산서성 광현(霍縣) 동쪽에 있다. 일명 광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을 양이라고 한다. 지금의 태악산 이남과 영제(泳濟) 일대로서 큰 평원과 바로 인접하고 있다.
- 6) 회(懷). 《한시외전(漢詩外傳)》: “무왕이 주(紂)를 정벌하며 형구(邢丘)에 이르러 그 곳 이름을 회로 바꿨다.” 지금의 하남 심양(沁陽)·제원(濟源)·수무(修武)·온현(溫縣)·무척(武陟) 등의 황하 북쪽 지역을 아우른다⁸. 고대엔 황하 이북과 태행산(太行山) 이남을 남양(南陽)이라고 불렀다. 이 장회 일대는 토지가 비옥하고 지세는 평탄하며 북쪽엔 태행산을 남쪽으로는 황하, 서쪽으론 아수를 동쪽으로는 기수(淇水)에 면해 있어서 수해를 입기 쉬웠기 때문에 치수가 중요한 지역이었다.
- 7) 형(衡)은 횡류하다(橫)와 같다⁹. 장수(漳水). 산서성 고원의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횡류한다. 북상하는 황하와 만나 하북과 하남 두 성의 사이에 있는 평원지대로 흘러 가는데 수해가 빈번하다. 공공(共工)이 바로 이 곳에서 치수했다는 설이 있다.
- 8) 궐(厥)은 그(其), 유(惟)는 시(是)의 의미. 백양(白壤). 오늘날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의 토질은 염분을 포함한 물기가 있는데 홍수가 물러간 후 흙의 표면은 물기가 증발한 후 염분이 생겨나므로 지면이 백색을 띤다. 이에 옛 사람들이 백양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한다. 마융(馬融)은 주석에서 “양이란 토양의 성질이 부드러운 것(和美).” 안사고(顔師古), “부드러운 흙을 양이라 한다.”
- 9) 부(賦)는 부세로 일반적으로는 양식을 가리켰는데 후대엔 군사용 물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상상(上上)

⁷ 증민(曾旻), 《간단록(簡端錄)》: “새로 시작하여 정비하는 것을 재라하고, 옛 사업을 이어 정비하는 것을 수라 한다(經始而治之之謂載, 因其舊而治之之謂修).” 라고 하나 실제로는 “載·治·及·修·之·於, 모두 일을 하다는 의미다.”

⁸ 광예재(郭豫才), 《담회고(覃懷考)》에서 담(覃)과 심(沁)을 동음이라 보아 즉 심수(沁水)이며 회 일대가 심수의 물길이 돌아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합해서 담회라고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⁹ ①형(衡)과 장(漳)이 모두 물 이름. 마융(馬融)을 인용한 《釋文》 ② “장수가 횡류하여 황하로 들어가다.” 《孔疏》는 《수경주》에 탁장을 형장이라 한 것에 근거하여 ②의 설을 지지.

은 제일등급으로 《우공》에서는 구주의 작물 생장의 상황과 토지의 비옥함 정도에 근거하여 부세를 아홉 등급으로 나누었다. 착(錯)은 잡(雜)으로 제1등급과 제2등급을 섞어 낸을 의미한다.¹⁰

10) 전(田)은 경작지. 정현, “토지는 음과 양의 조화(中)이다. 만물을 낳게 하는 것을 토(土)라 하고, 사람의 힘을 써서 경작지로 만든 것 그것을 전(田)이라 한다.” 중중(中中)은 경작지의 소재지가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 비옥한지 황폐한지 등의 차이를 가리킨다. 모두 9등급이며 중중은 제5등급이다.

11) **항수(恒水)·위수(衛水)**. 항수와 위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①《한서·지리지》:

“항수는 곡양현(曲陽縣) 경내의 항산(恒山)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구수(滏水)에 들어간다. 위수(衛河)는 하북성 령수현(靈壽縣) 동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령수현 동남에서 호타하(滹沱河)와 합류한다. 항수·위수·구수·호타하는 각각 그 발원지를 가지고 있다.”

②《수경·구수(滏水)주》: “구수는 다시 동쪽으로 항수는 서쪽으로부터 와서(구수로) 유입된다. 구수로 합류된 이후로는 하나의 물길이 되고 항천(恒川)으로 들어간 이후로는 통칭한다. 이것이 곧 《상서·우공》에서 말하는 ‘항수와 위수가 이미 물길을 따르다’ 라는 것이다.” 이에



호위(胡渭)가 《상서추지(尙書雒指)》에서 위하(衛河)의 하류는 곧 호타하이고, 항수의 하류는 곧 구수이다라고 하여 네 하천은 두 가지 하천이다라고 한 까닭이다. 실제로는 항수와 위수의 하류는 전국시대 황하가 크게 바뀌기 전에 모두 황하 하류 하도의 일부분으로 항수와 위수를 치수했다는 것은 황하 하류의 물길을 치수했다는 것일 뿐이다.

12) **대륙(大陸)**. 대륙택으로 **현 하북성 거록(巨鹿)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고대에 유명한 내륙 호수였다.

13) **도이(島夷)**¹¹. 《사기》와 《한서》는 공히 ‘조이(鳥夷)’ 라고 쓴다. 정현,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새

¹⁰ 본문의 부세등급은 단위(예를 들면 1인당)당 부과 등급이 아닌 ‘절대규모’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즉, 토질은 5등급이나 부세는 1~2등급을 섞어 낸다는 것은 그 주 전체가 납부하는 부세의 ‘절대규모’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토질은 상등인데 부세는 낮은 등급일 경우는 토질은 비옥하지만 경작지 절대규모가 작은 경우이고, 반대로 토질은 낮은 등급인데 부세는 높은 경우는 비록 토질은 비옥하지 않지만 경지의 절대규모가 크거나 거주인이 많아 수확량이 많은 경우라고 생각됨. 임지기(林之奇)는 《전해(全解)》에서 각 주의 세입 총량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좌전·양공25년》의 당시 부세에 대한 기록이 이를 증빙. 한편 정현은 기주는 도읍으로 공물은 없이 곡식만 납부한 까닭에 다른 주에 비해 부세가 높다고 설명함. (此州入穀不貢.)

¹¹ 《우공》의 원문은 ‘조이(鳥夷)’ 가 맞다. 《사기·하본기》는 “鳥夷皮服” 이라 하고 양주에서는 “鳥夷卉服” 이라 기재. 尙文에는 원래 기주(冀州)는 조이(鳥夷), 양주(揚州)는 도이(鳥夷)라 하여 명확히 구분하였다. 《한서·지리지》에서도 양주의 도이로 인해 기주의 조이 역시 도이로 바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孔疏》, “孔氏는 鳥를 島로 읽었다(……) 왕숙(王肅)은 ‘鳥夷란 동북쪽에 있는 이인들의 사람을 가리킨다.’ 고 한다.” ‘皮服’ 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의복이 아닌 공물이라는 주장이다. 《시》의 《大東》, 《都人士》등의 제 편을 보면 주나라 때의 귀족들이 皮毛를 장신구로 사용했음과 《爾雅·釋地》의 “동북방의 특산물로 斥山의 무늬있는 가죽이 있다.” 라는 기사 그리고 《후한서·동이전》의 동북방의 여러 부족들이 각종 진귀한 짐승 가죽을 공물로 바쳤다.” 라는 기사 등이 이를 증빙한다.

와 짐승을 잡아먹고 산다.” 도(島)는 《공전(孔傳)》에 바다의 섬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夷)는 고대 먼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夷)라고 했다. 夷는 고대에 기주 동쪽의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널리 가리키는데 수렵을 생업으로 삼고 조수의 가족으로 의복을 지어 입었다. 뒤 경문에 나오는 양주(揚州)의 “섬에 사는 이(夷)들은 풀로 의복을 삼았다” 라는 말과 관련 지어보면 기주의 도이들은 기주 연해지역의 섬에 사는 이(夷)임을 알 수 있다.

- 14) **갈석(碣石)**. 산 이름. 그 위치는 예로부터 여러 설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다. 대체로 현재의 발해연안을 가르킨다. 우 당시에는 황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한서·지리지》: “오른쪽에 북평 려성(驪城)현이 있고, 대갈석산이 서남쪽에 있었다.” 려성은 현재의 하북성 락정(樂亭)현이다. 한편 문영(文潁)이 주석한 《한서·무제기(武帝紀)》에서는 **하북성 창려(昌黎)** 동남을 갈석이라고 여겼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설을 따른다. 갈석은 우 당시 황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였다.

濟·河惟兗州；九河既道，雷夏既澤，滄·沮會同。桑土既蠶，是降丘宅土。厥土黑墳，厥草惟繇，厥木惟條。厥田惟中下，厥賦貞，作十有三載乃同。厥貢漆絲，厥篚織文。浮于濟·漯，達于河。

제수와 황하의 사이 지역을 연주(兗州)라 한다. 황하하류의 수 많은 물길은 이미 소통되었고 뇌하 호수가 형성되어 웅수와 저수가 이 뇌하 저수지로 흘러 들었다. 토지는 이미 충분히 뽕나무를 심어 집에서 누에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구릉에서 평지로 내려와 거주하였다. 연주의 토질은 비옥한 흑토이며 수풀과 수목이 무성하게 자랐다. 연주의 경작지는 6 등급이고 부세는 9 등급인데 경작을 시작한지 13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른 주의 부세와 동일하게 되었다. 연주의 공물로는 옷과 생사가 있고 둥그런 대바구니에 담아 바치는 공물로는 물들인 각종 무늬가 있는 견직품이 있다. 공물로 올린 물품들은 제수와 탐수에서 배에 실어 황하로 나른다.

[주석]

- 1) **제수(濟水)**, 고대 사독(四瀆; 네 개의 큰 하천) 중의 하나. 발원지는 **현재의 하남성 제원시(濟源市) 왕옥산(王屋山)**이고, 동남쪽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간다. 전해오는 옛설에 황하를 땅 밑으로 관통하여 동쪽으로 흘러 산둥성 경계에까지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황하의 지류가 되어 하남지방의 황하 남쪽 기슭으로부터 산둥으로 흘러간다. 연주(兗州)는 대략 현재의 산둥성 서부, 하북성 동남부, 하남성 동북 모퉁이에 해당한다. 연주는 춘추시대 위나라의 영역이다. 《여씨춘추》: “황하와 제수의 사이를 연주라 하는데 위나라이다.” 연(兗)자는 연(沔)의 예서체인데 연수(沔水)는 곧 제수(濟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연주란 명칭은 제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옛 제수의 물길은 연주·예주·서주·청주 등 여러 주를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다. 공영달, 《상서정의》: “연주 이하 여덟 주는 그 첫머리에 모두 산천으로 시작하는데 모두 해당 주의 경계를 말하고 있다.”
- 2) **구하(九河)**. 구하는 《이아(爾雅)·석수(釋水)》: “구하는 도해(徒駭)·태사(太史)·마협(馬頰)·복보(覆釜)·호소(胡蘇)·간(簡)·계(緄)·조반(釣盤)·격진(鬲津)이다.” 구하는 **당시 황하 하류의 아홉 개의 물길**인데 당시 황하 하류의 물길은 아주 많았고 우가 이 물길들을 아홉 개의 물길로 소통시켜서 상류에서부터 오는 물을 순조롭게 바다로 이끈 것이다. 다만 이 구라는 수는 옛날에는 다의적이어서 어느 특정한 아홉 갈래의 물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략 연주 경내 황하 하류의 여러 물길을 널리 일컫는다. 도(道)는 도(導)와 같으며 ‘막힌 물을 터서 통하게 하다’의 의미다.
- 3) **뇌하(雷夏)**. 큰 저수지의 명칭. **현 산둥성 하택현(菏澤縣)** 동북쪽의 황하 남쪽기슭을 가리킨다. 옛날엔 이 지역의 지세가 낮고 웅덩이를 이루어서 물이 모여들어 저수지를 이루었다. 후에 침적되어 평지가 되었다.
- 4) **웅(滄)**. 웅수는 황하에서 갈라져 나온 한 지류. **구설에 따르면 현재의 월왕하(越王河)이다.** 저수(沮水)는 제수(濟水)의 한 지류. 이 두 하천이 합류하여 뇌하택으로 들어간다.
- 5) **상토(桑土)**란 뽕나무를 기르기에 적당한 토지. 정현은 주석에서 “복수(濮水) 주변에는 뽕나무가 많다.”라고 했는데 복수 주변은 위나라 땅이며 연주에 속한다. 이 일대에는 뽕나무가 아주 많다. 《시경》과 《예기》의 내용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상토기잠(桑土既蠶)’이란 수해를 물리친 후 사람

들이 고지대에서 평지로 내려와 (거주하며) 누에를 길러 양잠을 했다는 뜻이다. 최근의 신수치(辛樹幟)는 《우공신해(禹貢新解)》에서 (상토란) 뽕나무를 기르기에 적합한 토지라는 뜻이 아니라 홍수가 물러간 후 나타난 일종의 지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¹²

- 6) 시(是). 왕인지(王引之)는 《경전석사(經傳釋詞)》에서 ‘于是’라고 풀었다. 강(降)은 내려오다. 구(丘)는 돌이 드문 자그마한 흙으로 이루어진 구릉. 택(宅)은 주거하다¹³.
- 7) 분(墳)은 토지가 비옥함을 뜻함. 마옹, “분이란 기름지고 비옥함” 분(墳)과 비(肥)는 음이 서로 비슷하다. 흑분은 고지대의 흙색의 비옥한 토양을 말한다. 최근 신수치(辛樹幟)는 《우공신해》에서 “분은 고지대의 땅으로서 비옥한데 구릉의 토양이면서 기름기가 풍부한 것과 비슷하다; 식분(埴墳)은 점성이 있는 구릉지 토양을 말한다. 소재지를 살펴보면 연주는 현 산동성 서부에 해당하는데 구릉지가 많은 길은 갈색의 토양이다; 유독 《우공》에서 연주를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높게 자란다’라고 했는데 당시엔 수풀이 길고 나무가 무성하며 토양 중에는 부식층이 많은 까만 색의 흙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고대에는 회색산림토를 흑분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 8) 요(繇), 《설문》: “수풀이 무성한 모습이다(草盛貌).” 마옹, “씩이 돌음이다(抽也).” 이는 밭아를 의미한다.
- 9) 조(條)는 키가 높이 자라다(長).
- 10) 중하(中下)는 제6등급. “궐부정(厥賦貞)”은 《공전(孔傳)》에 “경작지는 6등급이다. 정(貞)은 정(正)의 의미로서 (치수 순서로 볼 때 연주는) 아홉 번째 주로서 부정(賦正)은 9등급에 해당한다.”라고 하였고, 공영달의 《상서정의》에는 “이 연주의 치수가 맨 마지막(아홉 번째)에 완료된 까닭에 그 부세 역시 9등급이다.”라고 했지만 이 설은 부정확하다. 김리상(金履祥)의 《상서표주(尙書表注)》를 참고하면 貞은 본래 下下로서 篆文이 중첩(重文)된 것이다. 다만 글자 下는 그 전문의 형태가 ‘二’다. 연주의 부세는 下下인데 옛 전문(篆文)으로 下를 二로 쓰다 보니 흑자가 (이 중첩된 下자 두 개를) 正자로 잘못 기재하여 드디어는 正자가 貞자로 바뀐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설을 따른다.¹⁴
- 11) 작(作)은 경작하다.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의미. 채침 《서집전》: “연주는 황하 하류의 (물길이) 충돌

¹² 신수치(辛樹幟), “《우공》의 ‘桑土’와 형주에서 언급된 ‘雲土’, 이 두 개의 토자는 마치 옹주의 ‘원습(原隰)’처럼 지형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¹³ 《說文》: “고지대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土之高也, 非人之所爲也).” 고희강은 《釋丘》의 문장에서 《左傳》에 나오는 11개 국가의 丘의 다소를 통계낸 후, “丘라는 글자는 水害와 관련이 깊다. (……) 구에 거주하던 사람들만이 수해를 피할 수 있었다. (……) 황하와 제수의 사이는 좁고 수 많은 갈래의 하천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 (……) 수해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곳(하계지간)에 구가 많은 까닭이다.”

¹⁴ 貞자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많다. “貞, 正也.”라 하는데 그 이유로 《공전》은 “연주가 아홉번째 치수가 된 주이므로 부세 역시 아홉번째 등급이어야 맞다(貞, 正也. 州第九, 賦正與九相當).”이라 하고 소식(蘇軾)은 “부세는 경작지의 좋고 나쁨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것이 곧 부세의 바름이다. (……) 연주의 경작지는 6등급이니 부세 역시 6등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이라 말한 것이다(貞正也. 賦隨田高下, 此其正也. (……) 此州田中下, 賦亦中下, 田賦皆第六, 故曰貞.” 이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으나 김리상의 설명이 가장 채택할만 하다. 그 이유는 ①《우공》의 각 주 부세 조목 아래에는 해당되는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체제로 연주만 예외가 될 수 없다. ②9주의 토지 등급에 모두 아홉 등급이 있는데 본문 중에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 유독 9등급이 없다. 그러므로 연주가 이에 해당한다. ③貞자는 이 문맥에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확히 오자이다. ④김리상이 제시한 ‘貞’은 곧 ‘下下’의 오기라는 주장은 당시의 금석학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⑤근대의 금석문 상식으로 충분히 김리상의 설을 증명할 수 있다. 顧頡剛·劉起鈞, 《尙書校釋譯論》, 중화서국, pp. 563~565.

하는 곳에 위치하여 물결이 거세고 여울이 사납다. 지형이 평평하고 토지가 트여 있어서 수해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 이제 수해가 물러가고 안정되었으나 토지가 낮고 습한 것이 갯벌 같아서 완전히 피해가 물러간 것은 아니다. 토지는 넓고 사람은 적으며 먹고 살 길은 적으니 수해가 물러가고도 13여년이 지나서야 부세를 다른 주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일설에는 13년이란 우가 치수에 들인 헛수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위 아래 문장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¹⁵.

12) 칠사(漆絲). 위나라 땅의 특산물.

13) 비(篚), 둥그런 모양의 대나무 바구니. 직문(織文), 각종 화려한 무늬가 수 놓아진 염색된 비단.

14) 부(浮)는 달(達)¹⁶. 《공전》: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부(浮)라 하고, 하천을 통해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달(達)이라 한다.” 채침, “배를 타고 물을 따라 가는 것을 부(浮)라 한다.” 한 갈래의 하천으로부터 다시 다른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달(達)이라 한다. **탐수(溲水)**. 고대 황하의 지류로 그 옛 물길은 **황하 북쪽의 하남성 준현(浚縣) 숙서구(宿胥口)**로부터 동북쪽으로 흘러가 산동에 도달한다. 지금의 빈주(濱州)와 리진(利津) 부근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지금의 대청하(大清河)는 고대의 탐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물길**이었고, **지금의 소청하(小清河)는 고대의 제수(濟水)가 바다로 들어가는 물길**이다. 옛 제수와 탐수 양 하천은 서로 통하였다. 이에 호위가 《우공추지》에서 “현재의 지형으로 말하자면 준현(浚縣)·골현(滑縣)·개주(開州)·청풍(淸豐)·관성(觀城)·복주(濮州)·범현(范縣)·조성(朝城)·신현(莘縣)·당읍(堂邑)·료성(聊城)·청평(淸平)·박평(博平)·우성(禹城)·임읍(臨邑)·제양(濟陽)·장구(章丘)·추평(鄒平)·제동(齊東)·청성(淸城)·고원(高苑) 등의 제 주현의 경계는 옛 탐수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송나라 때부터 황하의 물길이 넘쳐 흘러 제멋대로 되었고, 조성 지방에서의 흐름이 끊겨 옛 물길의 흔적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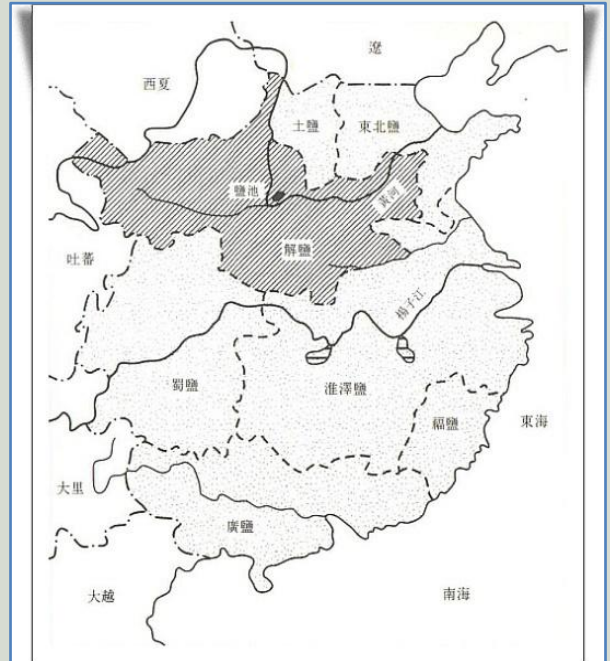
¹⁵ 宋 임지기(林之奇), 《전해(全解)》: “많은 주석가들이 13년이라는 숫자를 우가 치수사업을 한 헛수라고 하지만 (… …) 이것은 위의 ‘厥賦貞’이라는 문장을 이은 것으로 (… …) (13이라는 수는) 오로지 연주의 부세에 국한해서 말한 것이다. 연주의 부세는 1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타 다른 주와 동일하게 된 것으로 연주의 치수가 13년이 지나서야 완료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문장의 기세로 봤을 때 ‘桑土既蠶是降丘宅土’의 아래에 위치해서는 서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1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까닭은 대체로 여러 문헌에서 우의 치수사업이 8년이라고 한 것과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胡謂, 《禹貢錙指》: “《우공》에서 ‘作’을 언급한 것이 모두 네 번이다. 기주의 ‘大陸既作’; 청주의 ‘萊夷作牧’; 형주의 ‘雲夢土作乂’; 그리고 여기 ‘作十有三載乃同’이다. 나머지 세 개주의 ‘작’은 모두 경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만 치수를 의미하겠는가?”

¹⁶ 《孔傳》: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부라하고, 하천에서 하천으로 통하여 들어가는 것을 달이라 한다(順流曰浮; 因水入水曰達).” 안사고(顔師古), 《한서·지리지》: “부란 배를 이용하여 건너는 것(浮, 以舟渡也).” 배로 물을 건너는 것을 부(浮)라 해석한 것이 근접하다. 왜냐하면 제수로부터 탐수로 그리고 황하로 들어가는 물길은 순류(順流)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중국의 소금염지>

산 시성 서남부 원청분지의 해지라고도 부르는 하동 염지 즉 소금호수는 황하 중류와 회하 유역의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의 주요 소금 공급처였다.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하동의 염지가 초기 국가의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동염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명대의 기록에 남아 있는 동쪽의 염지, 즉 동지로 길이가 대략 25km, 너비는 3.5km에 달했다. ②북위(386~534) 시대의 저작인 《수경주》에 따르면 서지도 있었는데 길이가 약 12.5km, 너비가 약 10km 정도였다. ③서쪽 염지 근처에 소규모 염지 여섯 군데가 더 있었다. 이들 중 동지가 주요 소금 생산지였는데 소금의 근원인 염수는 주로 동지의 동서를 관통하는 흑하로부터 왔다. 염지는 주로 분지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지속적인 홍수 위협에 시달렸다. 따라서 옛날부터 홍수를 막기 위해 염지 주위에 흙을 다져서 항토담을 반복적으로 쌓았고, 홍수가 염지를 피해갈 수 있도록 수로들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청 건륭 22년 즉 1755년 홍수에 쓸려온 사토에 흑하가 막힌 이래로 샘을 파야만 염수를 얻을 수 있었다. 선사시대와 고대의 염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상당히 변화가 심했을 것이다. 염지의 일부분이 홍수에 쓸려온 사토로 평지가 되어버렸을 것을 고려하면 당시의 염지는 현재보다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크다. 염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의 지하 12m에서 발견된 염지의 산물이었던 초석층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pp.61~63. 혹 고대 황하에 대한 치수사업의 직접적인 동기는 염지 보호를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海岱惟青州：嶠夷既略，濰·淄其道。厥土白墳，海濱廣斥。厥田惟上下，厥賦中上。厥貢鹽絺，海物惟錯，岱畎絲枲，鈐松怪石。萊夷作牧。厥篚檿·絲。浮于汶，達于濟。

발해와 태산의 사이 지역을 청주(靑州)라 한다. 우이 지역의 정비를 잘 마무리 지은 후에 유수와 치수의 물길을 소통시켰다. 청주의 토질은 잿빛이고 바닷가의 광대한 지역이 소금기를 머금고 있다. 청주의 경작지는 3 등급이고 부세는 4 등급이다. 청주의 공물로는 소금, 가는 갈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이 있다. 태산의 계곡 지역엔 생사·대마·주석·소나무 그리고 기이한 돌들이 있다. 래이 지역은 가축을 방목하였다. 산뿔나무로 누에를 쳐 얻은 생사를 둥근 대바구니에 담아 올렸다. 공물은 문수로부터 바로 제수로 옮겼다.

[주석]

- 1) 해(海)는 발해(渤海). 대(岱)는 태산(泰山). 태와 대는 고음이 서로 가깝다. 대종(岱宗), 혹은 동악(東岳)이라 한다. 청주(靑州)는 우공구주의 하나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행가설에 의하면 동쪽을 상징하는 색은 청색이다. 그래서 청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지역은 현재의 산둥성 중부와 동부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멀리 요녕성의 동부까지 아우른다. 남쪽으로는 태산과 서주의 경계까지이다. 략(略)은 《廣雅·釋詁》, “다스리다(治)”¹⁷
- 2) 우이(嶠夷). 동방 바닷가 지역에 사는 이족.
- 3) 유(濰)는 회수(淮水). 《한서·지리지》: “[랑야군(瑯琊郡) 기(箕)] 《우공》에 언급된 유수는 북쪽으로 도창(道昌)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 경로에 세 군을 지나치며 거리는 520리이다.” 유수는 산둥성 거현(莒縣) 동북쪽에 있는 유산(濰山)에서 발원하여 땅 밑으로 흐르다가 기옥산(箕屋山)에 이르러 다시 지표로 나온 후, 제성(諸城)·고밀(高密)·안구(安丘)·유현(濰縣)·창읍(昌邑)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치수(淄水). 산둥성 래무현(萊蕪縣) 동북쪽, 박산(博山)의 서쪽 25리에 있는 원산(原山) 북쪽(北麓)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박산(博山)·익도(益都)·임치(臨淄)·광요(廣饒)·수광(壽光)을 지나 청수박(淸水泊)으로 들어가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여 소청하(小清河)와 합류한다. 그 지류가 양각구(羊角溝)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 4) 백분(白墳), 잿빛 토양. 신수치의 《우공신해》에 보면 “청주는 현재의 산둥반도인데 그 곳은 구릉지가 많고 갈색의 토양이다. 고대에 삼림이 무성했는데 연해의 습기가 비교적 많은 관계로 부식층이 쌓여 있다. 산성을 띠는 잿빛 토양을 형성한다. 혹자는 이를 백양(白壤)이라고도 한다.”
- 5) 척(斥), 염분이 많은 땅. 광척은 광대한 염지¹⁸. ‘해빈광척(海濱廣斥)’에 대해 공영달은 “《설문》에

¹⁷ 林之奇는 《全解》에서 략(略)을 강역의 경계를 확정지음으로 주석. 그러므로 ‘嶠夷既略’은 청주 경내의 우이들을 위해 강역을 정하여 그들이 편하게 거주하도록 했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¹⁸ 정현의 《주례》 주석에 “동서를 광이라 하고 남북을 룬이라 한다(東西曰廣, 南北曰輪).” 胡胃, 《禹貢錙指》: “기주와 연주 모두 발해를 연하고 있고 (……) 서주와 양주 모두 황해에 면해 있는데 (……) 왜 유독 청주에서만 ‘海濱廣斥’이란 말을 했을까? 이는 다른 주의 염지는 다만 연해 일대이거나 기주 연주 서주는 각각 수백리에 지나지 않고 양주는 우의 흔적을 봤을 때 직접 미친 곳이 겨우 천여리에 지나지 않지만 동래(산둥반도)의 땅은 대해로 쪽 뻗어 있어서 한 면의 길이가 8,9백리요 삼면을 다 합하면 최소 2천리가 넘는다. (……) 청주의 넓은 염지가 백성의 이

‘로(鹵)는 염분을 머금은 땅이다. 동쪽에서는 이를 척(斥)이라 하고, 서쪽지방에서는 로(鹵)라고 부른다(鹵, 鹹地也. 東方謂之斥, 西方謂之鹵).’ 바닷가는 매우 광활하고 그 땅은 모두 염분이 있다. 이런 까닭에 광척이라 말한 것이다. 이것은 수해가 제거되자 바닷가 염지가 원래의 성분을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바닷가 일대에는 큰 면적의 염지가 있다.

- 6) 염(鹽), 천일염. 청주는 지금의 산동성 연해로 해염이 풍부하다. 치(絺). 《설문》: “가는 갈포(細葛布).” 얇은 모시류인데 지금의 태안(泰安), 래무(萊蕪) 일대는 여전히 대량으로 마(麻)를 생산하고 있다.
- 7) 해물은 식용의 물고기. 착(錯)은 착잡(錯雜)으로 종류가 다양함을 의미¹⁹.
- 8) 대견(岱畎)은 태산 일대의 계곡이다. 견(畎)²⁰은 《공전》: “계곡이다.” 시(稔), 마의 일종으로 섬유로 마포의 원료가 된다.
- 9) 연(鉛), 《설문》: “주석이다(靑金也).” 청백색을 띠며 흑석(黑錫; 검은 주석)이라고도 한다. 고대에는 胡粉(白堊; 광물의 일종), 丹黃(유황) 모두 주석으로 만들었다. 회화와 진흙 따위를 회반죽 하는데 공급한다. 오늘날의 산동성의 안구(安丘)·문등(文登)·교현(膠縣) 일대는 연과 은의 대량 생산지이다. 괴석(怪石)은 모양이 기이한 돌이다.
- 10) 래(萊), 방국(邦國)의 이름. 동방의 이족이 세운 나라로 지금의 산동반도가 활동무대였으나 춘추시대에 제나라에게 멸망 당한 후 래인(萊人)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작목(作牧)은 가축을 방목함. 채침, “방목을 했다는 것은 이인들이 가축 기르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는 것이다.” 호위(胡渭) 역시 “농사를 짓는 이는 매우 적었는데 제나라 땅은 바다를 끼고 있어 소금기가 많고 옅이 적다. 하물며 래인이야.” 경작지가 자급자족하기에 부족했으므로 가축을 길러 먹고사는 길을 두터이 했다.”
- 11) 엄(槩), 산뽕나무로 곧 작수(柞樹). 작잠(柞蠶)과 상잠(桑蠶)은 서로 비슷한데 (누에의) 색은 황갈색이고 (뽕아넌) 생사는 갈색이다. 옛 사람들은 산뽕나무로 만든 생사를 금슬(악기)의 현으로 사용했는데 탄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산동성 창읍(昌邑)과 유방(濰坊) 일대에서 산출되는데 이곳은 바로 래인(萊人)의 취락지였다²¹.
- 12) **문수(汶水)**. 《한서·지리지》는 “태산군(泰山郡) 래무(萊蕪): 《우공》에 언급된 문수(汶水)는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洸水(濟水)로 들어간다.” 고 했는데 《수경·문수주》에 근거하여 보면, **문수가 제수(濟水)로 들어가는 옛 길은 산동성 래무현(萊蕪縣)으로부터 태안(泰安)·비성(肥城)·녕양(寧陽)을 지나 동**

로움에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므로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¹⁹ 또 다른 유력한 해석으로 ‘착(錯)’은 옥을 곱게 가는 돌. 임지기는 《전해》에서 해물이 어차피 어떤 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한 종류가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무슨 까닭으로 ‘유착(惟錯)’이란 두 글자를 덧붙이겠는가? 내가 보건대 ‘鹽絺海物惟錯’과 양주의 ‘鹵草羽毛惟木’의 文勢가 아주 똑같다. 양주의 ‘목(木)’이 별도의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므로 여기의 ‘착(錯)’도 하나의 사물을 가리켜야 맞다고 주장한다.

²⁰ 견(畎)의 최초의 뜻은 작은 도랑(小溝)이다. 두 산 사이의 도랑을 옛날에 谷이라 불렀다. 《설문》: “___, 水小流也. (……) 畎, 古文 ___, 從田從川. 畎, 篆文, 從田犬聲.”

²¹ 모정(牟庭), 《동문상서(同文尙書)》: “《우공》에서는 오직 실을 짜 완성된 직물만을 비(筐)에 담았고 다른 (미완성품) 물품은 비에 담지 않았다. 예를들면 연주의 직문(織文), 서주의 현직호(玄織縞), 양주의 직패(織貝), 형주의 현훈기조(玄纁機組) 그리고 예주의 직광(織纒) 등은 모두 비에 담았다. 반면 연주의 치사지(絺絲紬), 예주의 시치저(紬絲紵) 등은 모두 비에 담지 않았으니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예이다. (……) 《공전》: ‘산뽕나무로 친 누에실은 금과 슬의 현으로 알맞다(槩桑蠶絲, 申琴瑟弦)’ 라 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평(東平)에 도달해서야 제수(濟水)로 들어간다. 또한 《우공》에서 말한 문수가 제수로 들어가는 옛 물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문수의 본류(正流)는 대문하(大汶河)며 운하(運河)로 들어간다. 《우공》에서 보이는 공물의 이동경로는 문수에서 제수에 도달하고 다시 탐수로 들어가 황하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의 왕세순(王世舜)은 《상서역주》에서 “《한서·지리지》에 근거하여 보면 문수는 태산 래무현 원산(原山)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제수(泲水)로 들어가는데 제수(泲水)가 곧 제수(濟水)이다. 이는 곧 문수의 남쪽에도 제수 한 지류(一條)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둥성 운성현(運城縣)의 저수(沮水)가 옛날에는 濟水로도 불렸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저수가 바로 문수의 남쪽에 위치하니 문수가 제수로 들어갔다는 구절에서의 제수는 아마도 저수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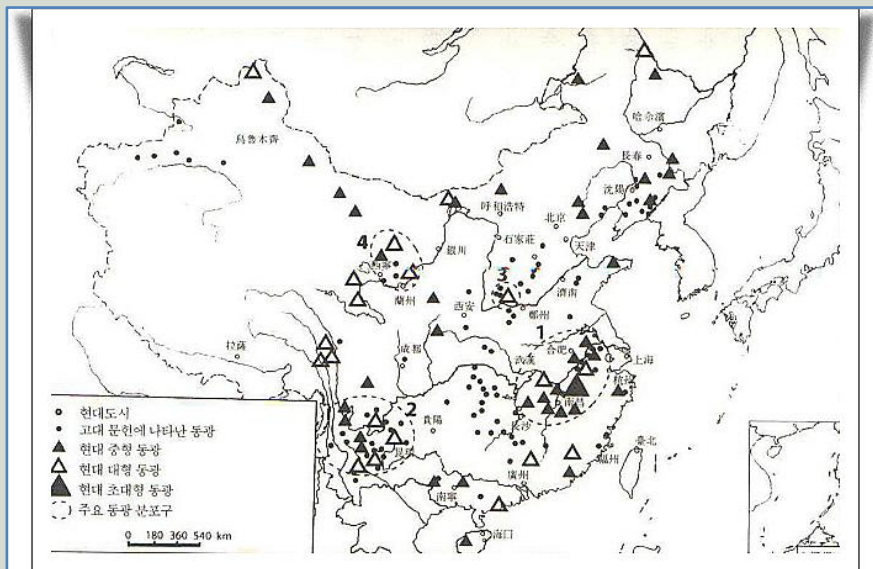
〈참조: 지질학 분석을 통해 본 중국 동광의 분포〉

현

대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동광은 중국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주요 네 지역이 전체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강 중하류 지구, 운남성 고원의 동천과 역문, 산서성 서

남부 즉 진남의 중조

산맥 지구, 감숙성의 금천과 백은 지구 등이다. 본문의 양주는 양자강 중하류를 포함하며 금삼 품은 곧 세 가지 동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주석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양자강 이남으로 북중국 은 주석이 결핍된 지역이다. 얼리터우와 상 시기의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 납을 포함한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기의 청동 용기는 규모와 무게, 수량 등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원의 장악력뿐만 아니라 구리와 주석 아연의 공급이 갈수록 확대되었음을 암시한다. pp. 52~53.



海岱及淮惟徐州：淮·沂其乂，蒙羽其藝，大野既豬，東原底平。厥土赤埴墳，草木漸包。厥田惟上中，厥賦中中。厥貢惟土五色，羽畎夏翟，嶧陽孤桐，泗濱浮磬，淮夷蠙珠暨魚，厥篚玄纁織。浮于淮·泗，達于河。

바다와 태산의 남쪽으로 회하에 이르는 지역을 서주(徐州)라 한다. 회화와 기수의 치수를 마무리 짓자 몽산과 우산 일대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대야택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물길이 모여 들게되니 동평지역의 수해가 제거되었다. 서주의 토질은 갈색의 점토이고 초목이 점차 자라나 무성하게 되었다. 서주의 경작지는 2 등급이고 부세는 5 등급이다. 서주의 공물로는 오색토와 우산 계곡 지역에서 나는 긴꼬리 야생꿩, 역산의 남쪽에서 자라나는 특산물인 오동나무, 사수의 물가에서 구할 수 있는 경의 석재로 그리고 회이 지역에서 나는 진주조개와 물고기 등이 있다. 여기에 검은색 고운 비단과 백색 고운 비단을 둥근 대 바구니에 담아 올린다. 공물은 회수에서 싣고 사수를 경유하여 황하에 도달한다.

[주석]

- 1) 회(淮)는 회하(淮河). 고대 4개의 큰 하천 중의 하나인 회하(淮河)를 가리킴. **하남성 동백(桐柏)현에서 발원하여** 하남·안휘·강소성을 지나 홍택호(洪澤湖)로 들어가서 황해로 나간다. 서주(徐州)는 구주의 하나. 《이아(爾雅)·석지(釋地)》에 “제(齊)의 동쪽을 서주라 한다”고 했고, 《석명(釋名)》엔 “서주(徐州)의 서(徐)자는 늦추다(舒)의 뜻으로 지역 토양의 기가 완만하고 온화하다”라고 한다. 《여씨춘추·유시람(有始覽)》을 보면 “사상(泗上)을 서주라 하는데 노나라 땅이다.” 서주는 옛날 회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고국이 많았는데 춘추 당시에 현재의 안휘성 사현(泗縣)에 해당하는 곳에 서국(徐國)이 있었다. 서주의 북쪽은 태산과 경계를 이루어 청주와 서로 인접해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회수, 양주와 경계를 이루었다. 서북쪽으로는 연주와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주와 인접했다. 서주는 현재의 산둥성 남부, 강소성, 안휘성의 북부 지역이다.
- 2) 기(沂)는 기수(沂水). **하천으로 현 산둥성 기수(沂水)현 북쪽에서 발원한다.** 예(乂)는 다스리다(治).
- 3) 몽(蒙)은 **몽산으로 몽양산(蒙陽山)이라고도 한다. 산둥성 몽양(夢陽)현 서남쪽에 위치.** 우(羽)는 **우산(羽山). 현 강소성 감수현 서남쪽에 자리한다.** 일설에 이 곳을 순이 곤(鯁)을 죽인 그 우산으로 여기나 잘못된 것이다. 예(艺), 공영달의 소, “《시》에 ‘들깨와 콩을 심으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예(艺)란 파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땅을 갈고 파종하는 것을 말함이다.”
- 4) **대야(大野)²².** 거야현(巨野縣)으로 **현 산둥성 거야현** 경내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 “대야택(大野澤)은 거야현(巨野縣) 동쪽 5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남북으로 삼 백리, 동서로 백 여리다.”라 한다. 원래의 지세는 낮고 웅덩이가 있었는데 물이 점점 늘어나 호수가 되었다. 이 곳은 고대의 유명한 호수였지만 후에 황하의 범람으로 인해 토사가 쌓여감에 물이 말랐다. 저(豬)²³는 저(瀦)와 같다. 마융,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깊은 곳을 저(豬)라 한다.”

²² 《설문·里部》：“壘，古文野。”

²³ 《설문·水部》：“瀦，水所停也，從水，豬聲。”

- 5) **동원(東原)**. 정현, “(동원)은 지명으로 동평군(東平郡)이 곧 동원이다.” **현 산동성 태안(泰安)과 동평(東平)일대**이다. 지(底)는 치(致)로 이곳의 수해가 이미 사라졌음을 가리킨다. 평(平)은 평지(平地). 지평(底平)은 공손달에 의하면 “치수(水理) 공사가 완료되어 땅이 고르게 되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됨을 말한다.”
- 6) 식(埴), 점토. 《莊子·마제(馬蹄)》: “나는 점토를 잘 만든다(我善治埴).” 《석문(釋文)》은 사마표(司馬彪)의 주석을 인용하여, “점토(埴土)로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공전》: “흙에 찰기가 있는 것을 식(埴)이라 한다.” 적식분(赤埴墳)이란 곧 갈색의 토양을 가리킨다. 신수치(辛樹讖), “서주는 지금의 강소성 북부와 안휘성(皖) 그리고 산동성 지역으로 구릉지가 모두 제4기 홍적홍색점토(洪積紅色粘土) 층의 갈색 토양인데 이를 적식분이라고 부른 것이다.”
- 7) 점포(漸包), 채침, “점(漸)은 점차 자라나는 것, 포(苞)는 초목이 무리지어 자라는 것이다. 포(苞)와 포(包)는 가깝다.” 초목이 부단히 무성해지고 서로 뒤섞여 무리 지어 자람을 가리키는 말.
- 8) 토오색(土五色)은 청·홍·백·흑·황 이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색의 토양을 말함. 공안국, “왕은 오색의 흙으로 사(社)를 세운다. 제후를 봉할 때 그를 봉하는 지역의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의 흙을 떼어 주고 그 흙으로 제후국의 사(社)를 세우도록 한다.” 《일주서(逸周書)·작락해(作雒解)》: “제후는 주나라에게서 명을 받아 대사(大社)를 (봉함을 받은) 국중(國中)에 세운다. 단의 동쪽은 청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흰색, 북쪽은 흑색 그리고 중앙은 황토로 덮는다. (왕이) 장차 제후를 세울 적에 그 중 한 방면[제후가 봉해지는 방향]의 흙을 파서 (제후를) 봉한다.” 《사기·정의》에서 《태강지기(太康地記)》를 인용하기를, “성양(城陽) 고막(姑幕)에 오색토가 있는데 제후를 봉할 때 그 흙을 띠풀로 싸서 내린다. 제후국의 社를 세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흙이 바로 《우공》에서 언급하는 서주의 흙이다.²⁴” 오색토는 지금의 강소성 동산(銅山)과 산동성 제성(諸城) 일대에서 산출된다.
- 9) 우(羽)는 우산(羽山). 앞 참조. 견(畎)은 계곡. 하적(夏翟)²⁵은 다섯가지 빛깔의 깃털을 가졌다. 오색을 하(夏)라 한다. 산꿩 중 꼬리깃털이 긴 것을 적(翟)이라 부르는데 옛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장식으로 흑은 깃발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 일설에는 하(夏)를 크다(大)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즉 큰 꿩. 또는 하는 지명으로 장강과 회수 사이의 어떤 지역을 가리킨다고도 한다.
- 10) **봉양(峰陽)**은 산 이름. 《한서·지리지》, “동해군(東海郡) 하비현(下邳縣). 갈봉산(葛峰山)이 서쪽에 있는데 고문에서는 이 산을 봉양이라고 적었다.” 이 곳은 **현재 강소성 비현(邳縣)의 서남쪽 80리** 정

²⁴ 《사기·삼왕세가(三王世家)》에 제왕(齊王)을 책봉하면서 “이 청토[동쪽]를 받으라(受茲靑土).” 연왕(燕王)을 세우면서 “이 흑토[북쪽]를 받으라(受茲玄土).” 광릉왕을 세우면서 “이 적토[남쪽]를 받으라(受茲赤土).” 라는 기사가 있다. 또한 《한서·郊祀志》: “서주 목이 오색토 각 1두씩을 세공으로 바쳤다(徐州牧歲貢五色土各一斗).”

²⁵ 《사기·夏本紀》와 《한서·地理志》는 ‘적(翟)’을 ‘적(狄)’으로 쓰고 있는데 고대에 두 글자는 서로 가차했다. 예를 들면, 《춘추》傳의 ‘적인(翟人)’은 ‘적(翟)’으로 ‘(적)狄’을 가차한 것이고, 반대로 《毛詩》의 ‘右手秉翟’을 《한시》에서는 ‘병적(秉狄)’이라고 가차하고 있다. 하적은 본래 우산에서 서식하는 오색 꼬리털을 지닌 꿩을 말하지 만 이 꿩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새의 깃털을 오색으로 물들여 깃발이나 모자에 꽂아 무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하적이라 부른다. 《夏采》정현 주, “《우공》엔 서주에서 하적의 깃털을 공물로 올리지만 (……) 후세에 혹 그 꿩이 없을 경우 다른 새의 깃털을 물들여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했다.” 顧頡剛·劉起鈞, 《尚書校釋譯論》, 중화서국, p. 610.

도 떨어져 있는데 비봉(邳峰) 혹은 봉양(峰陽)이라고 하고 속칭 거산(距山)이라고도 한다. 이 곳에서 나는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이 최고급 품이다. 고동(孤桐)이란 오동나무 중에서 특히 뛰어난 것으로 얻기 힘든 것을 고동이라 불렀다.

- 11) 사(泗)는 사수(泗水). 현 산둥성 사수현(泗水縣) 동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배미산(陪尾山)에서 발원하는데 4곳의 원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사수라 이름한다. 사수가 회수로 합류하는 옛 길에 예전에는 남청하(南清河)라고 불렀는데 금(金), 원(元) 이래로 황하에 침탈되어 현재의 사수는 옛 사수의 상류에 해당한다. 《공전》: “사빈(泗濱)은 (사수의) 물가; (바닥의 땅에 고착되지 않고) 물 위로 보이는 돌은 경석으로 쓸만 했다.” 공영달은 이에 대해 “물가에 있는 돌, 물 위에 뜨는 돌로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이런 돌로 경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돌을 부경(浮磬)이라고 한다.”²⁶
- 12) 회이(淮夷)는 회수유역에 살던 이인. 갑골문에는 추이(隹夷)라고 쓰고 있다. 빈주(蠙珠)는 진주. 공손달, “빈(蠙)은 어떤 특정한 조개의 이름으로 이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蠙자가 진주의 이름이 된 것이다. 진주와 물고기 모두 수산물이다.”
- 13) 궤비현섬호(厥篚玄纁縞). 《공전》: “현은 검은 비단. 호는 흰 비단. 섬은 가늘다의 의미. 섬자가 가운데에 김으로써 두 가지 물품(현과 호)이 모두 가늘고 고운 비단임을 명확히 한 것.”
- 14) 달우하(達于河): 김리상(金履祥)의 설명을 보면, “《고문상서》에는 ‘達于荷’ 라고 되어 있다. 《설문》에서도 《상서》를 인용할 때 역시 하(荷)라고 적었다. 이것을 속본에서 河라고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다.²⁷ 하택(荷澤)과 제수(濟水)는 서로 통하고 서주에서는 회수에 실어 사수로 향했고 사수에서 다시 하택으로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서》에서 언급한 ‘하(河=荷)’에 도달한다’는 것은 곧 제수에 도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호위(胡渭)는 《상서추지(尙書雒指)》에서 “현재의 지형으로 볼 때 사수는 사수현(泗水縣)에서 발원하여 곡부(曲阜)·자양(滋陽)·제녕(濟寧)·추현(鄒縣)·어대(魚臺)·등현(滕縣)·패현(沛縣)·서주(徐州)·비주(邳州)·숙천(宿遷)·도원(桃源) 등을 지나 청하현(清河縣)에 이르러서 회수로 들어간다. 이 것이 우의 자취이다.” 서주의 회에서 비롯하여 사수로 향하고, 사수로부터 하로 향하니 제수를 지나 황하에 도달했다는 우의 공물이동로(貢道)는 바로 이것을 말한다.

²⁶ 임지기(林之奇), 《전해(全解)》: “(물에 뜨는 혹은 뜨는 듯이 보이는 돌을 경이라 한다는 이러한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돌이란 것이 원래 물에 뜨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돌의 이러한 성질을) 따라서 그런 설명을 한 것이다. 요컨대 물 위에 반드시 떠야만 ‘浮’라고 할 필요는 없다. 경석으로 악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돌의 가장 가벼운 것을 취하여 만들어야 그 소리가 맑고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다만 가볍기 때문에 ‘浮’라 한 것이다. 본문에서 ‘浮石’이라하지 않고 ‘浮磬’이라 한 까닭은 증민(曾旻)이 ‘경(악기)을 다 만든 후에 공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빈부경’의 소재지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수경·사수주(泗水注)》인데 “동남쪽으로 여현(呂縣)의 남쪽을 지나면 (……) 晉《太康地記》에서 말한 ‘경석을 물에서 구할 수 있는데 《우공》에서 언급한 ‘사빈부경’이 바로 이것이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선진시대의 여러 통치자들의 분묘에서 편경이 발견되는데 사용된 경석은 중후하고 치밀하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맑고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돌이 물에 뜰 정도로 가벼워야만 편경을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량생산된 형식의 (발굴된) 편경을 고려하면 선진시대의 통치자들의 경석에 대한 수요가 아주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경석이 특산물 형태의 공물로 바쳐진 까닭이며 이는 당대까지 지속된다. 顧頡剛·劉起鈞, 《尙書校釋譯論》, 중화서국, pp. 612-617.

²⁷ 《설문·水部》에서 ‘하(荷)’자의 설명에 《禹貢》을 인용하며 ‘達于荷.’ 《수경·濟水注》에서 ‘東入于泗水’ 아래에 《우공》을 언급하면서 ‘達于荷’라고 쓰고 있다. 그러므로 서주의 공도는 회수로부터 사수가 통하고, 사수가 하수(河水)에 통하고, 荷水가 제수와 통하며 제수가 황하에 통한다. 탐수 역시 황하에 통한다. 하수는 금·원 양대에 황하가 넘쳐흘러 없어졌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624.

<참고: 고대 중국의 수로와 천연자원 분포>

濟

水는 현재 물길이 없다. 그림에서의 제수는 옛 제수의 물길을 복원한 것. 수운은 중국 고대의 중요한 교통수단. 후난성 청터 우산과 저장성 허무두에서

B.C.5000에서 3000년에 이르는 시기의 목재 노와 키가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 남 중국에서 배가 이미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주요 하천은 중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장강 중하류와 북쪽의 핵심지구를 잇는 최소한 세 군데 주요 교통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편의 상 중로, 동로, 서로라고 부른다.



- ① 중로: 핵심 교통요지는 繁湯(현 하남성 繁陽). 동주시기의 증백기보(曾伯 卣) 명문에 주가 양자강 하류의 회하 유역에서 청동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이른바 금도석행 즉 구리와 주석의 루트를 개통했음을 언급. 동주초기(약B.C.740)의 晉姜鼎 명문에는 산시성 남부의 진나라가 수레 1000량 분량의 소금을 동과 교환하기 위해 번탕으로 보낸 사실이 언급. 이를 근거로 보면 현 하남성 변양지방은 양자강 유역의 청동원료의 집산지.
- ② 동로와 서로: 《尙書·禹貢》에 의거한 것으로 중원에 금속을 공급한 지역은 각각 양자강 중류와 하류에 위치한 형주와 양주로 전해진다. 이 두 지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동서 양 방향의 청동 루트가 형성. 동로는 양자강과 화이하, 쓰하를 통과하고 허저와 지수, 황하를 거쳐 도읍으로 서로는 형주에서 양자강과 한강, 단강, 뤼하, 황하를 거쳐 도읍에 도달. 서로는 한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수와 그 지류인 바이하를 경유하여 허난성의 난양분지에 다다를 수 있었고, 야하를 따라 북으로 루량관을 거쳐 푸니우산의 분수령을 가로질러 샤하의 수로를 따라 루산과 린루에 이른 후 최종적으로 이뤘분지에 도달. 난양 분지와 샤하 유역에서는 많은 상 유적지가 발견되어 이 루트가 상 시대에 이미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pp.67~70.

淮海惟揚州：彭蠡既豬，陽鳥攸居。三江既入，震澤底定。篠簜既敷，厥草惟夭，厥木惟喬。厥上惟塗泥，厥田惟下下，厥賦下上錯。厥貢惟金三品，瑤·琨·篠·簜·齒·革·羽·毛·惟木，島夷卉服。厥篚織貝，厥包橘柚，錫貢。沿于江海，達于淮·泗。

회화와 황해 일대를 양주(揚州)라 한다. 팽려택으로 이미 허다한 갈래의 물길이 모여 들었고, 겨울철엔 북쪽에서 철새들이 날아들어 서식했다. 장강 하류의 물길들은 바다로 흘러가고 진택의 수리공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처에서 크고 작은 대나무들이 자라나고 초목이 무성하게 되었으며 수목 또한 키가 높이 자랐다. 양주의 토질은 습기가 많은 진흙이고 경작지는 9 등급이며 부세는 7 등급에 속한다. 양주의 공물로는 황동·청동·홍동, 아름다운 옥·아름다운 돌·크고 작은 대나무·상아·짐승의 가죽 그리고 새의 깃털과 목재가 있다. 바닷가에 사는 이인들은 풀로 짠 옷과 모자 신발을 신었다. 동근 대 바구니엔 면직품을 담아 바쳤으며 굴·유자 등은 따로이 명을 기다려 공물로 올렸다. 공물을 실은 배는 장강으로부터 황해 연안을 따라 회화와 사수로 옮겨졌다.

[주석]

- 1) 양주(揚州). 구주의 하나. 《여씨춘추》: “동남지역을 양주라 하는데 월나라 땅이다.” 양(揚)은 월(越)음이 변한 것이다. 양주의 동남쪽은 황해에 걸쳐있고 서쪽으로는 한수(漢水), 형주(荊州)와 경계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회수에 걸쳐있고 예주와 서주로 경계를 나눈다. 양주지역은 현재의 절강성, 강서성, 복건성 전체와 강소성, 안휘성 그리고 하남의 남부, 호북성의 동부, 광둥성의 북부를 아우른다. 춘추시대에 양주는 오, 월 등의 여러 나라가 자리잡고 있었다.
- 2) 팽려(彭蠡). 호수 이름. 많은 주석가들은 이 팽려를 지금의 장강 남쪽에 있는 파양호(鄱陽湖)로 여겼으나 이는 잘못이다. 《한서·지리지》: “[예장군(豫章郡) 팽택(彭澤)]: 《우공》에서 언급한 팽려택(彭蠡澤)이 그 서쪽에 있다.” 팽려로 흘러들어 오는 물길은 아홉 갈래의 물길인데 이 많은 물길이 팽려로 모여든다. 이런 까닭에 ‘기저(既豬)’라고 한 것이다. [앞에서 마음은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깊은 곳을 저(豬)라 했다.] 그러나 한편 《우공》에는 “한수가 (……) 동쪽으로 휘돌아(滙) 저수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팽려이고, 재차 동쪽으로 북강(北江)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라는 언급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한수(漢水)와 상통했다는 팽려는 당연히 장강의 북쪽에 있어야 하므로 현재 장강의 남쪽에 위치한 파양호는 팽려가 될 수 없다. 《사기·무제본기》와 《봉선서(封禪書)》에 “심양(尋陽)으로부터 종양(樅陽)으로 나와 팽려를 지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종양은 현재의 안휘성 종양현(樅陽縣)으로 장강의 북쪽에 있다. 이것으로도 팽려는 당연히 현재의 호북성 북쪽과 안휘성 서쪽 일대의 장강 북쪽이 됨을 알 수 있다.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팽택과 팽려는 동일한 지명이 아니다. [뒤도수(導水) 부분을 참조]
- 3) 양조유거(陽鳥攸居), 《회남자·시칙훈(時則訓)》: “중추월(음력8월)에 기러기가 찾아 온다.” 고유(高誘)의 주석, “음력8월에 오는 기러기들은 고비사막(北漠)에서 오는데 주락(周洛)을 지나 남쪽 팽려까지 온다(過周洛南之彭蠡).” 기러기는 가을철에 남쪽으로 왔다가 봄에 북쪽으로 돌아가는 철새이다. 옛 팽려 일대는 기러기들이 겨울을 지내는 월동지였다. 《공전》에도 “팽려는 저수지로 해를 쫓아 이동하

는 새인 기러기들이 겨울철에 이 저수지에서 월동한다.” 는 언급이 있다. 유(攸)는 소(所). 지금의 강서성 과양호 일대는 매년 많은 수의 겨울을 나려는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그러나 송나라의 임지기(林之奇)는 양조(陽鳥)가 지명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에 호위는 “양조가 지명이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로 신뢰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증운건(曾運乾)은 《상서정독(尙書正讀)》에서 “조(鳥)는 도(鳥)라고 읽어야 한다. 《설문》에 바다에 종종 산이 있는데 머물 만한 곳을 도(鳥)라 한다. 이것을 가리킨다. 경문에서는 (鳥를) 모두 조(鳥)자로 가차했다. 도이피복(鳥夷皮服)과 도이훼복(鳥夷卉服)에서 도(鳥)자는 고금문에서 본래 조(鳥)자로 씌었다.” “양도(陽鳥)란 즉 양주 부근의 해안에 있는 섬들이다. 큰 것은 곧 대만과 해남이 해당한다. 경문에서 양도(陽鳥)라고 말한 것은 남쪽 햇볕이 드는 곳이다.” 증운건의 주장, 즉 조이(鳥夷)가 도이(鳥夷)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으나 문맥 상 팽려택이 양주 해안에서 천리 이상 떨어져 있는 점과 바로 뒤의 삼강이 위치한 곳과도 지리적 격차가 있으니 바닷가의 여러 섬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칫 ‘초나라로 간다면서 북쪽으로 가는(南轅北轍)’ 우를 범할 수 있다.

- 4) **삼강(三江). 역대로 전해오는 설이 같지 않다. 주요하게 5가지 설이 있다.** ①삼강은 장강하류의 여러 갈래 물길로 바다로 들어가는 세 갈래 지류를 가리킨다. 《한서·지리지》: “[회계군(會稽郡) 오(吳)]: 南江이 (오의)남쪽에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비릉(毗陵; 현 강소성 武進): 北江이 북쪽에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단양군(丹陽郡)무호(芜湖): 中江이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陽羨(현 강소성 宜興)에 도달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은 남·북·중 삼강을 말한다. 삼강이 가리키는 분기점은 따로 있으나 생략한다. ②삼강은 바로 태호(太湖)로 들어가서 바다로 향하는 세 갈래의 물길이다. 즉 송강(松江; 吳淞江)·루강(婁江; 瀏河)·동강(東江; 금인(今溇)). ③장강 이외의 세 갈래 물길을 가리킨다. 위소(韋昭)의 《국어》注: “삼강: 오강(吳江)·전당강(錢唐江)·포양강(浦陽江).” 《여씨춘추》: “절강(浙江)·포강(浦江)·섬강(剡江)을 삼강이라고 한다.” ④삼강이란 장강과 기타 두 물길 즉, 오송강(吳淞江)·전당강(錢唐江)의 합해서 부른 이름이다. ⑤삼강은 장강의 상류 중류 하류를 가리키는 말이다(자세한 내용은 이장전(李長傳)의 유저 《우공석지(禹貢釋地)》에 보인다). 위 설들로 관련 지어 보면 삼강은 태호(太湖) 부근에 있어야만 하거나 태호와 서로 통해야 한다. 또 삼이란 그저 여럿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널리 현재의 강소성 절강성 상해 일대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류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진택(震澤). 현 중국 사대 담수 중의 하나인 태호(太湖)다. 위치는 강소성과 절강성 사이에 있다. 구구(具區)라고도 한다. 《주례·직방》: “양주(揚州), (양주에 있는) 습지를 具區라 한다.” 《이아·석지》: “오와 월의 사이에 구구(具區)가 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립택(笠澤)이 있다. 《양주기(揚州記)》: “태호, 일명 립택(笠澤)이라 한다.”

- 5) 소(篠), 《설문》에는 소(筱)라 했고 화살대 제작용 대나무. 탕(왕대), 마디가 굵고 키가 큰 대나무. 부(敷)는 포(布)로서 널리 퍼져있다.
- 6) 요(夭), 초목이 무성한.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 《시·주남(周南)·도요(桃夭)》: “복숭아 나무가 크게 자라(桃之夭夭).”
- 7) 교(矯), 키가 크다. 교목으로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

- 8) 도니(涂泥). 채침, 《서집전》: “도니(涂泥)란 물기가 많다는 뜻으로 저지대의 땅은 물기가 많아 진탕이다.” 신수치는 “토지의 물기가 마치 진흙과 같아 점토질의 물기 많은 땅이다.” 형주와 양주는 지금의 호남성, 호북성,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의 남쪽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습지가 분포된 곳이니 부합된다.
- 9) 금삼품(金三品). 반고(班固), “금에는 세가지 등급이 있는데 황금(黃金)이 가장 위요, 백금(白金)이 그 다음이요, 적금(赤金)이 제일 아래다.” 이는 곧 금, 은, 동을 금삼품이라고 여긴 것이다. 어떤 이는 금, 은, 주석을 삼품이라고 했지만 고대에는 동을 금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아서 금삼품이란 황동, 백동, 적동을 가리킨다. 정현, “금삼품이란 동의 세 가지 색을 말한다.” 양주는 동광(銅鑛)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동을 많이 생산한다.
- 10) 요(璫)는 아름다운 옥(美玉), 일설에는 마노(瑪瑙; 광물의 일종)라고 한다. 곤(琨)은 美石.
- 11) 치(齒)는 코끼리 상아. 상고시대의 기후는 현재보다 온화하여 코끼리의 분포 범위가 장강 유역에서 황하 유역에까지 이르렀다. 혁(革)²⁸은 짐승의 가죽. 우모, 새의 깃털과 짐승의 가죽. 유목(惟木), 《사기》와 《한서》는 《우공》을 인용할 때 공히 이 두 글자를 생략했다. 강성(江聲)과 왕선겸(王先謙)은 모두 이 두 글자가 문장에 적합하지 않고 연문(衍文)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따른다.
- 12) 도이(島夷). 기주를 참조. 양주 동남쪽 바닷가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이인들의 생활상을 가리킨다. 췌(卉)는 풀의 총칭²⁹. 췌복(卉服)은 풀로 만든 옷·모자·신발등.
- 13) 직패(織貝). 정현, “패(貝)는 면(綿). 《시》에 ‘조개 무늬를 수놓은 면을 짜다(成是貝綿)’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옷감을 짜는 방법은 먼저 실을 물들이고 옷감을 짜가면서 무늬를 넣는다.” 패면(貝綿)은 조개 무늬를 짜 넣은 면을 말한다. 고힐강은 지금의 강소성의 면과 비단은 고대의 직패가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 14) 포(包), 포장하다. 귤(橘)은 귤. 《여씨춘추·본미편(本味篇)》: “과일 중 제일은 강남의 귤이다.” 강서성과 복건성에서 생산된다. 유(柚)는 유자(柚子). 복건성과 광서성, 광둥성 일대에서 생산된다. 이 중 광둥성의 사전유(沙田柚)가 제일이다. 석(錫)은 (명령을) 내리다(賜). 《공전》, “명을 내리면 그때야 비로소 올린다. 이것은 정기적인 공물이 아니라는 뜻이다³⁰.”
- 15) 연(沿)³¹. 연이란 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의미. 《우공》의 양주 공물이동경로(貢道)에 대

²⁸ 고대인들은 치(齒)와 혁(革)을 같이 열거하며 상아와 무소가죽 등을 진귀하고 중요한 물건으로 취급했으며 귀족들의 놀이개나 군사기물의 용도로 사용했다. 《考工記》: “갑옷을 입은 사람을 갑이라 하는데, 무소가죽으로 갑옷을 해 입은 이가 7명이요, 코뿔소의 가죽으로 갑옷을 해 입은 이가 6이고 두 가지를 합해 갑옷을 해 입은 이가 5이다. 무소가죽은 100년을 입을 수 있고 코뿔소 가죽갑옷은 2백년을 사용할 수 있다(函人爲甲, 犀甲七屬, 兕甲六屬, 合甲五屬. 犀甲壽百年, 兕甲壽二百年).” 을 통해서도 무소와 코뿔소의 가죽이 견고한 갑옷의 용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²⁹ 《爾雅·석초(釋草)》: “‘卉, 草.’ 舍人曰: ‘凡百草一名卉.’ ”

³⁰ 《집해(集解)》는 정현을 인용하며 “有錫則貢之, 或時乏則不貢.” 《공소》는 왕숙을 인용하며, “橘與柚錫其命而後貢之, 不常入.” 정현·왕숙 등은 모두 석(錫)자를 ‘명을 기다려’ 라고 주석했으나 (……) 이것은 고대 통치자들이 부세를 거둬들이는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고대 문장에서 동사는 主動과 被動의 구분이 없었고 석(錫)자는 위를 향해서도 아래를 향해서도 모두 통용되었다. 형주의 ‘구강납석대귀(九江納錫大龜)’ 는 즉 큰 거북을 공납했다는 의미인데 여기 석 역시 동일하다. 즉 석공(錫貢)은 진공(進貢)과 동일하다. 이하 경 본문의 석공 역시 마찬가지.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640.

³¹ 《史記》엔 “均江海通淮泗.” 라 기재되어 있고, 《集解》에 “鄭玄曰: 均讀曰沿. 沿, 順水行也.” 라 한다. 沿은 沿으

해 《공전》은 “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 후 바다로부터 회수로 회수로부터 사수로 들어간다.” 고 했다. 즉 지금의 장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북상하여 남통(南通), 염성(鹽城) 일대의 연해를 지나 거슬러 올라가 회수로 든 후, 다시 사수로 든다는 것이다. 다만 상고시대엔 교통수단이 보잘 것없어서 항해기술이 낮다. 또한 개척해 놓은 고정된 바닷길이 부족했는데 이는 춘추시대의 오나라 때 개통한 한구(邗溝; 운하이름)로부터 북상하여 회수로 들어갔던 역사적 사실로써 증명할 수 있다. 손성언(孫星衍)의 소에 “연(沿)이란 順인데 (……) 물을 끼고 육로로 갔다는 것이지 물길을 따라 (배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경문에서 글을 바꿔 연(沿)으로 했고 부(浮)로 하지 않은 것이다. 진시황 원년 말(秦暴元季)에 비로소 해운 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옛 盛時(요순우)에는 있던 길이 아니다.” 증운건(曾運乾)은 양설을 종합하여 장강과 회수 사이에 고대에 이미 운하가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장강을 따라 오르내리고 장강으로부터 회수에 들어가고 회수에서 사수로 들어간다. 장강과 회수의 서로 통합은 《우공》의 장강을 인도하여 회(匯; 淮)에 모이게 하다라는 언급과 뒤이어 《맹자》의 회수와 사수를 터 장강에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으므로 오왕(吳王)이 운하를 뚫어서야 비로소 강과 회가 이어진 것은 아니다. (……) 이른바 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즉 영외 각지의 바다에 부속해 있는 여러 섬들의 공동이다. 그 노정은 바다를 따라 장강으로 들어오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회수로 회수에서 다시 사수로 그리고 하택으로 들어가 비로서 황하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증운건이 말한 《우공》과 《맹자》의 장강을 인도하여 회수로 들어갔다는 언급은 이미 《좌전·애공9년》의 “오성(吳城)의 한구(邗溝)로 말미암아 장강과 회수가 비로소 개통되었다.” 는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공》과 《맹자》는 공히 전국시대 이후에 완성된 책으로 (그 이전의 춘추좌전에 언급된) 춘추말기 오가 한구를 착공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³².

로 쓰는것이 맞다. 고대에는 ‘厶’와 ‘口’는 왕왕 서로 통용되었는데 兪를 兪이라하고 鉛을 鉛이라 한 것이 그 예다.

³² 임지기(林之奇), 《전해(全解)》: “우 당시에는 장강과 회수가 서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주에서 공물을 운송할 때 반드시 장강을 따라 먼저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서 회수와 사수로 들어가게 된다. 오나라의 부차 당시(춘추시대 말기 B.C.5세기 경)에 이르러서야 운하를 뚫어 장강과 회수가 비로소 소통하였다. 맹자는 우가 회수와 사수의 물길을 밀어내어 장강에 주입시켰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인물로 이미 회수와 사수가 운하로 장강과 소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차의 공적을 우의 공적으로 돌리고 그 이전엔 근본적으로 장강과 회수·사수가 서로 소통치 않았음을 몰랐던 것이다. 이로써 《우공》의 기사가 춘추말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공》이 적어도 춘추 중기 이전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顧頡剛·劉起釪, 앞의 책, p. 640.

荊及衡陽惟荊州：江·漢，朝宗于海，九江孔殷，沱·潛既道，雲土夢作乂，厥土惟塗泥，厥田惟下中，厥賦上下。厥貢·羽·毛·齒·革·惟金三品，柁·榦·栝·柏，礪·砥·磬·丹，惟篚簞桔。三邦底貢厥名，包匭菁茅，厥篚玄纁璣組，九江納錫大龜。浮于江·沱·潛·漢，逾于洛，至于南河。

형산(荊山)에서 형산(衡山)의 남쪽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을 형주(荊州)라 한다. 장강과 한수가 마치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러 가는 모양처럼 바빠 바다로 향하고, 많은 장강의 지류들이 동정호로 모여 드는데 그 물의 기세가 성대하다. 장강의 지류인 타강과 한수의 지류인 잠강이 모두 이미 그 물길들이 소통되어 운몽택 지역의 수해가 모두 제거됨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형주의 토질은 습기가 많은 점토질로 경작지는 8 등급, 부세는 3 등급에 속한다. 형주의 공물로는 새깃털·소꼬리·상아·소가죽으로부터 황동·청동·홍동, 가야금을 만드는 나무·견고하여 차 수레를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전나무·동백나무·거칠고 곱게 갈 수 있는 숫돌·화살촉을 만드는 석노·붉은 주사 그리고 죽순·화살대로 쓰이는 대나무인 로와 호가 있다. 형주 내의 여러 지역에서 그 곳의 특산물을 바쳤고 제사에 지내는 술을 거르는 데 사용하는 청모를 잘 포장하여 상자에 담았으며 동근대 바구니에는 검은색, 황홍색의 비단으로 만든 허리띠와 진주를 담아 올렸다. 구강의 일대에서는 따로이 명을 기다려 제사용 큰 거북을 잡아 바쳤다. 공물은 장강의 지류인 타강에서 배에 실어 한수의 지류인 잠강에 도달한 후 바로 한수로 옮겨지고 그후 육로로 낙수로 이동하여 황하로 옮겨갔다.

[주석]

- 1) 형(荊), **형산(荊山)**. **지금의 호북성 남장현 서쪽**. 형양(衡陽), 형산의 남쪽. 《한서·지리지》: “[장사국(長沙國)상남(湘南)]: 《우공》에서 언급된 衡山이 동남쪽에 있다.” 형주는 구주의 하나로 《시·상송(商頌)·은무(殷武)》: “씩씩한 은나라의 무용을 떨쳐 초나라(荊楚)를 쳐부수고”, 《모전》: “형초(荊楚)는 형주에 자리한 초나라이다.” 《여씨춘추·유시람》: “남방을 형주라 하는데 초나라 땅이다.” 형주의 북쪽 경계는 호북성 남장(南漳)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하다가 안휘성의 회하 상류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양주와 서로 경계를 이루는데 회하 상류에서 호북성 동부를 지나 상수(湘水)와 닿을 따라 남쪽으로 향한다. 서쪽은 양주(梁州)와 경계를 이루는데 호북성 서남쪽에서 사천성 동남쪽을 넘어 귀주 동부까지 다다른다. 남쪽 경계는 오령(五嶺)을 넘지 않는다. 즉 현재의 호북성 중남부, 호남성 중북부 그리고 사천과 귀주의 일부분을 아우른다. 옛날에는 형만(荊蠻)의 주거지였다.
- 2) **강·한(江·漢)**, 장강과 한수. 《공전》: “이 두 하천은 형주를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마치 제후가 조회하러 가는 것 같다. 수 많은 하천은 바다를 마루로 삼는다. 종(宗)은 곧 높임이다.” **고힐강은 “《우공》(형주)에서 언급한 ‘강’은 곧 지금의 사천성의 가릉강(嘉陵江)으로 민강(泝江), 한강(漢江)과 그 원류가 서로 멀지 않은 까닭에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강과 한이라고 병칭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 강의 발원지는 모두 섬서성 한중(漢中) 지역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³³. 고힐강은 또

³³ 《우공》의 작자는 민산(岷山)에서 발원하는 민강(岷江)을 장강의 상류로 오인하고 있다. 아래 ‘導九川’에서 “汶

“옛날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기 위해 봄에 찾아 오는 것을 조(朝), 가을에 오는 것을 종(宗)이라고 했다. 이는 바다를 천자에 비유하고 장강과 한수를 제후에 비유한 것이다. 장강과 한수는 합류한 이후 대대로 흘러간다.”(《中國古代地理名著選讀》제1집)

- 3) **구강(九江)**. 구강에 대한 설은 제법 많은데 주요한 것은 다섯 가지다. ①형주 경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장강을 9개의 강으로 구분한 것으로 《한서·지리지》: “[려강군(廬江郡)심양(浔陽) 현 호북성 황매현(黃梅顯)]: «우공» 속의 구강이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 모두가 동쪽에서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룬다.” ②9개의 물길이 스스로의 원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류에 이르러서야 합류하여 장강에 합해진다. ③구강은 곧 오백강(烏白江)·방강(蚌江)·오강(烏江)·가미강(嘉靡江)·견강(峽江)·원강(源江)·름강(廩江)·제강(提江)·군강(筮江)이다. 혹은 이리강(二里江)·오주강(五州江)·가릉강(嘉陵江)·오토강(烏土江)·백방강(白蚌江)·백오강(白烏江)·군강(筮江)·사제강(沙提江)·름강(廩江)을 말하기도 한다. 위의 강은 모두 호북성과 강서성 일대에 있다. ④호한(湖漢)의 아홉 물길이 뿔뿔로 들어가 구강이 된다는 설. ⑤채침의 설로 원(沅)·점(漸)·원(源)·신(辰)·서(叙)·유(酉)·풍(豐)·자(資)·상(湘) 등의 물길이 모두 동정호(洞庭湖)로 모이는데 이를 구강이라고 한다. 《산해경》: “원수(沅水)가 하휴현(현 岳陽)의 서쪽으로 흘러 들어와 동정호에 합해지는데 帝의 두 딸이 그 곳에서 거주했다. 이 곳은 구강의 사이에 있다.” 증운전은 “구강에 대한 말한 것 중 오직 송 채침의 설만이 타당하다.” 고 하면서 “구강에서의 숫자 9는 최종의 수로서 옛날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많을 경우 9로써 마무리 했다. 《이아》에도 구하의 이름이 있는 까닭에 구강 역시 반드시 실제로 그 강 이름들을 배정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다(則隣于鑿矣).” 구강(의 구는) 실제로는 허수이다. 공(孔)은 심(甚). 은(殷)은 무리(衆)로 풀어서 공은(孔殷)이란 많은 물길이 모여 그 흐름이 크게 성대하다는 의미이다.³⁴
- 4) **타(沱)·잠(潛)**. 《이아·釋水》에 근거하면 장강에서 발원한 물길을 타(沱), 한수에서 발원한 물길은 잠(潛)이라고 한다. 이것으로써 타수는 장강의 지류이고 잠수는 한수의 지류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의 물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도 알 수 있다³⁵.
- 5) **운토몽(雲土夢)**은 **운몽택(雲夢澤)**을 가리킨다³⁶. 《주례·직방》: “형주(荊州), 형주에 있는 저수지를

山導江”이라는 구절이 그 증거다. 《한서·지리지》: “蜀郡湔氏道(현재의 송반현)에서 «우공»에 언급된 岷山이 서쪽 멀리 있는데 장강이 발원하는 곳이다.” 라는 기사 역시 이를 증명한다. 후대의 徐霞客(1586~1641)이 비로소 장강의 원류가 金沙江임을 고증했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644.

³⁴ 주희 이래 청의 왕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강의 흐름이 깊이 성대하다(九江之流甚盛).” 로 풀이하고 있다.

³⁵ 이러한 사실은 아래 ‘導水章’의 “岷山導江, 東別爲沱” 라는 기사로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각 주석가들이 장강에서 비롯된 물길을 타라하고 한수에서 비롯된 물길을 잠이라고 주석한 것이다. 더불어 梁州, 荊州 모두 타강과 잠강이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³⁶ 운토몽(雲土夢)을 ‘운토’와 ‘몽택’ 두 개의 지명으로 본 설이 예전부터 많았지만(司馬貞·韋昭·李吉甫로부터 송의 沈括·羅泌·郭思·鄭焦 등), 胡胃·皮錫瑞·孫詒讓 등에 의해서 지리학적 고증과 수 많은 고대 지리서에 기재된 기사를 토대로 운몽택의 명칭은 하나임이 밝혀졌다. 예를들면, 《주례·職方氏》: “正南曰: 荊州 (……) 其澤藪曰: 雲夢.” 《이아·釋地》: “(十藪): 楚有云夢.” 《여씨춘추·有始覽》: “何謂九藪? (……) 楚之雲夢.” 《전국책·楚第一》: “楚王遊於雲夢結駟千乘.” 司馬相如《子虛賦》: “臣聞楚有七澤, 當見其一 (……) 名曰雲夢. 雲夢者, 方九百里.” 등이다. 다만 글자가 착란되어 운토몽으로 된 것일뿐인데도 기이한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이들은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p. 658-662.

운몽이라 한다.” 《이아·석지》: “초나라엔 운몽이 있다.” 고대에는 장강과 한수 유역 평원에 큰 호수가 있었다. 채침과 호위 등은 모두 운몽택 지역이 장강 남북으로 걸쳐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고힐강은 운몽택은 강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국고대지리명저선독》제1집) **담기양(譚其驥)은 고증을 거쳐 운몽택의 변천과정 요점을 명료하게 묘사했다. 즉, 운몽과 운몽택은 동일한 지명(一回事)이 아니다. 운몽은 초왕이 수렵하던 지역이고 후자는 호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두 곳은 모두 장강의 북쪽에 있었으며 일찍이 장강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운몽택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운몽의 범위는 매우 광활하여 이 한 곳에 산림, 하천, 저수지, 습지 등의 다양한 지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동서로 약 800리 남북으로 500리 정도였으며 운몽택은 다만 그 중 한 개의 커다란 호수일 따름이다. 또한 “대체로 가장 앞선 시대의 운몽은 지금의 호북성 안륙현(安陸縣) 동남 방향으로 운몽현 경계와 접한다. 운몽현의 이름 역시 당연히 운몽의 소재로 인한 것이다.”** 후자는 운몽의 지역이 장강의 남북을 걸치고 혹은 동정호가 《우공》에서 말하는 운몽이라고 하나 이 모두는 억지 주장일 뿐으로 《우공》의 본의가 아니다. (《復丹學報·歷史地理考輯》에 실린 《운몽여운몽택》을 참고하라.) 담기양의 주장은 지질학자들의 증명을 마쳤으며 두 설은 틀림이 없다. (참조. 《跨江南北的古雲夢澤設不能城立》, 《海洋與湖沼》, 1982.2기)

- 6) 유(惟)는 여(與)·급(及).
- 7) 춘(椿), 《설문》: “참죽나무. 가야금을 만들 수 있는 나무(椿, 樹也. 木可制琴).” 간(干)은 산뽕나무(栝)로 낙엽관목이다. 목질이 견고하여 수레 끌체를 만들기에 좋다. 《고공기(考工記)》: “장인이 방패를 만드는 방법이 7가지인데 산뽕나무(자(栝))로 만드는 것이 제일이다.” 괘(栝)은 향나무이고 백(柏)은 동백나무.
- 8) 려지(礪砥). 견고하고 단단한 돌로 거칠게 가는 것을 려(礪), 곱게 가는 것을 지(砥)라 한다. 노(磬)는 화살촉을 만들 수 있는 돌. 단(丹)은 광물의 일종인 주사(朱砂)로 수은과 유황의 천연화합물이다. 지금의 호남성 원릉(沅陵; 辰州)에서 산출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진사(辰砂)라고도 한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진주(辰州)의 공물에 광명사(光明砂)가 있다.” 선홍색을 띠며 안료와 약재로도 쓰인다.
- 9) 균(筩)은 죽순. 로(籛)는 대나무로 화살대를 만드는데 쓴다.
- 10) 삼방(三邦)을 정현은 호수 주변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왕세순(王世舜)은 《상서역주(尙書譯注)》에서 형주 경내의 여러 나라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으며 반드시 호수 근처의 세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삼(三)이란 그저 여럿을 가리키는 것. 이것을 따른다. ‘지공궤명(底貢厥名)’은 이름난 특산물을 공물로 바친다는 뜻.
- 11) 궤(醜)는 상자. 청모(菁茅)³⁷는 잔털가시가 있는 락풀의 하나 제사 술을 거르는데 사용하는데 이를 숙주(宿酒)라고 한다. 일설엔 술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또 일설엔 옛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청모 한 단을 묶어 제사 상 앞에 세워 놓고 술을 그 위에 뿌려 술이 아

³⁷ 《管子·輕重丁篇》: “江淮之間, 有一茅而三脊, 毋至其本, 名之曰菁茅.”

래로 스며들게 하니 마치 귀신이 음향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³⁸. 《좌전·희공4년》: “제 환공이 초 나라를 책망하여 ‘네가 청모를 공물로 올리지 않아 왕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 숙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 띠풀을 말한다.

12) 현(玄)은 흑색. 혼(纁)은 황적색³⁹. 기(璣)는⁴⁰ 귀한 진주. 조(組)는 끈의 종류로 일종의 끈으로 된 허리띠로 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⁴¹.

13) 납(納), 들이다. 석(錫)은 공급하다의 뜻. 대귀(大龜)는 신령스러운 거북으로 원귀(元龜)라고도 한다. 《사기·귀책열전(龜策列傳)》: “신령스러운 거북이 장강과 회수의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그 곳은 지금의 호북성 황매현(黃梅縣)·광제(廣濟) 등의 지역이다. 거북의 등갑은 고대에 점복 용으로 사용되었고, 은상(殷商) 때에 거북 등갑을 사용한 점복을 많이 실행했는데 그 수량이 아주 많고 형주 등에서 그 거북을 공급하였다⁴².

14) 유(逾). 물로부터 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 육지로 가는 것을 유(逾)라 한다. 낙수(洛水)와 한수(漢水)의 지류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중간의 거리가 약 수십 리 정도 된다. 그러므로 육지로 낙수(洛水)에 도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5) 남하(南河)는 곧 황하. 고힐강, “춘추시대 하곡(河曲) 이북, 진(秦)과 진(晉) 양국의 분계선을 대체로 서하(西河)라고 불렀다. [내몽고로부터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며 현재의 산서성과 섬서성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의 황하. 이 길목에 호구와 용문이 있다.] 하곡 이남은 꺾어져서 동쪽으로 주(周)와 정(鄭)의 경계를 지나며 이를 남하(南河)라고 하고[현재의 하남성과 하북성·산서성의 경계를 이루는 황하], 다시 꺾어져서 동북으로 위(衛)와 제(齊)의 경계를 이룰 때는 동하(東河)라고 불렀다. 이 남하가 바로 하남성 낙양, 공현 일대의 황하이며 또한 락수로부터 황하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³⁸ 《주례·甸師》: “祭祀共蕭茅.” 鄭興의 주석: “蕭字或爲茜. 茜讀爲縮. 束茅立之祭前, 沃灑其上, 酒滲下去, 若神飲之, 故謂之縮.” 이러한 의식을 ‘縮酒’라고 한다.

³⁹ 직물을 1차염색하는 것을 전(緇), 2차염색을 정(赭), 3차염색을 혼(纁), 4차염색을 주(朱), 5차염색을 추(紗+취(取)), 6차염색을 현(玄) 그리고 7차염색을 치(緇)라 한다. 한 번 염색할때마다 색이 짙어지므로 치는 가장 진한 검은색의 직물이 되고 그 다음이 적흑색, 혼은 황적색의 직물이다. 《주례·고공기(考工記)·종씨(鐘氏)》: “三人爲纁五人爲緇七人爲緇.” 정현의 주석에 “(……) 《爾雅》: ‘一染爲之緇, 再染爲之赭, 三染爲之纁, (……)’ ”

⁴⁰ 《설문·玉部》: “璣, 珠不圓也.”

⁴¹ 《예기·玉藻》에 보면, 조수(組綬)에 대한 세 단락의 문장이 있음. ①佩玉의 조 “天子佩白玉而玄組綬, 諸侯佩山玄玉而朱組綬.” ②冠纓의 조, “玄冠朱組綬, 天子之冠也; (……) 玄冠丹組纓諸侯之齊冠也;” ③帶紐約의 조, “天子素帶朱裏終辟, (……) 大夫素帶, 辟垂.”

⁴² 소망평(邵望平), 《구주풍토고고총고(九州風土考古叢考)》: “중국문화사에서 거북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는 인식은 매우 오래 된 것이다. 기원전 3000년대에 속하는 大汶口文化의 여러 묘지 즉, 하남성·사천성·강소성 등에서 발굴된 묘지에 거북이 함께 매장되어 있는 현상이 다수 발견된다. 고대의 역사 전설 상에서는 하대에 이미 거북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고고학 발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상대 후기에 거북 점이 시작되었다는 것뿐이다. 상 武丁 때에 이르러 거북점은 아주 성행했고 이는 서주까지 쇠퇴하지 않았다. 岐山의 周의 발원지에서도 복갑은 아주 많이 발굴되어 17000여 정도의 거북점 조각이 출토되었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672.

荊河惟豫州：伊·洛·澗·澗既入于河，滎波既豬，導荷澤，被孟豬。厥土惟壤，下土墳。厥田惟中上，厥賦錯上中。厥貢漆·枲·絺·紵，厥篚織·纘，錫貢磬錯。浮于洛，達于河。

형산(荊山)과 북으로 황하에 이르는 지역을 예주(豫州)라 한다. 이수·낙수·전수·간수의 물길이 소통된 후에는 황하로 흘러 들어가고, 형택으로 물길이 모여들었으며, 하택이 소통되어 물이 많을 때에는 넘쳐 흘러 맹저택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예주의 토질은 석회성분이 있는 충적황토로 낮은 층은 흑색의 단단한 토양이다. 경작지는 4 등급, 부세는 2 등급이나 1 등급을 섞어 냈다. 예주의 공물에는 옷·대마·가는 갈포·모시가 있고, 등근 대 바구니에는 고운 면을 담아 올렸다. 석경과 옥을 다듬는 돌은 명을 기다려 바치곤 했다. 공물은 낙수에 실어 황하에 도달하였다.

[주석]

- 1) 예주(豫州), 구주의 하나. 《주례·직방(職方)》: “황하의 남쪽을 예주라 한다.” 《여씨춘추》: “황하와 한수의 사이를 예주라고 한다.” 예주는 구주의 중앙에 위치하며 청주를 제외한 7개 주에 서로 인접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중주(中州)라고도 부른다. 예주의 남쪽 경계는 형산(荊山)이고, 북쪽은 빈하(濱河)로써 지금의 하남성 황하이남과 호북성 북부 산둥성 서남 모퉁이 그리고 안휘성 서북부에 해당한다.
- 2) 이(伊)는 **이하(伊河)**. 하남성 로씨현(盧氏縣) 동남쪽 **悶돌嶺**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흐르며 승현(嵩縣)·이양(伊陽)·낙양(洛陽)·언사(偃師) 등을 지나 낙수(洛水)에 들어간다. **낙수(洛水)**. **섬서성 락남현(洛南縣) 총령산(冢嶺山)**에서 **발원**,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하남성 공현(鞏縣)에 도달하여 황하로 들어간다. 전(澗)은 **전수(澗水)**. 하남성 낙양시 서북쪽의 **곡성산(谷城山)**에서 **발원**, 동쪽으로 흐르다가 낙수에 합류. **간(澗)은 간수**. 하남성 승지현(승池縣) 동북쪽 **백석산(白石山)**에서 **발원**, 동류하며 신안(新安)과 낙양(洛陽) 서남쪽을 지나치며 흐르다가 낙수에 유입. 《상서·낙고》: “내가 간수 동쪽과 전수 서쪽에서 점을 쳤다.”
- 3) **형(滎)은 제수(濟水)의 지류**. 형파(滎波)는 곧 형파(滎播)로 파(波)와 파(播), 그리고 반(潘)은 서로 통한다. 물이 넘쳐서 못을 이룬 것을 심(瀋)이라 한다⁴³. 형파(滎波)는 곧 형택(滎澤)을 말하는데 일찍이 황하 남쪽 기슭에 있던 큰 호수로 지금의 하남성 형양현(滎陽縣) 경내에 있었다. 동한 후에는 흙이 침적하여 평지가 되었다.
- 4) **하택(荷澤)**. **하수와 제수가 지나가는 곳이다. 소재지는 예로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공전》: “하택은 호릉(胡陵)에 자리한다.” 《한서·지리지》에서는 정도(定陶)의 동쪽에 있다고 말했고 혹자는 이 두 곳을 모두 걸친다고 했다. 맹저(孟豬), 혹은 맹제(孟諸)라고도 한다. 맹제는 그 소재지가 하남성 상구

⁴³ 파(波)를 《사기》는 파(播)로 《설문》은 반(潘)으로 《한서》는 파(波)로 적고 있는데, 물이 넘쳐 흘러서 이루어진 저수지(호수)를 반저(潘渚)라 한다. 반(潘)과 파(波)와 파(播)는 동음으로 통용되므로 이러한 유형의 저수지를 반·파·파라 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채침은 ‘형파(滎波)’를 두 개의 하천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정현이 《우공》의 이구절을 《주례·직방》의 파수(波水)를 인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잘못 이해된 것이다. 고희강은 위고문본(僞古文本)의 ‘波’자는 정현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원래의) ‘播’자를 ‘波’로 바꿈으로써 ‘형’과 함께 별개의 것으로 되었다고 의심하였다. 안사고(顔師古)에 이르러 (이른바) 정현의 이 설명을 쫓아 형과 파 2개의 하천이 된 것이다. 임지가 이런 사실을 《全解》에서 상세히 고증하였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676.

(商丘) 동북쪽에 있는데 당나라 때 큰 저수지가 되었다가 원대에 이르러 침적되어 황폐해졌다. 피(被)는 물이 넘쳐 침수하다는 의미. 경문의 “導荷澤，被孟豬”는 물이 항상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물이 많을 때는 하택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물이 맹저를 침수시켰다는 의미.

- 5) 고토유양(厥土惟壤). 신치수 《우공신해》: “예주는 지금의 하남지역으로 평야가 주로 석회성분의 층적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양이라 불렀나 싶다.” 흙과 암석의 중간인 아토양(亞土壤)은 황하 층적토 제2기 황토이다.
- 6) 하토분로(下土墳壚), 신치수의 《우공신해》: “예주에 분포한 토양과 앞에서 나온 분은 모두 토양의 제일 밑 층을 이룬다.” 허신의 《설문》에서는 로(壚)를 검은색을 띤 단단한 흙이라 하며 그 흙이 아주 단단하며 검은 색을 띤다고 한다.
- 7) 광(續). 공영달은 섬광(織續)을 곱고 가는 면직물이라고 했다⁴⁴.
- 8) 착(錯). 옥을 곱게 가는 돌을 가리킨다.

⁴⁴ 또 다른 의견으로는 林之奇, 《全解》: “어려 유가들은 섬광(織續)을 고운 면직물이라고 여겼지만 先儒들은 검은 실로 씨줄을 삼고 하얀 실로 날줄을 삼아 짠 직물을 섬(織)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섬과 광은 두 개의 사물이라는 것인데 또한 잘 모르겠다.” 胡渭, 《禹貢錐指》: “섬(織)은 곧 명주(縉)다. (……) 《孔傳》에 ‘광(續)은 곧 고운 면직물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곧 섬(織)의 뜻을 (광의 앞에 씌여) 세밀함·고움으로 본 것이다. 내가 보건대 숨 중 고운 것을 광이라 한는데 이 광을 다시 거친 것과 고운 것으로 나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또한 공물로 올리는 면은 반드시 고운 것이어야 하므로 어찌 또 섬이라는 말이 필요하겠는가? 섬과 광은 별개의 사물임에 틀림없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678.

華陽黑水惟梁州：岷·嶓既藝，沱·潛既道，蔡·蒙旅平，和夷底績。厥土青黎，厥田惟下上，厥賦下中三錯。厥貢璆·鐵·銀·鏤·磬·磬，熊·羆·狐·狸織皮。西傾因桓是來，浮于潛，逾于沔，入于渭，亂于河。

화산의 남쪽과 서쪽으로 흑수의 사이 지역을 양주(梁州)라 한다. 민산과 파총산 일대를 정비한 후에는 충분히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되었고, 타강과 잠강의 물길이 소통되어 채산과 몽산 일대의 물길 역시 치수완료되어 화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공정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양주의 토질은 흑색의 비옥한 토지로 경작지는 7 등급이고 부세는 8 등급에 속하나 7 등급에서 9 등급까지 섞여서 났다. 양주의 공물로는 금·은·강철·돌화살촉·경석으로부터 곱·큰곱·여우·이리 등의 4 종류 짐승의 가죽이 있다. 서경산 일대의 공물은 환수의 물길을 따라 오는데 공물의 이동경로는 잠수를 경유하여 먼수로 온 후, 배를 놓고 육로를 선택하여 물으로 위수로 옮겨진 후 가로질러 바로 황하에 도달한다.

[주석]

- 1) 화양(華陽)은 곧 화산(華山)의 남쪽. 화산은 오악 중의 하나로 사악이라고 불리며 **섬서성 동북쪽에 있다. 흑수(黑水). 흑수에 대해서 7가지 설이 있다.** ①장액하(張掖河)가 바로 흑수라는 설로 공영달의 《상서정의》의 주장이다. ②대통하(大通河)가 흑수라는 설로 《괄지지(括地志)》의 주장이다. ③당하(黨河)(氐置水)가 흑수라는 설로 《한서·지리지》가 이를 주장한다. ④려수(麗水)가 흑수라는 설로 당나라 때 번작(樊綽)의 《만서(蠻書)》에서 려수가 곧 금사강(金沙江)이라고 주장했다. 설사용(薛士龍)은 로수(瀾水)를 흑수라고 여겼는데 호위(胡渭)는 로수가 곧 금사강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 때의 로수는 당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 금사강이라고 불렸다. ⑤관창강(瀾滄江)이 흑수라는 설. 이원양(李元陽)이 《흑수변(黑水辨)》에서 주장. ⑥서이하(西洱河)가 흑수라는 설. 정대창(程大昌)이 주장. ⑦노강(怒江) 상원의 합랍오소강(哈拉烏蘇江)이 흑수라는 설로 진풍주(陳澧主)의 주장. 이상 여러 설 중 려수가 곧 금사강이며 곧 흑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 고힐강은 “현 섬서성 고헌 북쪽에 있는 흑수가 곧 《우공》에서 언급한 양주(梁州)의 흑수이다. 《우공》은 화산의 남서쪽으로부터 흑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고 그 남쪽이 바로 량주라고 했는데 후세인들이 이 뜻을 밝히지 못했다. 《공전》에 의존하는 이들은 《공전》을 반박하지 못하는데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 양주의 동쪽 경계는 화산이고 서쪽 경계는 고증할 수 없으며 남쪽 경계는 장강에 이른다. 양주(梁州)의 명칭은 《이아·석지》와 《여씨춘추·유시람》에는 보이지 않는데 흑자는 옛날에는 웅주가 량주 지역을 겸하고 있었다라고도 한다.”(《중국역사지리명저선독》제1집) 양주는 9주의 하나로 춘추시대에 파(巴)·용(庸)·복(濮)·미(糜)·포(褒) 등 여러 나라의 지역이다. 지금의 사천성 동부와 섬서, 감숙 남부지역이다.
- 2) 민(岷)은 민산(岷山). 사천성 송반현(松潘縣) 경내에 있고 민강(岷江)의 발원지. 파(嶓)는 파총산(嶓冢山). 현 섬서성 녕강현(寧強縣) 동북쪽에 자리. 고힐강의 고증을 보면 《한서·지리지》의 “촉군(蜀郡) 전저도(湔氐道), 《우공》에 언급된 민산이 서쪽 변경 밖에 있다. 장강이 발원하는 곳으로 장강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강도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우공》은 가릉강(嘉陵江)을 장강의 발원지

로 오해하고 있다. 더불어 (가릉)강이 발원하는 민산(岷山)이 송반(松潘)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상세한 내용은 《중국역사지리명저선독》제1집을 보라) 일리가 있다. 예(藝), 씨를 뿌리고 기르다.

- 3) 타(沱)·잠(潛). 《이아·석지》: “한수(漢水)의 지류가 잠수(潛水)이고, 장강(長江)의 지류가 타수(沱水)이다.” 《우공》은 현재의 가릉강을 장강으로 오해하여 거수(渠水)·탕수(宕水)·파수(巴水) 등을 타수라고 불렀다.
- 4) 채(蔡)는 채산. 섭몽득(葉夢得)은 《상서전(尙書傳)》에서 사천성 아안(雅安) 동남쪽의 채가산(蔡家山)이 채산이라고 생각했다. 일명 주공산(周公山)이라도 한다. 호위는 아미산(峨眉山)이 채산이라고 생각했다. 몽(蒙)은 몽산. 사천성 아안현(雅安縣)·명산현(名山縣)·로산현(蘆山縣) 세 개 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고힐강의 생각으로는 《우공》에서의 장강과 한수는 가릉강을 가리키니 곧 채산과 몽산 두 산이 아안(雅安)과 아미(峨嵋) 일대에 있다는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 러(旅), 채침은 러제(旅祭). 즉 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왕념손(王念孫)은 《예기주(禮記注)》에서 “러(旅)는 길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러평(旅平)은 곧 길이 이제 안정되었다는 의미로 택할 만 하다⁴⁵.
- 5) 화이(和夷). 호위(胡渭)는 화수(和水)는 아수(潑水)를 가리키니 지금의 대도하(大度河)라고 했다. 이는 고대 소수민족의 호칭. 어떤 이는 화이는 곧 지금의 이족(彝族)이라고 한다.
- 6) 청려(靑藜), 《공전》: “흙이 청흑색을 띠며 비옥하다.” 신수치, 《우공신해》: “토질과 지형을 말하지 않고 토양의 빛깔과 광택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혹 당시의 양주(梁州)는 지금의 사천성인데 개발이 된 지 오래 되지 않아 그 곳의 정황이 불확실한 까닭일 것이다. 옛날에 청려(靑藜)란 곧 흑색을 말한다. 성도(成都) 근처의 평야(平原)를 예로 들면, 지금도 여전히 진한 잿빛의 석회성분이 있는 충적토인데 옛 말과 부합된다. 사천성 분지(盆地)의 구릉(丘陵)의 경우도 지금은 비록 흙이 자색이나 그 당시의 상황은 《한서·지리지》의 ‘파(巴)와 촉(蜀)은 드넓으면서도 토지는 비옥하고 물과 기름진 들이 있으며 산림과 나무 그리고 과실이 풍요롭다.’ 는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 중에 부식층이 풍부해서 흙의 빛깔은 아마 반드시 흑색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경작지가 밀집되어 그 풍요로운 부식층이 많이 소실되었다.” 참고할 만하다.
- 7) 구(鑪), 혹은 류(鑪)라고도 한다. 정현의 주석, “황금 중 아름다운 것을 류(鑪)라 한다.” 여기서의 금은 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금을 말하며 양주의 특산물이다. 루(鑪), 《설문》: “강철을 사용하면 아로새길 수 있다.”⁴⁶ 즉, 그 속성이 견고하고 강하여 그것으로 아로새길 수 있는 철을 가리킨다.

⁴⁵ 僞傳에서: “蔡·蒙, 二山名. 祭山曰旅. 平, 言治功畢.” 이라 한 이후로 모든 주석가들은 ‘旅’를 제사로 보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청 왕引之의 《經義述聞》에 와서야 비로소 왕씨 부자의 설이 있게 되었다. “家大人이 말씀하시길, ‘《傳》에서 러(旅)를 제사의 이름이라 하였는데 ‘旅平’과 ‘栗旅(隨山栗木)’ 두 글자는 모두 뜻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우공》에는 산천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오악(五嶽)과 사독(四瀆)에 대해서도 역시 러(제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蔡·蒙·荊·岐 등의 산에 대해서 제사를 말하겠는가? 또한 구천(九川)에 대해서는 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구산(九山)에 대해서만 러를 지냈겠는가? 그러므로 《우공》에서 언급한 이른바 러는 본래 제사이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나는 러(旅)를 도(導)라고 하겠다. 《이아(爾雅)》에 ‘路·旅, 途也.’ 라고 했고 곽박(郭璞)이 이에 ‘途即道也.’ 라고 말했으며 《교특생(郊特牲)》의 ‘臺門而旅樹’라 한 것에 정현이 주석하기를 ‘旅, 道也.’ 라고 했으니 이른바 ‘蔡蒙旅平’이란 두 산의 길이 이미 잘 다스려졌더라는 의미다.”

⁴⁶ 《說文·金部》: “鑪, 剛鐵, 可以刻鏤.” 《우공추지》: “凡鐵, 柔曰鐵, 剛曰鑪.” 여기서의 철과 류 두 글자가 현대에 《상서》 성립연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요약하면,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보았을 때, 철기는 춘추 시대에 비로소 제작되었고, 전국시대에 성행했으므로 《우공》이 전국시대 혹은 빨라도 서주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

- 8) 웅비호리직피(熊羆狐狸織皮). 羆(비), 곰의 일종으로 마웅(馬熊)이라고도 한다. 《공전》: “네 짐승의 가죽으로 금계(金闕; 양탄자 등 직물)를 짜서 공물로 올린다.” 이에 대해 공영달은 “직피(織皮)는 이어진 문장으로 생가죽을 올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짐승의 가죽을 공물로 올린다.” 라고 한 것이다.
- 9) 서경(西傾)은 산 이름. 감숙성과 청해성의 경계가 교차하는 청해성 동덕현(同德縣)의 북쪽에 자리한다. 동쪽으로 면한 도하(洮河)의 발원지이다. 환(桓)은 곧 환수. 일반적으로 백수(白水)라고 여겼는데 지금의 가룽강 상류의 백룡강(白龍江)이다. ‘인환시래(因桓是來)’는 즉 환수 덕분에 梁州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양주의 공도(貢道)다. 고힐강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룽강은 잠강(潛江)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옹주의 서경산에서 오는 것은 우회하여 룡(隴) 땅에서 측에 이른 후 다시 측으로부터 한수로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서경산으로부터 환수 덕분에 량주에 도달한다’라는 이 구절은 실은 아직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리가 있다.
- 10) 잠(潛)은 잠수(潛水). 잠수는 한수(漢水)로 유입된다. 지금의 서수(潛水)·포수(褒水)는 모두 잠수라고 불렀다. 면(沔)은 면수. 일명 저수(沮水)라고 한다. 섬서성 략양(略陽)에서 발원,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면현(沔縣)에 이르러서 한수로 들어간다. 흑자는 면수는 곧 한수의 상류라고도 한다. 공영달 “《전》에 셈이 처음에 산에서 나와 양수(漾水)가 되고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면수가 된다. 한중(漢中)에 도달해서 동쪽으로 흐르면 한수(漢水)가 된다. 이런 까닭에 한수의 상류를 면수라 부른 것이다.”⁴⁷
- 11) 위(渭)는 위수(渭水). 발원지는 감숙성 위원현(渭源縣) 서쪽 조서산(鳥鼠山)이다. 동쪽으로 흐르며 섬서를 지나 황하에 들어가는데 황하의 가장 큰 지류이다. 한수와 위수의 사이는 진령(秦嶺)인데 지세가 험하다. (褒水의) 비스듬한 길은 가장 가깝고 편리하다. 그래서 육상으로 와서 위수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다. 란(亂, 가로지르다)⁴⁸. 채침, “물길이 끊어진 곳에서 (육지를 통해) 건너는 것을 란(亂)이라 한다.” 이장전(李長傳), “이 경문의 구절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잠수(潛水)에 띄워, 면수(沔水)로 들어온 후 (육지를 통해) 위수(渭水)로 들어와 황하에 이른다.’ 이것이 맞다.”

는 견해가 있다. 주로 고힐강이 대표적이다. 반면 石盤淮는 “《우공》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문 속의 ‘철’ 자 하나에 근거하여 전국시대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錢子泉 선생의 유저에 ‘1931년 출토된 小屯銅器에 영국의 발굴단이 실험한 바에 따르면, 이 동기에 철 성분이 2/1000 ~ 4/1000 정도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은나라 때에 이미 철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보고가 있다. (……) 그러므로 《우공》에 철자가 있다고 해서 《우공》이 전국시대에 성립된 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이 있는데 夏鼐·于省吾 등은 “철을 제련하는 일에 관해 결단코 청동기 중에 미량의 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될 수 없다. (……) 황동광의 함유성분은 동과 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대의 야금술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 성분이 미량 함유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그러므로 은 시대의 청동기에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당시에 이미 철기가 있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顧頡剛·劉起釡, 앞의 책, pp. 726-732.

⁴⁷ 《우공》의 용례 상, 두 하천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육로를 거칠 때, ‘유(隴)’ 자를 쓴다. 이곳(량주)에서는 잠수와 면수가 서로 통하는 반면 면수와 위수 사이가 물길이 끊어져 있다. 그러므로 김리상이 《서경주》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구절은 ‘(潛于潛), 入于沔, 踰于渭’의 오기이다.

⁴⁸ 《이아·釋水》: “물길을 끊고 바로 건너는 것을 란이라 한다(正絕流爲亂).” 곽박(郭璞)의 주석 곧장 건너편으로 건너간다(直橫渡也).” 곧 정면으로 하천을 건너다는 의미다.

黑水西河惟雍州：弱水既西，涇屬渭汭，漆·沮既從，灋水攸同。荊·岐既旅，終南·惇物至于鳥鼠。原隰底績，至于豬野。三危既宅，三苗丕敘。厥土惟黃壤，厥田惟上上，厥賦中下。厥貢惟球·琳·琅玕。浮于積石，至于龍門西河，會于渭汭。織皮毳毼·析支·渠搜，西戎即敘。

서쪽의 흑수로부터 산서성과 섬서성의 경계인 서하(황하)의 사이 지역을 옹주(雍州)라 한다. 약수의 물길이 소통된 후로는 서쪽방향으로 흘러 가고, 경수는 위수로 흘러 들어가고, 칠수와 저수의 물길이 소통되어 합류한 후에 위수로 유입되며 풍수 역시 북쪽으로 흘러가다 위수로 유입된다. 형산과 기산의 일대가 정비가 완료되고 종남산과 돈물산으로부터 조서산에 이르는 길까지 모두 정비가 마쳐졌다. 고지대의 평원과 저지대의 습지에 대한 정비 공정 역시 성공적으로 마쳐진 후 바로 저야택도 치리되었다. 삼위산이 정비된 후엔 사람이 거주할 만하게 되니 삼묘족이 안정된 후로는 아주 잘 따르게 되었다. 옹주의 토질은 황색의 진흙으로 경작지는 1 등급이고 부세는 6 등급에 속한다. 옹주의 공물로는 왕의 홀을 만드는 아름다운 옥과 아름다운 돌 그리고 진주가 있다. 공물은 적석산 부근의 황하로부터 용문 근처의 황하로 실어오고 혹은 위수로부터 황하로 실어 오는 배가 있었다. 곤륜·석지·거수에서는 짐승의 털로 짠 직물을 바쳤다. 서방의 읍족이 모두 안정되어 순종하였다.

[주석]

- 1) 흑수는 앞 참조. 서하(西河). 서하는 지금의 내몽고 탁극탁절(托克托折)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황하를 말한다. 섬서성 동관(潼關)일대의 섬서성과 산서성의 경계를 이루는 황하 물줄기이다. 기주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하라고 명명되었다. 옹주는 구주의 하나로 동쪽으로는 서하와 기주의 경계까지 남으로는 진령산맥과 양주의 경계, 서쪽은 흑수와 서역 그리고 북으로는 불확실하다. 대체로 지금의 섬서성 중부, 북부와 감숙성 대부분을 포함한다. 옹주는 옛날 강족(羌族)이 거주지역이었으며 염제와 황제의 부족 그리고 주족(周族)의 발원지이다.
- 2) 약수(弱水).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장액(張掖)군 록득(祿得)현의 강곡수(羌谷水)를 가리킨다. **지금의 감숙성 장액하**이다. 서송(徐松), 《서역수도기(西域水道記)》: “약수는 오늘날 흑하 또는 장액하라고 한다.” 호위의 《우공추지》에서는 약수가 산단위(山丹衛) 서남쪽의 궁석산(窮石山)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거연진(居延津)에 흘러 들어가는데 그 하류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약수는 《설문》엔 닢수(溺水)라 했고, 궁석산은 지금의 기련산(祁連山)이며 산단위는 감숙성의 산단(山丹)현**이라고 한다. 약수는 산단에서 서북쪽으로 흐르며 장액(張掖)·고대(高臺)·정신(鼎新)·액제(額濟)등을 지나 거연진으로 들어간다.
- 3) 경(涇), 경수. 경수는 발원지가 두 곳. **북쪽 발원지는 감숙성 고원(固原)현이고, 남쪽 발원지는 경원(涇源)현**인데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북쪽 발원지와 합류하고, 합류 후 동남쪽으로 경천(涇川)현에 이르러서 섬서성 경내로 들어간 후 고릉(高陵)에서 위수로 합류된다. 속(屬)은 入. 위에(渭汭)는 경수가 (위수에) 합류하는 위수 지역을 가리킨다.
- 4) 칠(漆): 칠수. 지금의 **섬서성 동천(銅川)시 동북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요(耀)현에서 저수와 합류한다. 저(沮), 저수. 섬서성 황요(黃耀)현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른다. 황릉(黃陵)의 남쪽을**

흐르고 다시 동쪽으로 흐르다가 칠수와 합해져서는 그 이름이 석천하(石川河)가 되고 동쪽으로 향해 부평(富平)에서 위수와 합류한다. 기종(既從)이란 칠수와 저수가 합해지고 다시 저수가 위수와 합류한다는 뜻.

- 5) 풍(澧), 풍(豐) 혹은 풍(豐)이라고도 한다. 풍수는 섬서성 로(盧)현 종남산(終南山)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위수와 합류하는데 그 옛 길은 이미 모두 없어졌다. 유(攸)는 소(所)의 의미. 동(同)은 풍수와 칠수, 저수가 동일하게 위수로 합류됨을 가리킴.
- 6) 형(荊)은 형산. 이 형산은 호북성 남장(南漳)현에 있는 형주의 형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조읍(朝邑: 지금의 섬서성 대려(大荔)현 동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일설엔 지금의 섬서성 부평(富平)현 서남쪽에 있는 조형산(條荊山)이라 한다. 기(岐), 기산. 지금의 섬서성 기산(岐山)현 경내 동북쪽에 있는 산과 부풍(扶風)현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한 산으로 이 두 산은 모두 기현에 있기 때문에 기산이라 부른다. 이 곳은 주(周)인의 발원지이다. 려(旅)는 길의 뜻으로 치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가리킴.
- 7) 종남(終南), 종남산. 섬서성 람전(藍田)과 미(郿)현 일대의 8백리에 걸친 진령산맥(秦嶺山脈). 또한 이 진령산맥의 주봉인 태백산(太白山)을 종남산이라고도 한다. 돈물(惇物)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호위는 태을산(太乙山)의 북봉(北峰)인 무공산(武功山)이라 했고, 정대창(程大昌)은 종남산이 높으면 서도 넓어 산물이 풍부한 까닭에 종남산의 ‘돈물’이라 한 것이지 산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호위의 설을 따른다. 조서(鳥鼠), 산 이름. 감숙성 위원(涇源)현 서쪽에 자리한 일명 청작산(靑雀山). 《공전》: “새와 쥐가 암컷과 수컷으로 같은 동굴에 거처하였기에 산 이름을 조서라 한 것이다. 위수의 발원지이다(鳥鼠其爲雄雌, 同穴處此, 山遂名曰鳥鼠).”⁴⁹
- 8) 원습(原隰): 정현은 지명이라고 풀이, 즉 “원습은 빈(邠) 지역에 있는데 지금의 빈주(邠州)이다.”라고 말한 바 이 곳은 현재의 섬서성 순읍(旬邑), 빈(邠)현 일대이다. (이에 반해) 장수절(張守節)은 《사기정의》에서 “원은 고지대 평원; 습은 저지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원습이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양대침(楊大침)은 《우공지리금석(禹貢地理今釋)》에서 “지세의 고저는 서로 맞물리는 것으로 평야가 있으면 낮은 습지가 있다. 평야보다 낮은 지역을 습이라 한다. 진중(秦中) 지역에는 평야가 유독 많은데 빈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다. 오늘날의 섬서성 북부, 감숙성 동부지역은 황토 고원에 속하는데 침식현상으로 인해 깊고 좁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계곡 사이에는 큰 면적의 량(梁)과 원(原)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동지원(董志原), 백징원(白澄原) 그리고 포부원(蒲富原) 등이 그러하다⁵⁰.
- 9) 저야(猪野): 저야택으로 고대 휴도택(休屠澤). 지금의 감숙성 민근(民勤)현의 청토호(靑土湖) 혹은 백정해(白亭海)이다. 어떤 이는 옹주의 호수를 널리 가리키는 말이라 한다⁵¹.

⁴⁹ 온전한 이름은 ‘鳥鼠同穴山’ 甘肅·靑海·新疆·西藏 등의 황야지대에 빈번하게 보이는 조서동혈현상(지형의 한 유형)이 많은데서 유래.

⁵⁰ 《全解》에서 임지기(林之奇)는 “《이아》: ‘廣平曰原’, ‘下濕曰隰’이라 하니 즉 이는 넓고 평평하고 낮고 습기찬 지대는 모두 원습(原隰)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공》의 ‘原隰底績至于猪野’라는 문맥에선 당연히 가리키는 한정된 지역이 있으므로 범칭한 것이 아니다. 정현은 《시》의 ‘度其隰原’에서의 습원이 곧 원습이며 邠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그럴 듯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750.

⁵¹ 楊筠如, 《尚書覈詁》: “猪(……)都, 모두澤(호수)을 가리킨다. 들에 저수지가 있는 것은 마치 평원에 습지가 있는

- 10) **삼위(三危)**: 《좌전·소공9년》의 두예(杜預)주, “삼위산은 과주(瓜州)에 위치하는데 **현재의 둔황(敦煌)**이다.” 《사기·색은》에서 《하도(河圖)》를 인용하여 “삼위산은 조서산의 서남쪽에 자리하는데 기산과는 서로 멀다.” 이 말은 삼위산이 과주에 있지 않고 조서산과 기산 일대라고 생각한 것이다. 고흥강은 《우공》에서의 삼위는 서한의 풍(馮)奉世가 강(羌)족을 정벌할 때 오른 서(西)급산으로 고대의 천수군 일대라고 주장했다⁵². 기택(既宅)은 안정되었다라는 의미.
- 11) 삼묘는 《요전》을 참조⁵³. 비(丕)는 크다(大). 敍는 따르다(順).
- 12) 황양(黃壤), 신수치, 《우공신해(禹貢新解)》: “웅주는 현재의 섬서지방인데 갈색석회토가 많은데 원생 황토에서 발육된 것과 관련된다. 이것을 흑 황양이라고 부른 것 같다.
- 13) 구(球), 정현은 미옥(美玉)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제왕의 홀은 이것으로 만들었다. 림(琳), 미석(美石). 량간(琅玕), 《설문》에 옥의 일종이라고 했다.
- 14) **적석(積石)**은 산 이름. 지금의 **청해성과 감숙성 경계의 청해성 귀덕(貴德)현**으로 황하가 적석산의 동쪽을 지나간다⁵⁴.
- 15) **용문(龍門)**은 산 이름. **지금의 섬서성 한성(漢城)현**에 있는데 동쪽으로 산서성 하진격(河津隔)과 서로 바라본다. 《수경주(水經注)》: “옛 대우(大禹)가(家) 적석산의 황하를 다스리고 량산(梁山)의 막힌 곳을 뚫어 소통시켰는데 이 곳을 가리킨다. 즉 용문(龍門)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용문은 호구(壺口)아래 7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문구(禹門口)라고 부른다. 양쪽 절벽이 아주 높이 대치하여 깊은 계곡을 만들고 중간에는 거석이 있어 물살이 아주 거센 것이 파죽지세와 같다. 계곡의 입구는 급작스레 넓다. 전해 오는 말로는 이 용문이 대우가 치수하면서 뚫은 것으로 황하의 물이 산의 협곡으로 빙빙 돌아서 올라가도록 한 것이라 하는데 근대의 지질학자 정문강(丁文江)이 직접 고찰한 결과 “추정만 바에 의거하면, 현재의 발달된 기술로도 이 정도로 험준한 산의 협곡을 파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사천 년 전의 일임에야.” 《고사변》제1책
- 16) 회(會), 《공전(孔傳)》: “물이 역류하는 것을 회(會)라 한다. 위수의 북쪽에서부터 역류하여 서쪽으로 올라간다.” 호위는 이에 대해 《전》의 “역류하는 것을 회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수북쪽으로부터 역류하여 물이 서쪽으로 올라간다.”에서 ‘서(西)’자는 ‘이(而)’자로 써야 한다. 남선(南船)이 위수를 출발한 후 하수를 역류하여 상류로 올라간 후 북선(北船)과 합류한다는 것이다. 孔疏는 이 오자를 알지 못해 풀이하기를 ‘우가 백제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서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원습(原隰)은 비옥한 땅이고 야택(野澤)은 황무지를 말하므로 먼저 원습을 정비한 후에 저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뜻을 상상할 만 하다. 한나라 때에 이르러 빈 지역이 웅주의 원습이며 휴도는 웅주의 저야라고 생각한 것 역시 그 지형을 보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한지》에 ‘휴도택을 세간에서는 서해(西海)라 부르고 (……) 저야(猪野)를 세간에서 동해(東海)라고 불렀으니 이로써 휴도가 반드시 저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이 역시 일리가 있다. 顧頡剛·劉起鈺, 앞의 책, p. 751.

⁵² 삼위산의 위치에 대해선 여러가지 이설이 있다. 둔황군(敦煌郡) 둔황현(敦煌縣)설, 금성군(金城郡) 하관현(河關縣); 현재의 청해 同仁縣)설, 위원현(渭原縣) 조서산(鳥鼠山)서남과 민산(岷山)에 면해 있다는설, 적석산(積石山) 西南 설, 고상주(古桑州) 경내에 있다는 설, 사천(四川) 경내설, 운남(雲南) 려강부(麗江府)설, 대리부(大理府) 운용주(雲龍州)설, 서장삼경(西藏三境) 등. 顧頡剛·劉起鈺, 앞의 책, p. 751.

⁵³ 《요전》: “삼묘족을 삼위로 강제로 옮기다(竄三苗于三危)”, “(삼묘족 중 일부)를 북쪽으로 옮기다(分北三苗).”

⁵⁴ 《한서·지리지》: “(金城郡 河關縣) 적석산이 서남쪽 강(羌) 지역에 있다. 황하의 물길이 塞外로 향하여 동북쪽으로 새내(내몽고)로 흘러간다.”

쪽으로부터 다시 옹주 경계로 들어갔다’ 고 했으니 어불성설이다. 위내는 곧 위수가 황하로 합류하는 곳이다.

- 17) 직피(織皮)는 양주(梁州)를 참조. 채침, 《서집전》: “곤륜(崑崙)·석지(析支)·거수(渠搜) 등 삼국은 모두 모피를 공물로 바친 까닭에 직피로 말을 이었다. 삼국은 모두 흉족의 부락이기에 서융(西戎)이라 총칭한 것이다.” 즉(卽)은 취(就)다. 곤륜은 예전부터 산 이름이며 현재의 곤륜산이라고 여겨왔다. 그 위치는 신장성과 서장자치구의 경계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데 남북으로 약 2500km에 달하며 총령(葱嶺)에서부터 동쪽으로 청해(青海)에 다다른다. 고대의 곤륜산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이 있는데 ①곤륜은 곧 巴顏喀勒山이다; ②기련산(祁連山)이다; ③청해의 동쪽에 있는 瑪沁雪山이다; ④ 風底斯山이다; ⑤喜馬拉雅山이 곤륜이다; ⑥오늘날의 곤륜산이 고대의 곤륜산이다; ⑦총령(葱嶺)을 가리킨다. 이장전(李長傳)은 “《우공》에서 언급한 곤륜은 나라 이름이며, 한편으로는 종족의 이름으로 곤륜산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당시의 지리 지식으로 볼 때 곤륜산의 위치는 기련산과 청해의 북쪽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장전의 설을 따른다. 析支는 《후한서·서강전(西羌傳)》: “순이 사흉을 삼위(三危) 지역으로 유배보낸 바; (이 곳은) 하관(河關)의 서남쪽으로 바로 강족(羌族)의 영역이다. 사지(賜支)에 접해있고 河首(황하의 수원지)에 이르는데 먼먼히 천리에 달한다. 사지(賜支)는 곧 《우공》에서 말한 석지이다.” 《수경주》는 사마표(司馬彪)의 말을 인용하여 “西羌은 석지를 기준으로 서쪽방향인데 하수(황하의 수원지) 근처까지 접한다. 황하의 물길이 굽어 동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석지의 땅을 지나가니 이를 하곡(河曲)이라 한다.” 여기는 오늘날의 청해성 적석산(積石山)으로부터 감숙성 임도(臨洮) 일대에 해당한다. 거수(渠搜)는 《한서·지리지》: “삭방군(朔方郡)에 거수현이 있다.” 라 하는데 현재의 내몽고 鄂托克旗의 남쪽에 옛 삭방성이 있다. 일설에는 대완(大宛)의 북쪽 경계라고 하는데 현재의 烏茲別克 경내에 해당하는데 너무 멀다.

導岍及岐，至於荊山，逾於河。壺口·雷首，至於太岳。底柱·析城，至於王屋。太行·恆山，至於碣石，入於海。西傾·朱圉·烏鼠，至於太華；熊耳·外方·桐柏，至於陪尾。導嶓冢至於荊山；內方至於大別。岷山之陽，至於衡山，過九江，至於敷淺原。

견산과 기산의 길을 정비하여 소통시킨 후 북조형산에 도달하고 (가로막고 있는) 황하를 건너갔다. 또한 호구산에서 뇌수산에 이르는 도로를 열어 태악산까지 도달하였고, 지주산과 석성산으로부터 왕옥산에 이르기까지 길을 통하게 했다. 태행산과 항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갈석산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모두 뚫고 여기에서 발해로 들어가도록 했다. 서경산·주어산·조서산으로부터 바로 화산으로 통하게 하고; 또 응이산·외방산·동백산으로부터 배미산에 이르는 길까지 모두 개통하였다. 파총산으로부터 도로를 뚫어 형산에 이르는 길을 모두 개통하였고; 내방산에서 대별산에 이르는 길을 개통하였다. 민산의 남쪽부터 장강 북안의 형산에 이르는 길을 모두 통하게 하고 장강 북안의 물길을 건너 역시 장강 북안의 부천원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모든 길이 이미 개통되었다.

[주석]

1) 도(導)는 도(道)로써 길을 소통시킴을 의미하니 앞서의 도하(導河)가 물길을 소통시킨다는 것과는 구별이 된다. 어떤 이는 순행이니 곧 수산간목(隨山刊木)의 의미라고도 말한다⁵⁵. 견(岍)은 산의 이름

⁵⁵ ‘도산(導山)’의 의미에 대한 설은 크게 세 가지. ①도산을 곧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치산통수(治山通水)’ 혹은 ‘수산준천(隨山濬川)’의 뜻으로 본 것으로 《孔傳》과 소식(蘇軾)·섭몽득(葉夢得)·임지기(林之奇) 등이 대표적이다. 섭몽득(葉夢得), 《書傳》: “導山이란 두 산 사이의 하천(계곡)을 깊게 파내어 큰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여 함께 바다로 유입되게 하는 일이다.” ②《우공》에 서술된 산맥의 체계로 탐구하는 방법이다. 한나라 때에 시작된 ‘삼조사열(三條四列)’의 설은 그 후로 주희(朱熹)·채침(蔡沈) 등에 의해 여러 설이 제기되었지만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다. 소식(蘇軾), 《書傳》: “땅에 산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혈맥이 있는 것과 같다. (……)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하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 비록 장강과 황하라도 이를 끊을 수 없다. 진(秦)의 몽념(蒙恬)이 지맥을 언급한 이래로 반고(班固)·마융(馬融)·왕숙(王肅) 등이 《우공》에는 모두 3條가 있다는 설을 말했고, 정현은 4례가 있다고 했으니 고대의 뛰어난 인물들은 모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북조산(北條山)은 견산과 기산으로부터 시작되어 (……) 바다로 향하니 이 맥락은 황하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임지기 역시 이 설을 좇고 있다. 송의 朱熹·蔡沈은 이들의 지맥설에 반대했고 오히려 새로이 자신들의 2條설을 주창했다. 주희는 “도산은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베풀어지므로 도(導)라는 글자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2조로 나누고 장강과 황하를 그 버리(紀)로 삼는다.” 채침은 주희의 설을 이어 새로이 남과 북의 2조로 나누고 장강과 황하로 버리로 삼았으며 그리고 다시 이 두 조를 각각 둘로 나눴다. 즉, 北條大河北境(북조 중 황하 이북에 있는 산들)·北條大河南境; 南條江漢北境·南條江漢南境이 그것이다. ③명말청초의 왕부지(王夫之)는 이러한 지맥설 등은 《우공》의 본 뜻이 아니라 그저 주관적인 생각일뿐이라고 일축한다. 《폐소(稗疏)》: “무릇 導란 글자는 행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하천은 (스스로) 흘러갈 수 있고 우 임금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導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은 우뚝 서 있어 움직일 수 없으니 어찌 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導란 곧 길을 만든다는 뜻이다. 홍수가 범람하여 초목이 무성하고 저지대는 물이 고여 있어 수레가 지나갈 수 없다. 우가 이에 산 비탈을 따라가며 그 높고 매마름을 살피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정비하여 통행할 수 있게 길을 깎아 내어 닦는(刊旅) 것이 바로 導라는 것이다.” 왕부지는 도란 길은 내는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우가 ‘도구산(導九山)’을 통해 9개의 큰 길을 닦아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견산·기산·형산 세 산을 정비하여 ‘위북지도(渭北之道)’를 호구·뇌수·태악 세 산을 정비하여 ‘하동지도(河東之道)’를 지주·석성·왕옥·태행 네 산을 정비하여 ‘하북지도(河北之道)’라는 대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외 ‘유연지도(幽燕之道)’·‘관서위남지도(關西渭南之道)’·‘락남초색지도(雒南楚塞之道)’·‘한남촉북지도(漢南蜀北之道)’·‘한남강북지도(漢南江北之道)’·‘천호지도(川湖之道)’ 등이 있다. 顧剛嗣·劉起鈺, 앞의 책, pp. 761~767.

으로 견(沂)산이라고도 한다⁵⁶. 《한서》와 《후한지》모두 견(沂)산이 섬서성 룡(隴)현의 서남쪽에 있는 오(吳)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岐)는 기산으로 섬서성 기산(岐山)현의 동북쪽에 자리한다. 고흥강, “물길을 소통시키기에 앞서 반드시 산길을 먼저 소통시켜야 하니 견산·기산·형산 이 세 산은 모두 웅주(雍州)의 경내에 있는데 웅주는 지세가 높고, 견산에서는 견수(沂水)가 발원하며 기산과 형산은 칠수(漆水)와 저수(沮水) 그리고 위수(渭水)가 지나가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첫머리에 견산과 기산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중국고대지리명저선독》제1집)

- 2) (여기의) 형산(荊山)은 형주(荊州)에 있는 산이 아니라 (웅주에 있는) 형산으로 조읍(朝邑) 경내에 있다.
- 3) 유(逾)란 산맥이 황하로 인해 단절된 것으로 웅주 경내를 넘어 기주의 경내로 들어선다. 앞서 경문의 공물 이동경로에서의 유(逾)가 물길이 끊어져 배를 버리고 육로로 이동한 뜻과는 상반된 것이다⁵⁷.
- 4) 호구(壺口)는 산 이름으로 기주에서 나온 바 있다. 뇌수(雷首) 역시 산 이름으로 《한서·지리지》에 “(하동군(河東郡)) 포반(蒲反), …… 뇌수(雷首)산이 그 남쪽에 자리한다.” 오늘날의 산서성 영제(永濟)현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중조산맥(中條山脈)에 속한 산이다.
- 5) 태악(太岳)은 산 이름으로 산서성 곽(霍)현의 동쪽에 자리한다⁵⁸.
- 6) 지주(底柱)는 산 이름으로 삼문산(三門山)이라고도 한다. 산서성 평륙(平陸)현의 동북쪽 50리 떨어진 황하의 물길 속에 있으며 남쪽은 하남성의 삼문협시(三門峽市)에 면하고 있다. 《수경·하수주(河水注)》: “옛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산과 언덕이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파내고 산을 무너뜨려 황하를 통하게 하였다. 이에 황하의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산을 감싸 안으며 지나가는데 이럴 경우 산이 마치 기둥처럼 물 속에 우뚝 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주(底柱)라고 불렀고, 또 삼문이라고 부른 것이다.” 삼문을 남쪽은 귀문(鬼門), 가운데는 신문(神門) 그리고 북쪽은 인문(人門)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은 삼문협(三門峽)이라고 부른다.
석성(析城)은 산 이름. 산서성 양성(陽城)현의 서남쪽에 자리한다. 《한서·지리지》: “하동군(河東郡) 수택: 《우공》의 석성산이 그 서남쪽에 있다.” 《산서통지(山西通志)》: “산 봉우리 사면이 마치 성처럼 높고 크며 우뚝 서 있다. 여러 산들이 멀리 뻗어 나오는데 너비는 40리이다.”
- 7) 왕옥(王屋)은 산 이름으로 남쪽으로는 하남성 제원(濟源)시에 걸쳐있고, 서쪽으로는 산서성 원곡(垣曲)현, 북쪽으로는 하북성에 이르는데 산이 마치 세 겹으로 되어 있는 듯 보여 왕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8) 태행산(太行山)은 남쪽으로는 하남성 제원(濟源)시에서 북쪽으로는 하북성의 북부까지 이르는 수 천 리에 달하는 산맥으로 현재의 하남성, 산서성 그리고 하북성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태행산(맥)은 서

⁵⁶ 《설문》에 견(沂)자는 있으나 견(岍)자는 없다.
⁵⁷ ‘유(逾)’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음. 《공소(孔疏)》: “황하를 건넜다(逾)라는 것은 산맥의 [흐름이] 물을 건너 이어졌다는 의미로 이 곳에서 산의 형세가 서로 [건너편과] 바라보는 형상이니 산맥의 흐름이 황하를 건너 동쪽으로 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반면 임지기나 채침 등은 《시집전》: “유(逾)란 우(禹)가 형산에서 황하를 건넜다는 뜻.” 으로 산맥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굴만리(屈萬里)가 《집석(集釋)》에서 말하듯이 그저 “형산이 동쪽으로 황하에 접하고 있어 마치 산이 황하를 넘어 간듯이 보이므로 황하를 건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p. 769~770.
⁵⁸ 《주례·職方氏》: “河內曰冀州, 其山鎮曰霍山.”

쪽은 완만하고 동쪽은 가파르는데 황하로 끊기고 분할되어 동서로 계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옛날에는 형(陘)이라 불렀는데 유명한 태행팔형(太行八陘)은 교통의 요충지다.

항산(恒山)은 오악 중의 하나인 북악(北岳)으로 《한서·지리지》: “(상산군(常山郡)) 상곡양(上曲陽): 항산의 북쪽계곡이 그 서북쪽에 있다.” 서한 때에 한문제 유향(劉恆)의 이름을 피하여 상산(常山)이라고 개명했고 주 무제 평제에 옛 이름으로 고쳤다. 대무산(大茂山)이라고도 부른다.

9) **갈석(礪石)**은 기주에서 다룬 바 있다.

10) **서경산(西傾山)**은 용주를 참조

11) **주어(朱圉)**는 산 이름으로 《한서·지리지》: “(천수군(天水郡))기(冀)현, 《우공》에서 말한 주어산이 현의 남쪽 오중취(梧中聚)에 있다.” 한나라 때의 기(冀)현은 **현재의 감숙성 감곡(甘谷)현**으로 주어산은 그 서남쪽으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12) **태화(太華)**는 곧 **화산(華山)**으로 용주에 보임.

13) **웅이(熊耳)**는 산 이름으로 《한서·지리지》: “(홍농군(弘農郡))로씨(盧氏): 웅이산이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수(伊水)가 발원한다.” 현재의 하남성 로씨(盧氏)현 서남쪽에 있다. 채침은 《우공》에서 언급된 웅이산은 이 로씨현의 웅이산이 아니라고 했지만 옳지 않다. **진령산맥(秦嶺山脈)에서 동쪽 방향으로 낙수(洛水)와 이수(伊水)의 사이에 있는 산이 곧 웅이산맥이다.**

14) **외방(外方)** 역시 산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하남성 등봉(登封) 경내에 있는 숭산(嵩山)**을 가리키며 오악 중의 중악(中岳)이고 태실(太室)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김리상(金履祥)은 “외방을 구설에 숭산이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숭고는 중악이라고 불리는데 어찌 외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강하의 내방산과 함께 서로 내외가 된다.” 오늘날의 하남성 숭(崇)현 동북쪽의 륜택산(陸澤山)을 《신당서·지리지》에서 방산(方山)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이는 이 산이 옛날의 외방산이라고 한다. 일리가 있다.

15) **동백(桐柏)**, 산 이름으로 **하남성 동백(桐柏)현의 서쪽에 자리한다. 회하(淮河)의 발원지다.**

16) **배미(陪尾)**, 산 이름으로 《사기》에는 부미(負尾)로, 《한서·지리지》에는 배미(倍尾)로 되어 있다. 배미산의 소재지는 **일설엔 오늘날의 호북성 안륙(安陸)현 동북에 있다하고 일설엔 산동성 사수(泗水)현의 동쪽에 있다고도 한다.**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에는 사수(泗水)가 배미산에서 발원한다고 말한다. 안륙현의 배미산은 회하가 경유하는 곳이 아니며 사수와 회수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두 설의 배미산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리적으로 안륙현의 있는 배미산이 비교적 타당하고 회하의 경로와는 다른 곳에 배미산이 위치할 수도 있다.

17) **파총(嶓冢)**은 량주(樑州) 참조. 형산(荊山), 형주(荊州)의 형산으로 한수(漢水)가 경유한다. 《문선(文選)·남도부(南都賦)》 이선(李善)의 주에 “한수(漢水)는 형산(荊山)에서 한 갈래 지류가 생기는데 창랑(滄浪)이다.” 위치는 호북성 남장(南漳)현 일대이다.

18) **내방(內方)**, 산 이름으로 **호북성 종상(鍾祥)현의 서남쪽에 자리한다.** 한수에 끊겨 있고 형문(荊門)과 함께 경계를 이루는데 **오늘날은 장산(章山)이라고 불리는데 마량산(馬良山) 혹은 마선산(馬仙山)이라고 한다.** 고힐강은 이 산이 너무 낮고 작아서 내방산은 지금의 호북성 무한(武漢)에 있는 대홍산(大洪山)이 아닌가 하는데 일리가 있다. **대별(大別)**, 산 이름. **하남성, 호북성 그리고 안휘성 등 세 성의**

경계를 이룬다. 《한서·지리지》: “(육안국(六安國))안풍(安豐), 《우공》에서 언급한 대별산이 그 서남쪽에 있다.” 한나라 때의 안풍현은 **현재의 안휘성 광구(霍丘)현** 서남쪽에 해당하고 대별산은 현의 서남쪽에 있으며 하남성 고시(固始)현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대별산의 동쪽 지구는 한수(漢水) 유역에 있지 않고 오히려 회하(淮河)가 지나가는 길에 있다. 이에 고힐강은 이곳과 《우공》에서 말하는 “양수의 물길을 동쪽으로 이끌면 한수가 되고, (한수가)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면 창랑지수(滄浪之水)가 되는데 삼서를 지나 대별산에 이르러서 남쪽으로 장강에 유입된다.” 라고 하는 문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송나라 당시 다수의 학자들은 대별산이 호북성 무한(武漢)에 있는 귀산(龜山)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왕선겸(王先謙)은 《한서보주(漢書補注)》에서 침요(沈堯)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별산은 광주(光州)의 서남쪽, 황주(黃州)의 서북쪽, 한양(漢陽)의 동북쪽, 광구(霍丘)의 서남쪽에 자리한다. 반고의 《한서·지리지》는 안풍에 속한다고 했지만 산이 동쪽에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보면, 그 서남쪽은 곧바로 한수에 도달해서 장강에 유입되는 곳이므로 상성(商城) 서남쪽의 황피(黃陂), 마성(麻城)에 있는 산을 옛 사람들은 대별이라고 불렀다.” 또 《독사망략(讀史方略)》에는 “소별산(小別山)·대별산(大別山)은 한수(漢水)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백거(柏舉)의 남쪽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백거(柏舉)는 오늘날의 호북성 마성(麻城)이다.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매우 근거가 있다. 대별산은 동백산의 서쪽으로부터 서북쪽과 동남 방향으로 뻗어나가 하남성(豫), 호북성(鄂) 그리고 안휘성(皖) 이 세 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장강과 회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길이는 약 200킬로미터로 이 대별산은 호북성 한수 유역에 있어야지 이와 멀리 떨어진 회화 유역의 광구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된다.

- 19) **민산(岷山)**은 다수의 주석가들이 **사천성 송반(松潘)현의 서북쪽에** 있는 민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경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민산은 경문에서 말한 민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마땅히 오늘날의 호북성 일대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 20) **형산(衡山)**에 대해 옛 다수의 주석들이 남악(南嶽)인 형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위는 이 형산이 장강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 21) **구강(九江)**은 앞서 다룬 바 있다.
- 22) **부천원(敷淺原)**은 산 이름이다. 일설에는 **현재의 강서성 로산(廬山)이라고 하고 혹은 강서성 덕안(德安)현** 경내에 있다고도 한다. 문맥을 살펴볼 때 응당 이 산은 구강 이하의 장강 북쪽 가에 위치해야 한다. **고힐강은 현재의 안휘성 광구현의 남쪽이라고 고증했는데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

導⁵⁹弱水，至于合黎，餘波入于流沙。

導黑水，至于三危，入于南海。

導河積石，至於龍門；南至於華陰；東至於底柱；又東至於孟津，東過洛汭，至於大伾；北過降水，至於大陸；又北播為九河，同為逆河⁶⁰，入于海。

嶓冢導漾，東流為漢，又東為滄浪之水，過三澨，至於大別；南入於江。東匯澤為彭蠡，東為北江，入于海。

岷山導江，東別為沱；又東至於澧，過九江，至於東陵，東迤北會於匯；東為中江，入于海。

導沔水，東流為濟，入于河，溢為滎；東出于陶丘北，又東至于荷；又東北會于汶；又北東入于海。

導淮自桐柏，東會于泗·沂，東入于海。

導渭自鳥鼠同穴，東會于澧，又東會于涇，又東過漆·沮，入于河。

導洛自熊耳，東北會於澗·瀘，又東會于伊，又東北入于河。

약수의 물길을 소통시켜 합려산에 이르도록 하고 그 하류는 사막으로 인도하였다.

흑수의 물길을 소통시켜 삼위산에 이르도록 하여 남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황하의 물길을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적석산으로부터 용문산까지 통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쪽으로 화산의 북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다시 동쪽으로 향해 지주산까지 통하게 하고; 다시 동쪽으로 맹진에 도달하게 하고, 동쪽으로 낙수가 황하로 들어가는 지역을 경유하여 대비산에 이르도록 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하를 지나 대륙택에 도달하게 하였으며; 다시 동북 방향으로 여러 지류로 나뉘어지는데 이 여러 물길들은 함께 황하의 물길을 이어서 순조롭게 발해로 들어갔다.

양수의 물길을 소통시켰는데, 파총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양수의 이름이) 한수가 되었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면 (그 이름이) 창랑지수가 되었으며; 삼서수를 경유하여 대별산까지 통하게 하였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강으로 유입되었다. 동쪽으로 향하여 물길이 휘돌아 모여 팽려택이 형성되었는데 팽려택의 동쪽에 있는 장강을 북강이라 칭하였는데 바로 바다로 들어간다.

장강의 물길을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민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을 향해 갈라져 나온 지류를 통칭하여 타강이라 했고; 다시 동쪽으로 운수의 지류인 풍수까지 통하여 이르도록 했으며, 다시 동쪽으로 장강 북안의 많은 지류들을 경유하여 동릉까지 이르도록하고, 다시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흘러 가서 장강 북안의 팽려택으로 물길이 모이도록 했는데;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 장강을 중강이라 칭하고 바로 바다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운수의 물길을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면 그 이름이 제수가 되어 황하로

⁵⁹ 皮錫瑞, 《고증(考證)》: “《금문상서》등을 살펴보면, 삼조(三條)의 설이 있는데 ‘導山’과 ‘導水’ 모두에 있다. 馬融은 ‘북조(北條)는 황하, 중조(中條)에는 위수(渭水)·낙수(洛水)·제수(濟水)·회수(淮水) 그리고 남조(南條)에는 장강(長江)과 한수(漢水)’가 있다.”

⁶⁰ 왕부지(王夫之), 《패소(稗疏)》: “하천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은 (……) 필경 바다 근처이다. 썰물때에는 이를 따라 바다로 물이 나아가고, 밀물때에는 거꾸로 바닷물이 강으로 유입된다. (……) 역류하는 바닷물을 (하천)이 받아들여 게되므로 ‘역하(逆河)’라고 한다.” “同, 皆也.”

유입되는데 제수는 황하의 남쪽 건너편으로 분출되어 나와서 형택을 형성하고 동쪽으로 도구의 북쪽지역을 경유하여 다시 동쪽으로 하택으로 흘러 모인다; 다시 동북쪽으로 흘러 가서 문수와 합해진후 북쪽으로 흘러가다가 동쪽으로 물길이 꺾여 바다로 통하게 되었다.

회하를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동백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며 사수·기수와 합류한 후 다시 동쪽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위수를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조서산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향하다가 풍수와 합류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다 경수와 합류하며; 다시 동쪽으로 칠수와 저수를 경유하여 황하로 통한다.

낙수를 소통시켜 인도하였는데, 응이산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향하다가 간수·전수와 합류한 후; 다시 동북쪽으로 흘러 이수과 합류하고선 동북쪽으로 향해 가며 황하로 바로 통한다.

[주석]

- 1) 약수(弱水)는 옹주에서 다뤘다.
- 2) **합려(合黎)**에 대해 마옹은 지명이라고 생각했고, 정현은 산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회남자·지형편(地形篇)》엔 궁석산(窮石山)이라 했고, 《괄지지(括地志)》는 란문산(蘭門山)이라고 했다. 한편 《공전》은 합려를 물 이름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장액하(張掖河)가 곧 옛 합려수로 그 동쪽에 합려산이 있다고 한다. **이상 세 주장이 가리키는 곳은 모두 현재의 감숙성이다.**
- 3) 여파(餘波)는 곧 황하의 하류. **류사(流沙)**는 《한서·지리지》:“(장액군(張掖郡))거연(居延): 거연택(居延澤)이 그 동북쪽에 있는데 고문에서는 이곳을 류사라고 한다.”《수경·우공산수택지편(禹貢山水澤地篇)》:“류사는 거연(居延)현의 동북쪽에 있는데 한나라 당시 현고성(縣故城)의 동북쪽이다. 《상서》에서 말하는 류사는 그 모양이 달이 해 다섯을 낳는 것 같다; 약수(弱水)가 류사로 유입되는데 모래와 물이 함께 흐른다.” 거연진은 지금의 내몽고 액제납기(額濟納旗)의 거연해로 동서로 두 개의 정박지가 있는데 동쪽의 이름은 색과락이(索果諾爾)로 장액하가 흘러 들어오는 곳인데 장액하는 곧 옛날의 약수이다. 서쪽 정박지는 갈순락이(曠順諾爾)라고 하는데 목림하(穆林河)가 유입되는 곳이다. 류사는 이 일대의 阿拉善 사막으로 여파가 사막으로 흘러 들어온 후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 4) 흑수(黑水), 양주 참조
- 5) 삼위(三危), 옹주 참조
- 6) **남해(南海)**에 대해선 역대로 주석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남해는 당연히 삼위의 남쪽에 자리해야 하나 옛 사람들은 상상 속의 남해라고 여겼다. 그러나 위원(魏源)은 “옥문안서(玉門安西)의 흑하가 돈황(敦煌)에 이르러서는 삼위의 당하(黨河)가 합해지는데 서남쪽으로 흘러 흑해로 들어간다. 즉 오늘날의 대, 소색등해(小色騰海)인데 다시 땅 밑으로 흘러 청해(靑海)로 들어간다. 청색과 흑색은 비슷한 색이고 또한 정남쪽에 위치한다.” 《감숙부지(甘肅府志)》에도 오늘날의 청해가 《우공》의 남해에 해당하며 그 지리적 위치 또한 가장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 7) 적석(積石), 옹주 참조
- 8) 용문(龍門), 옹주 참조
- 9) 화음(華陰)은 화산의 북쪽.

- 10) 지주(底柱), 도수 참조
- 11) **맹진(孟津)**, 고대 황하의 나루터로 **현재의 하남성 맹(孟)현**의 남쪽 18리 떨어진 황하 북쪽가이다. 황하 물길의 변화로 현재 황하 물길은 맹진(孟津)의 북쪽에 있다. 주 무왕이 은의 주를 토벌할 때 팔백의 제후들을 이 곳에 모이도록 한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맹진을 기준으로 상류의 황하 물길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물길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우의 치수는 황하의 지류를 가리킨다. 맹진을 지나쳐 하류의 황하는 화북평원으로 들어간 후 물길의 변천이 매우 복잡하니 황하를 다스림은 당연히 맹진을 지나친 이후의 황하와 그 지류를 가리킨다.
- 12) **낙예(洛汭)**, 낙수가 황하로 유입되는 주변으로 **하남성 공현(鞏縣)**에 낙수의 어구가 있다.
- 13) **대비(大伾)**⁶¹,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하남성 형양(滎陽) 사수진(汜水鎮)으로 옛 성고(成阜)현 고성(故成)이 비(伾)에 있었다는 것으로 담기양(譚其驤)이 그 설을 고증하였고, 또 하나는 대비산(大伾山)이 오늘날의 하남성 준(浚)현에 있다는 것으로 사념해(史念海)가 주장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따른다. 황하의 범람은 주로 준현의 대비산 이하에서 일어난다.
- 14) **강수(降水)**, 강(降)은 강(물수변)으로도 쓴다. 고흥강은 장수(漳水)의 상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산서성 둔류(屯留)에서 하남성 임(林)현과 하북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황하로 들어가는 지역이다. **현재의 하북성 비향(肥鄉)과 곡주(曲周)의 사이**이다.
- 15) 대륙(大陸)은 대륙택(大陸澤)으로 기주 참조.
- 16) 파(播)는 분산 혹은 분포의 뜻. 구하(九河)는 연주 참조. 역(逆)은 맞이하고 받아 잇는 의미.
- 17) **파총(嶧冢)**은 산 이름으로 량주 참조. 양(漾)은 양(養)으로도 쓰며 **양수(漾水)**를 말하고 한수(漢水)의 상류를 가리키는데 파총산에서 발원한다. 물이 동북쪽으로 흘러 섬서성 면(沔)현을 지나치고, 서남쪽에서 면수(沔水)와 합한 후 다시 동쪽으로 포성(褒城)을 지나친 후 포수(褒水)와 합류한 후 비로소 한수(漢水)라고 부른다. **창랑지수(滄浪之水)**는 《초사·어부(漁父)》에 처음 보이는데 “창랑지수가 맑으니 갯끈을 씻을 만 하다.” 《수경》: “한수가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굽어서는 무당(武當)현(현재의 균현)의 동북쪽을 지나친다.” 이에 려도원(酈道元)이 주석하기를 “현의 서북쪽 40리 한수 가운데에 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창랑주라 한다. …… 물이 형산(荊山)에서 비롯되어 동남쪽으로 흘러 가면서 창랑지수가 된다.” 《상서·우공》의 양수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면 한수라고 하고 또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면 창랑지수라고 하는데 지나친다(過)라고 하지 않고 ‘되다(爲)’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물길이 들어 오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대체로 한수와 면수를 아래로 내려 오면서 창랑지수라고 통칭한 것일 뿐이다. 호위(胡渭)의 《우공추지(禹貢錐指)》에서는 “이백이 《양양가(襄陽歌)》에서 읊은 ‘漢水鴨興綠’ 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것은 곧 **창랑지수는 한수 중류의 균현에서 양양 일대에 이르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장강을 호북성에서는 형**

⁶¹ 《이아》에 비(伾)는 곧 배(坯)이다. ‘비(伾)’ 자에 대한 해석엔 두 가지가 있다. 《이아·석산(釋山)》: “再成, 英, 一成, 坯.” 또 하나는 《설문》: “坯, 丘再成者也.” 《위공전》에서도 《설문》과 동일하게 “山再成曰坯.” 라 하고 있다. 그런데 《수경·河水注》에 보면 “《이아》에 ‘山一成謂之坯’ 라 하며 허신과 여침 등이 모두 ‘丘, 一成也.’ 라 했다.” 이로써 보면 《설문》역시 ‘一成’ 이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단옥재는 《說文注》에서 “坯, 丘一成者也.” 라고 본문을 고쳤고, 그 주에 각 본에 혹 一이 再로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배(坯)는 어떤 지형의 모습이다.

강이라 칭하고 하류에서는 양자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전통 주석가들이 말하는 한수의 별류(別流)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18) 삼서(三澁), 다수의 주석가들은 물 이름이라고 여기며 구체적으로는 나조하(哪條河)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설이 많다. 《사기·색은(索隱)》: “경릉(竟陵)에 삼삼수(三參水)가 있는데 보통 삼서수(三澁水)라고도 한다.” 서수(澁水)는 호북선 경산(京山)현 동관하(潼關河)에서 발원하는데 또 다른 이름은 사마하(司馬河)라고 하고 한천(漢川)현에 이르러 한수로 유입된다. 서(澁)는 《설문》에 “물가이다(水涯邊也).” 라 한다. 채침은 서수가 양양(襄陽) 부근의 마석산(魔石山)이라고 했는데 김리상(金履祥)은 《상서표주(尙書表注)》에서 서수(澁水)는 곧 필하(泌河)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설은 서(澁)가 지명이라는 것인데 호위는 洧水가 한수로 합류되는 곳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양양 方城 일대라고 한다. 고힐강 역시 지명이라고 여겼다. 이 역시 일리가 있다⁶².
- 19) 회(滙)는 회(回)로 한수와 장강이 서로 자루가 되어 물길이 동쪽으로 흘러 팽러택(彭蠡澤)을 이룬다. 팽러는 앞 양주의 내용 참조.
- 20) 북강(北江)은 아래 위 문맥에 비쳐보아 장강 하류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팽러의 동쪽 일대이고 한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21) 민산(岷山), 오늘날 민산은 사천성 송반(松潘)현에 있는데 민강(岷江)은 그 이름을 문강(汶江)이라고도 한다. 발원지는 사천성 송반현이다. 고힐강에 따르면 옛 사람들은 가릉강(嘉陵江)을 장강의 발원지(상류)라고 잘못 생각했으며 《우공》에서 언급하는 민산은 현 감숙성 천수군(天水郡)에 있는 파총산(岷冢山)을 가리키는 것이지 오늘날의 민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 22) 타(沱), 현재의 타강은 장강의 지류로서 그 상류가 민강(岷江)과 서로 근접한다. 민강은 민산에서 비롯되어 동남쪽으로 흘러 관(灌)현에 도달한 후에 하나의 지류를 내는데 동쪽으로 흘러가서 타강과 서로 접근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경문에서 “동별위타(東別爲沱).” 라고 말한 것이다. 고힐강에 따르면, 타(沱)란 장강에서 비롯된 여러 물길들을 범칭한 것으로 비단 현재의 타강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사천성 여러 물길 즉, 거수(渠水), 파수(巴水), 암수(宕水) 등을 모두 가리킨다. 이 설을 따른다.
- 23) 풍(澧)은 물 이름으로 옛 주석엔 례(醴)라고도 썼다. 오늘날에는 남, 북, 중 세 발원지가 있는데 상류의 이 세 물길이 합해진 후 호남성 상식(桑植)현 동남쪽으로 흘러가며 대용(大庸), 자리(慈利), 석문(石門) 등을 경유하여 풍(澧)현에서 동정호로 들어간다. 고힐강의 고증에 따르면 《산해경·중차십이경(中次十二經)》에 “동정호에 있는 산에 제(帝)의 두 딸이 살았는데 …… 이 곳은 구강(九江)의 사이에 있었다.” 동정산은 현재 호북성 응산(應山)현 서쪽에 있고, 원수(沅水), 운수(溇水)로 추정되는데 수주(隨州)의 대홍산(大洪山)에서 발원하여 장강으로 들어간다. 상(湘)은 곧 양(襄)으로 이것은 곧 양양(襄陽) 이하의 한수에 대한 별칭이다. 《산해경》은 풍수(澧水)와 원수(沅水)를 검칭했는데 이

⁶² 또 다른 설로 “삼서(三澁)란 창랑지수 남쪽의 한수(창랑지수는 한수의 한 지역에서의 이름) 가에 있는 세 개의 큰 제방을 말한다. 즉, 어떤 하천에 ‘서(澁)’가 있다고 하는데 왕왕 이를 지명으로 오인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좌전》에 ‘구서(勾澁; 문공18년)’, ‘장서(漳澁; 선공4년)’, ‘수서(睢澁; 성공15년)’, ‘원서(遠澁; 소공23년)’, ‘용서(雍澁; 정공4년)’ 등의 예가 있다. 顧頡剛·劉起野, 앞의 책, p. 798.

는 곧 풍수가 원수의 한 지류인 것으로 원수의 하류가 바로 옛 운몽택(雲夢澤)이고 동쪽은 구강이 된다. 고힐강은 또 《한서·지리지》를 인용하여 “(남양군(南陽郡))치(雉), 형산(衡山)은 풍수(澧水)의 발원지로 동쪽으로 옥(?)에 도달해서 여수(汝水)로 유입된다.” 한나라 당시의 치(雉)현은 현재의 하남성 남소(南召)현인데 이곳에 풍수(澧水)가 있다(《中國古代地理名著選讀》제1집). 그의 고증이 정밀하여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24) **동릉(東陵)은 지명. 세 가지 설이 있다.** ①호위(胡渭)는 《한서·지리지》와 《수경·결수주(決水注)》에 근거하여 그 소재지를 현재의 하남성 고시(固始)현 서남쪽에서 호북성 황매(黃梅)현의 북쪽 일대라고 했다. ②채침은 현재의 호남성 악양이 동릉이라 한다. ③왕명성(王鳴盛)은 오늘날의 호북성 황매현이 동릉이라 주장한다. 고힐강은 호북성 광제(廣濟) 동북에서 황매현 경계까지를 동릉이라고 고증했다. 그러나 “구강을 경유하여 동릉에 도달한다” 라는 경문에 비취보면, 구강이 가리키는 곳은 고힐강이 현재의 호북성 광제, 황매 그리고 안휘성 숙송(宿松), 망강(望江) 일대라고 고증했으므로 당연히 동릉은 구강의 동쪽에 위치해야 하므로 현재의 안휘성 안경(安慶), 종양(樞陽) 그리고 팽려의 서쪽 지역이 되어야 한다.

25) 이(迤). 《설문》: “(邪行也).” 회(滙)는 하류의 범람하는 물이 선회하여 모여 저수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경문의)東迤北會于滙” 는 앞에서 나온 “동쪽으로 범람한 물이 모여 저수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팽려다(東滙澤爲彭蠡)” 와 같은 의미이다. 장강은 동릉을 지나쳐서 팽려에 도달하고 팽려는 곧 안휘성 숙송(宿松)의 동쪽인 회녕(懷寧), 종양(樞陽), 무위(無爲) 등의 지역으로 장강 북안 일대의 호수 나루터이다. 구강의 물은 바로 이곳에서 돌아 모이게 된다. 증운건(曾運乾)은 회(滙)를 회(淮)의 가차자라고 생각하여 장강과 회수의 두 큰 물길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읍라 주장했다.

26) **중강(中江)은 양주의 삼강(三江) 주석을 참조하라.** 중강은 장강 하류의 물길이 나뉘어 바다로 유입되는 세 갈래 지류 중의 하나이다. 《한서·지리지》: “단양군(丹陽郡) 무호(蕪湖): 중강이 서남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양선(陽羨; 현재의 강소성 宜興)에 도달하여 바다로 유입된다.”

27) **연수(沆水)는 산서성과 하남성의 경계가 교차하는 왕옥산(王屋山)에서 발원하여 하남성 무척(武陟)현에서 황하로 유입된다. 동쪽으로 흐르면 제수(濟水)가 되어 황하로 유입된다:** 구설에는 제수가 세 번 땅 밑으로 숨었다가 세 번 땅 위로 나온다고 하는데(三伏三見) 왕옥산에서 발원할 때는 그 이름이 연수(沆水)인데 땅 밑으로 잠행하면 한 번 숨은 것이고; 그 동쪽에서 땅 위로 나와 동과 서 두 발원지에서 나온 물이 합류하면 제수라고 이름하니 이것이 한 번 땅 위로 나온 것이다. (합류하여) 제수가 된 이후로 다시 황하 밑으로 숨으면 두 번째로 잠행하는 것이니; 황하를 땅 밑으로 남쪽으로 횡단하여 나와 넘쳐 흐르면 형택(滎澤)이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다. 형택을 지난 이후로 다시 땅 밑으로 숨는데 이 것이 세 번째 숨는 것이고; 동쪽으로 흘러가 도구(陶丘)의 북쪽에서 출현하면 이 것이 세 번째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견강부회한 설명으로 옹문호(翁文灝)는 “《우공》의 원문이 어떻게 해석하던 간에 제수가 황하를 땅 밑으로 건너가서 세 번 숨고 세 번 다시 땅 위로 나온다는 것은 지리 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비난한다.⁶³ (《中國地理學中几介錯誤的原則》,

⁶³ 《공소(孔疏)》: “제수가 황하와 합류된 후엔 두 물이 서로 엉클어지는데 어떻게 황하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나옴

《錐指集》)

- 28) 일(溢)은 황하가 넘쳐 흘러 이룬 형택(滎澤)을 가리킨다. 형은 형택으로 현재의 하남성 형양(滎陽)인데 동한(東漢) 당시에는 형파(滎播)라고 불리었고 오래 전에 이미 평야가 되었다. 황하 남쪽으로 다시 나왔다고 하는 제수가 이 곳에서 발원한다.
- 29) 도구(陶丘)는 산동성 정도(定陶)현 서남쪽 약 7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아·석구(釋丘)》: “구(丘)가 중첩하여 이루어진 것을 도(陶)라 한다(丘再成曰陶).” 또는 釜口라고도 하는데 《죽서기년(竹書紀年)》: “魏襄王 19년에 설후(薛侯)가 부구(釜口)에 와서 조회하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다. 出은 즉 구설의 제수가 땅 위로 세 번째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 30) 하(菏)는 현재의 산동성 하택(荷澤)시 일대인데 하택은 고대에 큰 저수지였다.
- 31) 문(汶)은 문수(汶水). 《한서·지리지》: “秦山郡萊蕪: “우공)에 언급된 문수(汶水)가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제수(洸水; 濟水)로 유입된다.” 문수의 발원지는 현재의 래무(萊蕪)현 악양산(岳陽山)이다. 이 일단의 제수는 거야(巨野)에서 두 줄기로 나뉘는데;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가서 하수가 되어 사수(泗水)로 유입되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가서 제수(濟水)가 되어 거야택(巨野澤)을 통과한 후 동평에 도달해서 문수와 합류한다.
- 32) 경문의 ‘又北東入于海’ 는 《한서·지리지》: “제수가 형양으로부터 동쪽으로 랑괴(琅槐)에 도달해서야 바다로 들어간다.” 랑괴(琅槐)는 서한의 치(置)현으로 뒤에 폐해지고 옛 성이 현재의 산동성 광요(廣饒)현 동북 1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동평(東平)을 지난 후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황하의 물길은 동아(東阿), 장청(長清), 력성(歷城), 장구(章丘), 추평(鄒平), 박흥(博興), 광요(廣饒)를 경유한다. 제수는 오늘날 그 상류는 모두 매몰되었고 그 하류의 옛 물길은 대략 대청하(大清河)와 소청하(小清河) 등이다.
- 33) 회(淮)는 회하(淮河). 동백(桐柏)은 동백산(桐柏山). 모두 앞에서 이미 보았다.
- 34) 사(泗)와 기(沂)는 곧 사하(泗河)와 기하(沂河)로 두 하천은 강소성 쵸현 일대에서 모여 합해진 후 홍택호(洪澤湖)를 지나 회음(淮陰)으로 나와 회하와 합류하고 동쪽으로 흘러 강소성 북부(蘇北)에 도달해서 바다로 나아간다. 혹은 남쪽으로 흘러가 홍택호와 보고호(寶高湖), 그리고 양주(揚州)를 한 줄기로 가로지른 후 삼강(三江)에서 장강으로 들어가고 장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운하가 개통된 후에나 가능했다. 송대의 회하(淮河)는 빈해(濱海) 운제관(雲梯關)을 통해 바다로 들어갔다. 금나라 이후에 황하 회수의 물길을 침범하여 바다로 들어감으로써 회하가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을 파괴하였으니 이 두 하천이 강소성 북부를 범람했다. 현재의 회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는 해방 후 회수를 치수할 때 새로 연 물길로 홍택호로부터 회음에 도달한 후 황하의 옛 길을 따

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황하는 탁하고 제수는 맑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수경주(水經注)》: “《진지도지(晉地道志)》에 ‘제수는 대비(大伾)에서 황하로 유입되는데 하수와 서로 싸우면서 남쪽으로 흘러 넘쳐 형택이 된다.’” 채침, 《서집전》: “선유들은 제수의 물이 아래로 급히 질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능히 황하로 들어가 하저를 뚫고 흘러나옴으로써 나타나기도 하고 숨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설은 옛 전적에 다수 있는데 사실은 현재의 형양 북쪽 지역에 있는 옛 황하가 한 지류를 내어 동남쪽으로 흘러감에 그 물길의 북쪽 가가 제수가 황하로 들어가는 곳에서 반대편에서 비스듬히 붙어 있게 된다. 옛 사람들은 이를 제수가 황하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흘렀다고 오인한 것이다. 즉, 남쪽에 있는 이 황하로부터 나온 한 지류를 제수라고 생각한 것이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802.

라 동쪽으로 투자구(套子口)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중산하(中山河)라고 하기도 하고 신회하(新淮河)라고도 한다.

35) 위(渭)는 위수(渭水). 조서(鳥鼠)는 산 이름. 앞에서 다룬 바 있다.

36) 풍(豐). 고대의 경(涇)·위(渭)·산(澆)·로(滌)·패(灞)·홀·풍(豐)·호(滄) 등은 관중의 팔수(八水)였다. 위수의 남쪽에 있는 것으로는 풍수가 가장 크다. **섬(陝)현의 진령산맥(秦嶺山脈)에서 발원하여 장안을 경유한 후에 위수로 유입된다.** 현재는 그 옛 물길이 모두 사라졌다.

37) 경(涇). 위수(渭水)의 지류로 **남북의 두 발원지를 가진다.** 남쪽 발원지는 감숙성 경원(涇源)현 서남쪽의 대관산(大關山)이고 북쪽 발원지는 념하자치구(寧夏自治區)의 고원(固原)현 육반산(六盤山) 동쪽(東麓)인데 두 발원지에서 나온 물이 평涼에서 회합하여 경천(涇川), 경양(涇陽)을 경유하여 고릉(高陵) 남쪽에 도달해서 위수로 합류한다.

38) 칠(漆)과 저(沮)는 물 이름으로 앞 참조.

39) 낙수(洛水)는 웅이산(熊耳山)에서 발원한다. 앞 참조.

40) 낙수(洛水)의 물길이 잘 소통된 후로는 동북쪽으로 하남성 낙양(洛陽)까지 흘러가고, 간수(澗水)는 낙양의 서남쪽으로부터 와서 합류하며 전수(灋水)는 북쪽에서 흘러와 낙양의 동쪽에서 낙수로 유입된다.

41) 이(伊)는 이수(伊水). 하남성 로씨(盧氏)현 동쪽의 熊耳山(이 웅이산은 낙수가 발원하는 웅이산(맥)과 같은 산 줄기이다)에서 발원하여 호현·이천·낙양·언사를 경유한 후 낙수로 유입된다.

42) 낙수(洛水)가 동쪽에서 이수(伊水)와 합류한 후 다시 동북방향으로 흘러 가서 하남성 공현(鞏縣)의 북쪽에서 황하로 흘러 들어간다.

九州攸同，四隩既宅；九山刊旅，九川滌源，九澤既陂，四海會同。六府孔修，庶土交正，底慎財賦，咸則三壤成賦中邦。錫土姓，祇臺德先，不距朕行。

五百里甸服。百里賦納總，二百里納銓，三百里納秸服，四百里粟，五百里米。

五百里侯服。百里採，二百里男邦，三百里諸侯。

五百里綏服。三百里揆文教，二百里奮武衛。

五百里要服。三百里夷，二百里蔡。

五百里荒服。三百里蠻，二百里流。

東漸於海，西被於流沙，朔·南暨聲教，訖於四海。禹錫玄圭，告厥成功。

구주 전역의 산과 하천을 소통시키는 공정이 완료되니 수해가 모두 제거되었고 사방이 모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으로 바뀌었다. 구주의 큰 산의 도로가 개통되고, 구주의 큰 하천 역시 모두 그 발원지와 물길까지 소통되었으며 구주의 호수와 저수지에 모두 제방을 쌓으니 해내의 공물을 옮기는 길이 모두 뚫려 막힘이 없게 되었다.

부세징수를 담당하는 육부의 사무가 잘 운용되고, 구주의 토지가 모두 질과 양에 따라 감정되어 신중하게 공물과 부세의 많고 적음을 규정하였고 구주 지역의 부세 역시 토양의 상중하 세 종류에 근거하여 표준을 확정지었다. 그런 후에 제후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성을 하사하여 제후국을 세웠는데 제후들은 마땅히 짐이 주창한 덕교를 숭선하여 높여 경외하고 짐이 제창한 덕행을 위배해서는 안될 것이다.

천자의 도성으로부터 5 백리까지를 전복(甸服)이라 한다. 그 중 도성과의 거리가 1 백리 이내인 곳은 농작물을 베어 거두어 (뿌리까지) 온전하게(總) 보냄으로써 부세를 납부하고; 2 백리 이내는 이삭(銓)을 부세로 내며; 3 백리 이내는 걸쭉질이 붙어있는 채로 곡물(秸服)을 부세로 납부하였고; 4 백리 이내는 겨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粟)을 부세로 내었으며; 5 백리 이내는 겨를 제거한 정제된 쌀(米)을 부세로 납부하게 했다.

전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후복(侯服)이라 한다. 후복의 1 백리 이내는 대부의 채읍이고, 사람들은 천자를 위해 각종 부역에 복무하였다; 2 백리 이내는 남방(男邦)의 소국으로 사람들은 천자를 위해 일정한 부역을 부담했다; 3 백리 밖의 제후국 백성들은 천자를 위해 보초를 서서 경계했다.

후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수복(綏服)이라 한다. 수복의 3 백리 이내는 문교를 관장하는 관원을 두어 문교를 행하도록 하고, 그 바깥 2 백리 지역의 백성들은 무장을 시켜 천자를 보위토록 하였다.

수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요복(要服)이라 한다. 요복의 3 백리 이내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그 풍속을 변화시켜려하고, 그 바깥의 사람들은 부세를 감면해 주었다.

요복 바깥의 5 백리 이내를 황복(荒服)이라 한다. 황복에서 3 백리 이내의 사람들은 현지의 풍속에 따라 다스리고 예절을 간소화시키며 그 바깥의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맡기고 그들에게는 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도달하고 서쪽으로는 사막에 도달했으며 북방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천자의 덕교를 퍼뜨렸다. 이에 제 순은 우에게 검은 색의 상서로운 옥을 내려 천하에 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했으며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주석]

- 1) 구주(九州). 구주는 기주·연주·청주·서주·양주·형주·예주·량주·옹주 등을 말한다. 유(攸)는 소(所)와 같다. 동(同)은 평(平)의 의미다. ‘九州攸同’이란 상문을 총결하여 구주의 도산(導山)과 도수(導水)의 공정이 모두 완료되었고, 수해가 모두 다스려졌음을 가리킨다.
- 2) 오(隩)는 오(塿)⁶⁴와 통한다. 사오(四隩)란 사방이다. ‘사오기택(四隩既宅)’은 사방천지가 모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택(宅)은 살다의 뜻이다.
- 3) 구산(九山). 아래의 구천(九川), 구택(九澤)과 함께 구주를 가리키는 말로 구주의 산과 하천 그리고 저수지를 말한다. 간(刊)은 제(除)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⁶⁵. 여(旅)는 길로 왕인지(王引之)는 왕념손(王念孫)의 설을 인용하여 “려(旅)는 길이다.”라고 했다.
- 4) 척(滌)은 조(條)와 같은 글자. 안사고(顏師古)의 《한서》주석에 “조란 (그 원류까지) 도달하는 것이다(條, 達也).” 손성연(孫星衍)의 《상서금고문주소(尙書今古文注疏)》: “조원(條源)이란 물길을 소통시켜 그 발원지까지 도달시키는 것이다.”⁶⁶
- 5) 피(陂)는 《설문》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막다(택장(澤障)).” 즉, 방죽으로 호수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6) ‘사해회동(四海會同)’은 《국어·周語》에 “물길을 합류시켜 사해로 통하게 하다(合通四海).”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위소(韋昭)는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다.”라고 주석했다. 경문의 ‘사해회동’은 이 말과 뜻이 비슷해 보인다. 즉, 구주의 산과 물, 그리고 저수지를 사해와 서로 통하게 한 것이다. 옛 사람들은 물을 아홉 개의 주로 나누고 그 바깥 사방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실 중국은 동쪽과 동남쪽으로만 바다에 면해있고 그 외 삼면은 머릿속의 개념일 뿐이다. 《공전》: “사해지내가 경사(京師)로 하나로 모이다.” 《이아·석지(釋地)》: “구이(九夷)·팔적(八狄)·칠융(七戎)·육만(六蠻) 이들을 일러 사해(四海)라 한다.” 오늘날에는 동이·남만·서융·북적 등의 사(四夷)를 적(狄)이라 통칭한다. 그 아래 ‘聲教迄于四海’의 ‘사해’의 뜻과 동일하다.
- 7) 육부(六府). 《좌전·문공7년》: “水·火·金·木·土·谷을 일러 육부(六府)라 한다.” 《예기·곡례(曲禮)》: “천자의 육부를 일러 사토(司土), 사목(司木), 사수(司水), 사혁(司革), 사기(司器), 사화(司貨)라 하고 전사육직(典司六職)이 있다.” 그 주석에 “부(府)란 육물(六物)의 부세를 보관하고 주관하는 이로 은나라 때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육부란 모두 세금 징수를 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기》의 뜻을 따른다. 공(孔)은 깊음의 뜻. 수(修)는 치(治) 혹은 비(備)의 의미로 그 뜻이 확장되어 정비하다는 의미로 되었다.

⁶⁴ 《說文·土部》: “塿, 四方土可居也.”

⁶⁵ 간(刊)이란 수목을 찍어내어 표식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사기》와 《한지》에는 ‘栗’으로 되어 있다.

⁶⁶ 《사기·하본기》와 《한서·지리지》에는 ‘九川滌源’이 ‘九川既疏’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源’은 두 책 모두에서 ‘原’으로 되어 있다. 《說文·川部》: “原, 水泉本也. 從泉出山下.” 즉 原은 실제로 泉源의 본자이다.

- 8) 서(庶)는 많음의 뜻. 서토(庶土)는 구주의 많은 토지를 범칭한다. 교정(交正)은 《공전》에 “교(交)란 구(俱)다. 중토(衆土)가 모두 바른 색깔을 가지는 것을 일러 양(壤), 분로(墳壚)라 한다.” 큰 뜻은 (각 주의 토지의 좋고 나쁨을) 잘 살펴서 각주 토지의 질량의 등급을 감정한다는 것이다.
- 9) 지(底)는 치(致)로 성과를 얻다. 신(愼)은 삼가다. ‘지신재부(底愼財賦)’ 공안국은 “삼가하여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재화와 공물 부세를 말하는 것이고 재화를 취함에 있어 절제함이 있어 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정현은 말한다. “구주의 여러 토지를 그 좋고 나쁨을 헤아려 (재화를 취함에 있어) 바름을 얻고, 공물과 비(篚; 바구니에 담아 올리는 공물의 하나)를 징수함에 그 세금을 삼가 올림에 있어 모두 법으로 제도를 정하여 받아 들이게 했다.”
- 10) 함(咸)은 모두. 칙(則)은 법(法)으로 표준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삼양(三壤)은 토양을 상 중하의 삼품으로 나누고 9등급으로 세분하였다. 성부(成賦)란 부세를 납부하는 것. 중방(中邦)은 곧 구주를 가리키는데 《사기·하본기》의 중국이란 사해와 사이에 상대되는 말이다. 채침, “중방이란 중국이다. 토부(土賦)의 부과는 아마도 사해(四夷)에 해당하고 전부(田賦)는 중국 땅에 그칠 따름이다. 이에 ‘成賦中邦’이라 말한 것이다.” 이는 곧 부세는 구주에 다만 한정되었음을 말한 것으로 여기서 이를 따른다.
- 11) 석토성(錫土姓), 《좌전·은공8년》: “천자가 덕을 세움에 생(혈연; 선천적)을 토대로 성을 내려주고 토지를 나누어주어(연고; 후천적) 씨를 내리다(天子乾德, 因生以賜姓, 胙定土而命之氏).” 이것은 제후를 분봉하여 토지를 나누어 성을 내려주고 제후국을 건립했음을 의미한다. 하우 당시는 아직 서주 시대의 엄격한 분봉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 부락이 부락연맹의 중심이 되었다가 후에 드디어는 하 방국이 통일체 조기국가의 중심으로 변천해 간 것이다. 제후란 각 방국을 말한다. 서주의 봉건제도를 하 시대에 갖다 붙일 수는 없다⁶⁷.
- 12) 지(祗)는 경(敬). 태(台)는 이(怡)와 같은데 일인칭대사 나이다⁶⁸. 거(距)는 거역하다(위항(違抗)). 짐(朕)은 나.
- 13) 전복(甸服⁶⁹). 《국어·周語上》: “선왕의 제도에 방내는 전복(甸服), 방외는 후복(侯服), 후위(侯衛)는 빈복(賓服), 이만(夷蠻)은 요복(要服) 그리고 융적(戎狄)은 황복(荒服)이 있었다.” 전(甸)이란 왕전(王田)으로 천자의 영지를 말한다. 전복에 대해 《예기·왕제》의 ‘전(甸)’에 대한 주석에 “오등급의 복은 밭을 일구어 부세를 내었다(服治田出谷稅也).” 라 하니 이것은 천자의 영지에서 (오등급의) 각 복이 각종 노역에 복무함을 가리킨다. 전국 시대의 유가들은 우 시대의 도읍지 바깥을 오등급으로 분할하여 한 등급마다 사방으로 각각 5백리의 거리차를 두었는데 국도의 바깥 첫번째 등급을 전복으로 삼았다.

⁶⁷ 《국어·周語》: “(……) 皇天嘉之, 胙以天下, 賜姓曰似, 氏曰有夏.” 에 의하면 우의 공적을 치하하여 우에게 분봉하고 성씨를 내린 것임.

⁶⁸ 일반적으로 ‘지태덕선(祗臺德先)’을 ‘공경하게 나의 덕업을 우선으로 삼아라’고 해석하지만 ‘덕화를 우선으로 하라’의 의미이며 바로 이어지는 ‘불거짐행(不距朕行)’과 균형을 이룬다. 소식, 《書傳》: “내(왕)가 솔선수범하여 덕을 행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여 거역하지 않는다(我以德先之, 則民敬而不違矣).” 짐(朕)은 고대에는 일인칭을 가리키는 어휘였지만 진시황 이래로 천자를 가리키는 전용어로 바뀌었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814.

⁶⁹ 복(服)의 원래 의미는 천자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직무와 관위 등의 부류이다. 顧頡剛·劉起鈞, 앞의 책, p. 816.

- 14) 총(總)이란 온전한 세금(全禾)를 가리킨다. 농작물을 연이나 경 등의 단위로 분할해서 한 묶음(一捆)으로 한다. ‘百里賦納總’이란 농작물을 온전(完整)하게 납부함을 말한다.
- 15) 질(銓)은 낫으로 농기구. 수확한 농작물을 낫을 이용하여 이삭을 떨어내기에 낫으로 이삭을 대표한 것이다. 납질(納銓)은 곧 이삭을 공물로 올림이다.
- 16) 갈(秭)은 질(銓)이다. 마옹, “갈이란 벼에서 이삭을 떨어낸 것이다.” 영(穎)은 벼줄기의 끝(이삭)부분이다⁷⁰.
- 17) 후복(侯服)은 전복(甸服)의 바깥 5백리 범위이다. 오복 중 2등급이며 왕도로부터는 1천리까지이다. 후(侯)자는 후(候)로 쓰는 것이 맞으니 즉 척후(斥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전》: “척후란 험한 곳을 조사하여 도적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5백리(후복)에서는 주로 살피는 것(斥候)으로 천자를 섬기기 때문에 후복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 18) 채(采). 《요전》: “疇咨若予采.”에 대해 마옹은 “채(采)는 곧 관(官)이다.” 《예기·악기(樂記)》의 주석에 “관(官)이란 곧 업무(事)이다.”라고 했다. 왕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을 채라 부르는데 인신되어 천자를 위해 부역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춘추공양전·양공15년》의 주석에 “이른바 채(采)란 토지와 사람은 분봉받은 것은 없이 그저 조세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채침의 《서집전》은 “채(采)란 경대부의 읍지다.”라고 말한다. 그 백성과 토지는 국가에 예속되고 봉함을 받은 경대부는 식지(食地)를 받은 것에 가깝다.
- 19) 남방(男邦)을 《사기》에서는 ‘임국(任國)’이라 쓰고 있다. 남(男)과 임(任)은 고대에는 통용되었고 임은 담당하라는 의미다⁷¹. 채침, “남방이란 작위 남에 해당하는 소국이다.” 즉 경대부에 비해서는 높지만 보유한 토지와 백성이 작은 소국이다.
- 20) 제후(諸侯). 채침, “제후의 작위는 大國이다.” 후(侯)는 작위 남(男)에 비해 좀 더 큰 봉국이다. 《공전》: “(同爲王者斥侯).” 즉 윗 문장의 후·척후는 경계하고 보초를 서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 21) 수복(綏服)은 후복의 바깥 5백리로 왕도로부터는 (1000리부터) 1500리까지이다. 수(綏)는 편안하다는 뜻이니 수복이란 평정하다(安撫)의 뜻이다.
- 22) 규(揆)란 관장하다 혹은 관리하라는 의미로 예를들면 백규(百揆)란 곧 백관(百官)을 말한다. 그러므로 규문교(揆文教)란 문교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가리킨다.
- 23) 분무력(奮武力)은 곧 무력을 떨쳐 천자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 24) 요복(要服)은 수복의 바깥 5백리로 왕도로부터는 (1500리부터) 2000리 사이이다. 요(要)는 풀이

⁷⁰ ‘갈복(秭服)’에 대해 안사고는 《한서·지리지》의 주석에서 “복(服)을 말한 이유는 부역은 곧 복(服; 복무)이기 때문일 따름이다(言服者, 蓋有役則服之耳).” 진환(陳奐)의 《시모씨전소(詩毛氏傳疏)》는 부(稌)와 복(服)이 두 글자는 서로 가차하며 《생민(生民)》에 대한 소에서 “지푸라기를 제거하고(斷去其稾) 재차 이삭을 떨어낸 것을 갈(秭)이라 한다. (그 중) 길쭉질이 붙어있는 것을 일러 갈복(秭服)이라고 부르는데, 갈(秭)은 알맹이요 갈복(秭服)은 알곡을 덮고있는 겉질이다. 부(稌)와 복(服)의 음은 서로 비슷한데 《위공전》에서 갈(秭)을 고(稾)로 오해한 이래로 안사고 역시 잘못 풀이한 것일 따름이다.” 한편 복을 그저 연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秭은 銓·粟·米 등과 병렬인데 여기엔 복자가 없기 때문이다. 《撰異》: “겨를 제거한 것을 미라 하고, 아직 벗겨내지 않은 것을 속이라 한다(去糠者爲米, 未去者爲粟).”

⁷¹ ‘男’자는 서주의 문헌과 금문에서도 보이며 갑골문 중에서는 ‘任’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기》 역시 근거가 있다. 왕균(王筠)이 인용한 《大戴禮·本命篇》에 “男者, 任也.”라 한다.

비교적 많은데 ①《국어·주어상》의 위소(韋昭)의 주석에 “요란 결연(結緣)을 요구하여 믿음직스럽게 복종하는 것이다.” ②요란 결속의 뜻으로 《공전》: “문교(文教)로써 결속하다.” ③채침, “요란 요약(要約)을 취한다는 뜻으로 특별히 매어놓고 견제(羈縻)할 따름이다.” ④요승박(姚承朴)의 《상서의략(尙書誼略)》은 마기창(馬其昶)의 설을 인용하여 “요(要)는 요(徼)와 통용된다. 변방을 요(徼)라 하므로 요복(要服)이란 변복(邊服)의 의미다.” 이상의 여러 설 중 채침의 설이 좋다.

- 25) 이(夷). 《공전》: “평상시의 가르침을 지켜 왕을 섬길뿐이다.” 마융은 “이란 바꿈이다(夷, 易也).” 왕선겸(王先謙)의 《상서공전참정(尙書孔傳參正)》: “그 풍속이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천천히 나아가간다.” 역(易)은 곧 뜯어 고칠 수 있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왕선겸의 설을 따른다.
- 26) 살(蔡). 정현, “살(蔡)은 쇠(殺)로 그 부세를 감해 주는 것이다.” 손성연(孫星衍)은 “이복의 공물은 중국에 비해 감해주는데 공물은 곧 부(賦)로 간주하므로 그들의 부를 감해준다고 말한 것이다.”
- 27) 황복(荒服)은 요복의 바깥으로 왕도로부터 (2000리로부터) 2500리에 해당한다. 가장 먼 복이다. 마융(馬融), “정교(政教)가 거칠어서 그 곳의 습속을 기반으로 다스린다.” 《국어·周語上》의 위소(韋昭)의 주석, “삭막한 변방의 땅은 융적(戎)과 습속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황(荒)이라 이름한 것이다.”
- 28) 만(蠻). 마융, “만(蠻)은 만(慢)이며 예가 간략하고 태만한 것이다.”
- 29) 류(流). 움직이며 멈춤이 없다. 황복의 땅은 다수가 유목을 위한 땅으로 유목민족을 물과 풀을 따라서 거주지를 옮긴다. 농경민족의 정착생활과는 정반대로 거주지를 이동함에 일정함이 없고 고정된 거주지도 없다. 그러므로 정현은 “流란 이적(夷狄)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말하며 혹은 조공을 하고 혹은 하지 않는다.” 라고 주석하고 있다.
- 30) 점(漸)을 《한서집주(漢書集注)》, “入也.” 라 한다. 일설에는 점(漸)과 지(漬)가 같은 뜻으로 차츰스며들다란 뜻으로 풀이한다.
- 31) 피(被)는 급(及). 유사(流沙)는 먼 서북지역의 대사막을 널리 가리킨다.
- 32) 삭(朔)은 북쪽의 뜻. 기(暨)는 함께(及)의 의미. 강성(江聲), “日頗見也.” ‘朔南及聲教’의 뜻은 해가 비추는 모든 곳은 천자의 성교로 양육되는 곳이란 의미.
- 33) 석(錫)은 사(賜)와 같다. 현규(玄圭)는 《사기》에 ‘원규(元圭)’ 라고 되어 있다. 규는 상서로운 옥을 말한다. 《사기·하본기》는 “이에 제 순이 우에게 현규를 내리고 천하에 (치수가) 성공했음을 알리니 이에 천하가 태평하게 다스려졌다.” 고 말하고 있다. 제는 요와 순을 가리키나 때로는 천제를 가리키기도 하며 모두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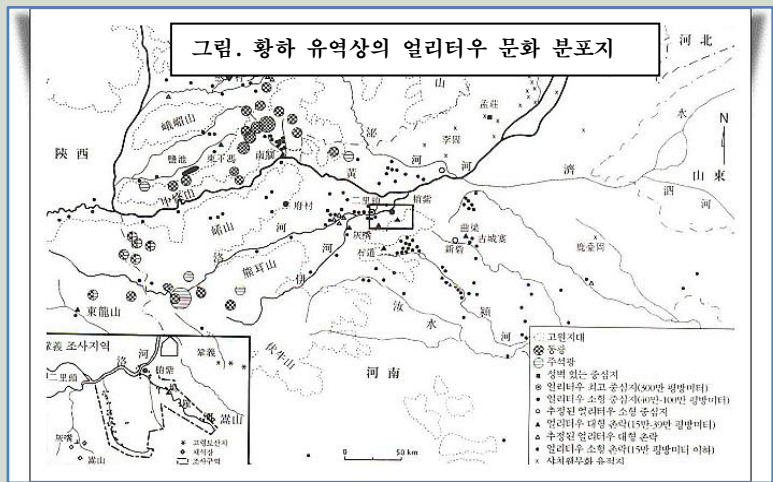
<참고: 중국 고고학 유적지(청동기시대)들의 연대와 발전 양상>

	연대	고고학단계	얼리터우	엔스	정저우	안양	웬취	동사평
상후기	1046~ 1220	은허				◎◆♠		
상중기	1435	과도기				◎◆♠		
		얼리강상층후기	◎□	◎□	◎□◆♠			◎□
상초기	1600	얼리강상층초기	◎얼리강&상	◎□	◎□◆♠		◎□◆	◎□
		얼리강하층후기	◎	◎□	◎□◆♠		◎□◆	◎□◆
		얼리강하층초기	◎	◎□	◎□◆♠		◎◆	◎□◆
		얼리터우 IV 기	◎◆♠	◎◎□◆			◎◆	◎◆
하	1900	얼리터우 III 기	◎◆♠				◎◆	◎◆
		얼리터우 II 기	◎◆♠					◎
		얼리터우 I 기	◎얼리터우					

◎얼리터우문화존재, ◎얼리강과 상문화, □성벽존재, ♠최고중심지위치, ◆청동야금존재(연대:하상주단대공정 방사성탄소측정)

현

재 중국 고고학 발굴에서 청동기 시대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얼리터우 문화로 이뤄분지(伊水和 洛水사이)를 그 중심지로 한다. 방사성탄소측정연대로 분석했을 때, 얼리터우 유적지의 가장 오래된 연대는 약 B.C.1900년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이 문화가 과연 국가수준의 문화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대체로 서양학자들은 국가



단계의 사회로서의 얼리터우에 대해서 회의적이나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국가 수준의 사회였으며 하 혹은 상대의 도읍지로 보고 있다. 중국 고고학자들은 태생적으로 고고학적 발굴과 전통문헌과의 연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리우리(劉莉), 천싱찬(陳星燦)은 이러한 기존 중국 고고학에서의 한계를 정치-경제의 관점에 초점을 놓고 얼리터우와 하 왕조라는 도식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고고학적 자료들에만 의존하여 초기국가의 사회 형성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중국고대국가의 형성》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들은 신석기 후기 룡산문화에서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했을 때 취락형태와 물질문화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①유적지의 취락등급 측면의 통계분석을 통해 얼리터우는 룡산문화에 비해 보다 더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지배능력이 강화되었다. ②다수의 상쟁하는 소규모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거대 중심지가

주변을 지배하는 양식으로 변화 ③룡산 시기 40만 평방미터에 지나지 않던 최대 유적지의 규모가 30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④다양한 도기의 유형이 2개 유형으로 균일화 되는 것을 근거로 정치적 일체화와 관련된 수공업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암시한다. ⑤기존 옥기나 백도 같은 도기 이외에 처음으로 무기나 예기로 사용된 청동기가 신분상징이 되었다. ⑥사치품의 장거리 교역이 가능하고 있다. ⑦얼리터우 유적지 자체가 고도로 계층 분화된 도시 중심지로 발전했다. 결론적으로 얼리터우 문화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정치적으로 집권화된 새로운 사회, 즉 국가의 출현을 의미한다.

얼리터우 문화(B.C.1900~1500); 각 단계는 약 100 년 단위로 측정됨. 제 I 기(B.C.1900~1800): 지역 중심지 정도의 취락 규모. 신석기시대로부터 약 500 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화를 향한 초기발전은 자체 인구성장보다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보여짐. 제 II 기 ~ 제 III 기: 도시화의 시작 및 절정기. 제 IV 기: 얼리터우 문화의 쇠퇴. 리우리(劉莉), 천싱찬(陳星燦), 2003, 《중국고대국가의 형성》, pp.39-49.